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6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6월 17일(음력 5월 25일) 수요일(주간)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이 깊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 위는 동국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왼쪽)과 4대강유역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국민행동' 회원들. 큰 사진은 6 · 10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스님들. 박재완 기자

불교계·정부 깊어가는 갈등의 골

공원법 '개악' · 종교편향 여전… 시국선언·천막농성·결의대회 등 '강경'

2008년 8월, 서울광장에 모인 20만 불자들의 함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헌법준수와 종교차별 종식을 촉구한 야단법석이었다. 범불교도대회가 열린 1년 여가 흘렀지만 종교편향의 망령들이 사회 곳곳에서 저지르는 불교폄훼는 그칠 줄 모른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서거는 공안정국의 분수령을 이뤘다. '반민주적 공안정국' '1980년대로 돌아간 청와대 시계바늘' 등 정부의 삐뚤어진 대처를 비판하는 표현은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

#교계 내외 시국선언

안하무인격인 정부의 일방통행은 대불교 정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전국의 명승 가람이 대운하 속에 묻힐지 모를 한반도대운하사업은 '4대강유역정비사업'으로 이름만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립공원법과 자연공원법은 성보문화재는 안중에도 없이 환경생태와 개발 논리로 삼보정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자행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의도적인 '불교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6월 3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으로 촉발된 시국선언 대열에 불교계도 빠지지 않았다. 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각각 4일과 8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9일에는 불교계 지도자 108인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종립 동국대 교수와 학생들도 정부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15일 조계사에서는 실천불교승가회 회원스님들을 주축으로 한 조계종 중진스님들과 불교환경연대, 조계사 청년회 등 불교단체 사부대중 500여 명이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국선언의 주체는 달라도 요구는 같았다. △노 前 대통령 서거 관련 대통령 사과 △4대강 정비사업 포기 △미디어법 등 MB악법 폐기 △6 · 15공동선언과 10 · 4선언의 성실이행 △집회 · 결사 자유 보장 △종교편향 행위 근절과 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조계종 강경대응

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이명박 대통령 초청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 불참했다. 총무원장스님의 불참은 이례적인 조치로 조계종의 대정부 강경노선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

교계 안팎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 등과 관련해 종단 의견을 수렴 않는 정부에 대한 항의표시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조계종의 강경한 대정부 입장은 7월 2일 양산 통도사에서 개최될 전국교구본말사주지결의대회에서도 짐작된다.

#천막농성 등 실천행 잇따라

국립공원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장적)를 비롯해 교구본사 사회국장스님 워크샵 등을 통해 종단적 의견수렴과 역량결집에 나선 조계종은 전국본말사주지결의대회를 정점으로 정부에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6월 9일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 등이 속한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서울 조계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부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이 이름만 바꾼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앞선 3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세영 · 손안식)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종교편향위원회는 종교편향적 발언과 행동을 한 박승숙 인천중구청장의 사과와 전용태 안산시 민원즉심관의 임용 취소를 주장했다.

거듭된 종교편향에 종교평화위원회와 범불교도대책위 등은 전국적인 종교차별 교육과 MB정부 종교차별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등 국민인식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혁신적 변혁만이 공생의 길

불교계 행보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뒤늦게 불심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개원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예다.

불교계와 이명박 정부의 긴장관계가 지난 해와 같은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지, 안정적인 화합의 길로 들어설지의 여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조동섭 · 노덕현 기자

법구경

순수한 마음에서 풍기는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이 세상 끝까지 간다.

현대불교 e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www.buddhabook.co.kr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상량식, 불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선지식을 찾아서 ▶14 고우 스님


제2기 군종교구장▶5 자광 스님

도반의 향기 ▶9 최복천

자살? 한마음 돌리면 '살자'

안성 묵언마을, 자살방지 캠페인 · 예방 프로그램 개발도

근래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7만여 명에 이르며,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년간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자살사건과 관련, 태고종 안성 묵언마을(주지 지개야)이 홍보물을 제작하고 자살방지 캠페인에 나선다.

인터넷 다음카페(cafe.daum.net/anrdjsakdmf)로도 활동하고 있는 묵언마을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자살영가 천도재도 봉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50여 명을 자살의 위기에서 구해낸 묵언마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묵언마을 주지 지개야 스님은 "더 이상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사회 · 종교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살예방 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고민해 '자살'을 '살자'로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31)6723-108 김성우 기자

#지개야 스님이 말하는 '자살방지를 위한 10가지 자기 암시'

①산 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②주어진 환경을 뛰어 넘어라
③주어진 고민에 빠지지 말고, 그 고민 자체를 즐겨라
④최후의 심판은 시간이다
⑤빚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는 사채업자에게도 기죽지 말라
⑥마음먹기에 따라 극락이 되고 지옥이 된다
⑦쥐덫에 갇힌 쥐가 되지 말고 쥐덫을 관찰하는 제3자가 되라
⑧고통과 실패가 없는 성공은 사상누각이다
⑨부끄럼과 창피는 기준이 없다
⑩세상의주인공은 자신이며 나머지는 나를 위한 엑스트라다.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와 현대불교신문사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등불사 / 성보박물관 / 팔상탱(보물 제1330호) /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명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죽비와 목탁



박지원 기자
hdbp@buddhapia.com

수월관음도의 '귀환'이 남긴 것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은 통도사성보박물관이 유래 없는 특별한 전시를 열었다. 고려 불화의 최대 걸작으로 손꼽히는 일본 가가미신사가 소장한 '고려 수월관음도'가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전시된 후 다시 현해탄을 건너갔다.

가가미신사 '고려 수월관음도'는 아름다운 그림 만큼이나 크기에 있어서도 대단했다. 보통의 불화가 가로 · 세로 100~200㎝인데 비해 화폭의 크기만 가로 430㎝, 세로 254㎝에 이르는 대작이다. 충렬왕과 아들 충선왕을 대대로 모신 후궁이자 그들의 사후 고려 권력자가 된 숙비(淑妃)가 8명의 궁정화가를 동원해 1310년에 완성했다. 당대 최고 권력과 최고 예술가의 합작품인 것이다. 그 후 1391년 일본 가가미신사에 진상됐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왜구의 주요 본거지였던 규슈 서해안의 가가미신사에 1391년 약탈해 간 뒤 봉안됐다는 후대의 기록이 있으니, 그 진실은 화폭 속 관음보살님만이 아실 것이다. 어찌됐든 이곳에서도 연중 40일도 채 공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문화재를, 일본 측과의 어려운 교섭 끝에 잠시 임대해 온 것이다. 호암미술관의 임대 전시를 제외한다면 실로 600년 만의 '귀환'이다.

그렇다면 '고려 수월관음도'처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는 얼마나 될까? 문화재청에 따르면, 2009년 1월 현재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는 총 7만6143점이다. 그중 일본에만 3만4369점의 문화재가 있고, 미국에 1만8635점, 영국 6610점, 독일 5221점이 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유물이 해외로 넘어간 경위는 경매기관을 통한 낙찰, 기증, 거래 등 다양하다. 그중 숱한 침략의 역사를 거쳐 오면서 해외에 약탈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번 전시가 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대여를 준비 중이던 일본 시가현립 박물관에 국내의 모 방송사 취재진이 찾아가 대뜸 '불화를 가져간 왜구의 후손을 취재하려 하니 알선해 달라'고 한 것. 일제강점기에 강탈된 문화재는 응당 돌려받아야 옳다. 하지만 약탈의 물증이 불명확하고 그 유출의 경위조차 모르면서, 단지 애국심만 앞세운다면 우리의 귀한 성보(聖寶)들은 더 깊이 숨어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9월 국립중앙박물관 '100주년 특별展'에 일본에 있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 많은 해외 유출 문화재는 누가 찾아와야 할까. 그 해답은 수월관음도, 안견도 아닌 우리의 몫일 것이다.

"전통문화 체험과 자기 수행 기회 제공"

조계종, 6월 1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개원



6월 1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개원식 컷팅 모습.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와 템플스테이 대중화, 21세기 불교 인재 양성의 요람인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원장 종훈, 이하 전통불교문화원)이 공식 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11일 공주시 사곡면에 위치한 전통불교문화원에서 개원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완구 총남도지사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총무원장스님은 개원사에서 "종도들이 한마음으로 터를 파고, 기둥을 세우며, 들보를 올려 이처럼 훌륭한 문화원을 세우게 됐다"라며 "전통불교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체험과 자기 수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회의장스님은 축사에서 "(전통불교문화원이) 오늘날 인류에게 시급한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인성이 풍부한 연수시설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불교문화를 훌륭히 전파하고 대중화해 세계에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큰 문이 돼줄 것"을 발원했다.

전통불교문화원은 2004년 8월 건립부지 확정, 2007년 7월 착공식을 거행한 이후 244억원 예산을 투입해 연건평 3000평 부지에 교육행정동과 숙박후생동의 2개 동을 갖췄다.

교육행정동은 교육과 연수 및 회의, 불교문화 체험과 교육을 위한 시설로 다목적홀, 대강당, 강의실, 토론실, 운영본부 사무실, 휴게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실 이미지로 지어진 선방은 흙벽으로 마감돼 차분하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선 체험을 할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숙박후생동은 300여 명 수용규모의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숙박과 공양 등 후생 및 편의시설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전통불교문화원을 △템플스테이 관련 각종 연수 및 인력 양성 △중앙종무기관의 연수교육 실시 △종단 내 각종 연수교육의 적극 유치 △자체 수행,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내용으로 알차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원식에 앞서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간담회를 열고 "7월 2일 오전 11시 양산 통도사에서 열릴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할 전국본말사주지 결의대회에는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자비나눔 성금 총 8억9400만원

난치병 환아 · 이주노동자 의료비 · 저소득 가정 등 지원

조계종은 6월 8일 자비나눔에 동참해 준 불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하며 집행내역안을 공개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성금은 약정포함 총 8억9400만원(6.10 기준)으로 집행안은 △난치병 환아 및 이주노동자 의료비 지원-1억2000만원 △저소득 · 실직 가정 생계지원-1억원 △저소득 · 실직 가정 청소년 의지나눔 사업-3000만원 △청년 일자리 나누기 종무원 인턴제-1억원 △실직자 무료 템플스테이 등이다.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 재난구호 긴급자금, 자비나눔 목적기금 적립 등에 사용된다.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오른쪽)이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지관 스님에게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미 지난 5월 7200만원을 '사후승인' 방식으로 집행한 바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6월 17일 아름다운동행 임시이사회를 열고, 자비나눔 기금 집행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10일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에 자비나눔 모금을 통해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새 총무원장은 지혜와 리더십 갖춰야"

불교지도자넷 '총무원장 연중캠페인' 서 주장

10월 22일 조계종 선거에서 선출될 제33대 총무원장은 현안해결 지혜와 리더십을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불교지도자넷(www.choice33.net, 운영자 법응)은 조계종 교구본사 등에 6월 10일 배포한 '총무원장 연중캠페인' 제3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캠페인 자료집에서 불교지도자넷은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불교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의 분수령"이라며 "불교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차기 총무원장은 건강과 청정성을 구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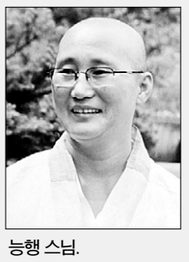
이어 불교지도자넷은 차기 총무원장 호보들에게 △재정투명화의 천명과 실천 △종단 정체성 확립과 정화이념 구현 △문중과 파벌의 대화합 천명 △종단혁신위원회의 현실적 운영과 실천 △탕평인사의 천명 등 5개항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법응 스님은 "종단은 물론 교계 각 단체의 강도 높은 감시와 청문으로 총무원장 선거의 공정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금년 선거를 청정공명하게 이끈다면 이것이 現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최고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17)252-2459

조동섭 기자

능행 스님 · 임영애 · 안준영 교수

24회 불이상 수상자 선정… 시상식 7월 6일



능행 스님.



임영애 교수.



안준영 교수.

여성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제24회 불이상 수상자에 능행 스님(실천분야)과 임영애 경주대 교수와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겸임교수(연구분야)를 선정해 6월 8일 발표했다.

능행 스님은 불교사회복지분야에 선구적인 인물이다. 2000년 불교계 최초 독립형 호스피스센터 '정토마을'을 개원해 운영 중인 스님은 불교 호스피스 활동의 전기를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현재 능행 스님은 서민들을 위한 승가복지병원인 '자제병원'을 건립 중이다.

불교미술사를 전공한 소장불교학자인 임영애 경주대 교수는 저서 18권과 5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인도 서역 중국 한국의 불상을 망라한 중견학자다. 특히 실크로드와 간다라 지역에 관한 임 교수의 연구는 학계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안준영 캐나다 토론토대 겸임교수는 서양에서 한국선학의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해 온 선학전공학자다. 선병(禪病)에 관한 박사학위논문과 선학관련 여러 저술들을 통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견인해왔다. 현재 조계종이 추진 중인 한국불교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에 전문번역위원으로 참여해 <선문염송> 등 한국 선서를 영역하고 있다.

시상식은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다.

한편, 불이상은 재가불교, 여성불교의 위상 등을 세우고자 1974년 설립된 불이회가 1985년부터 제정 · 시행해 왔다. 조동섭 기자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6. 27(토) 오후 1시부터 ~ 6. 28(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1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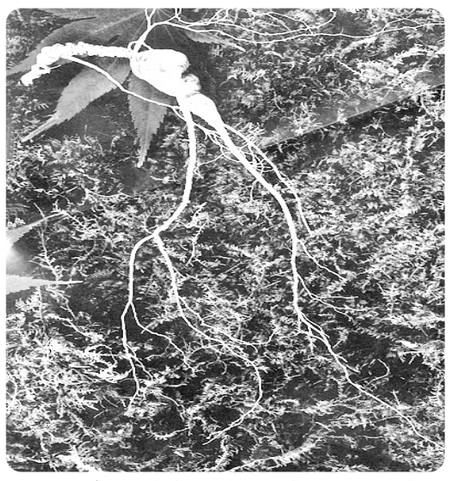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열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 마 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 (분석 51160-150)

"불자들의 통일보살행 이끌 것"

민추본 창립 9주년… 조선불교도연맹 축전

북핵 및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불교계 남북 교류를 담당해온 민족공동체추진사업본부가 창립 9주년을 맞았다.


6월 7일 봉은사에서 9돌을 맞은 민추본 관계자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사업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6월 7일 봉은사 보우당에서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명진 스님을 비롯해, 집행위원장 법경 스님, 지도위원 진화 스님, 6·15선언 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 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명진 스님은 기념사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극도의 긴장과 갈등이 조성돼 있다. 정부의 교류 단절에도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왕래는 지속돼야 한다"며 "민추본은 불자들이 통일 보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은 이날 축전을 보내 "민추본은 남북 연대사업을 적극 벌여 불교도들의 신뢰와 단합을 두터이했다. 향후 연대사업이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하리라 확신한다"고 기원했다.

김상근 대표 등 각계 축사에 이어 정세현 前통일부 장관이 2부 창립기념 강연회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과 불교계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에는 분별이 없습니다"

오체투지 순례단 임진각서 회향… 북측 초청에도 통일부 불허

이 땅의 사람들과 평화, 그리고 뭇 생명을 위해 가장 느리고 낮은 자세로 기어온 오체투지순례단이 6월 6일 124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 등 순례단이 장정을 마친 곳은 실향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임진각 망배단이었다.

당초 순례단은 6월 15일 북한 묘향산 상악단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천제 봉행으로 순례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북한측의 초청 및 허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방북허가를 내지 않아 이날 회향할 수밖에 없었다.

망배단에 도착한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는 마지막 일배를 올린 뒤 눈물 속에 서로를 안았다. 순례단의 회향마당에는 용산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해 서로를 위로했다.


6월 6일 124일간의 순례를 마치고 임진각 망배단에 도착한 수경 스님과 문규현(오른쪽)·전종훈 신부가 포옹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회향행사는 뭇생명을 위한 합동위령재와 108배 등으로 진행됐다. 화계사 장경 스님 법고를 시작으로 진혼무와 영령을 위한 묵념, 천주교와 불교의 추도 및 천도재, 108배 순으로 봉행됐다.

수경 스님은 직접 집전한 천도재에서 "이념에는 좌우와 남북이 있을지언정, 생명에는 구별이 없다"며 "한반도 갈등의 골을 치유하는 화해 평화의 길, 살아 숨쉬는 길을 열고자 한다"고 방북 순례 의사를 비쳤다.

순례단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을 통해 "권력 존재 자체가 분열의 원인이라면 스스로 진퇴를 엄중히 판단하는 것이 역사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며 "순례단 또한 고생의 길을 계속 가겠다. 우리들의 기도는 묘향산 상악단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례단은 2008년 9월 4일~10월 26일 지리산 하악단에서 계룡산 중악단까지 53일간 1차 순례를 봉행한데 이어 3월 28일부터 다시 순례를 재개해 71일간 순례를 이어왔다. 순례거리는 하루 약 4km 씩 총 400km에 달하며, 1만여 시민과 불자들이 순례에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종교화합 디딤돌 '오체투지'

걸림돌 MB 종교차별… 종교인 네트워크 조사

2008년 종교화합의 디딤돌은 오체투지 순례로, 걸림돌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종교차별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해 개신교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와 가톨릭 '우리신학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시민 114명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디딤돌 1위에는 오체투지 순례단, 2위는 종교교류단체 활동가 3위는 종교인 촛불집회와 사회문제 공동 대응이 꼽혔다.

반면 걸림돌 1위에는 MB 및 공직자 종교차별 2위는 배타적 종교인 3위는 맹목적인 신도가 뽑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시민사회 워크숍 열린다

7월 9~11일, 불교사회운동 등 논의

조계종 사회부(부장 세영)는 7월 9~11일 2박3일간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불교시민사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2004년 금강산 연수를 시작으로 올 들어 4회째를 맞는 워크숍에는 조계종 사회부를 중심으로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경불련 등 불교NGO 상근 활동가 60여 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은 '한국사회 변화와 불교사회운동 방향 모색'의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종교자유와 종교평화' '4대강 정비사업과 우리의 과제' 등 강의가 진행된다.

강연과 더불어 참가자들은 마곡사 순례를 비롯해 물놀이 등 문화마당, 서산 마애삼존불·보원사지 탐방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참가신청 마감은 6월 25일. (02)2011-1822

노덕현 기자

"서불대 정상화 시켜라"

재가연대·우리는선우 등 성명서 발표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건)와 우리는선우(대표 성태용) 등 불교단체들이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의 정상화를 위해 범불교계 수습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사단법인 보리, 우리는선우,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6월 10일 '현 이사회는 폭력과 탈법행위 중단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불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교과부의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서불대의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계종 호법부는 지욱 스님 등 서불대 이사로 참여중인 조계종 스님들에 대한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단체들은 △교과부 행정처분 즉각 수용 △학교문제로 불교계 명예를 훼손시킨 이사회의 사과 △범불교계 수습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도지정문화재 불상 도난… 행방 묘연

거제도 세진암 삼존불 2점

거제도 세진암에 안치된 경남도 지정 문화재인 불상이 도난당해 행방이 묘연하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6월 8일 "지난 3일 오전 1시께 거제시 거제면의 전통사찰인 세진암에 괴한이 침입, 경남도문화재자료 제325호인 목조여래삼존불좌상 3점 가운데 양옆에 있던 불상 2점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CCTV분석 등 끈질긴 추적 끝에 10일 61세 정모씨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상의 행방은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상을 넘겼다는 제3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안평대군 '지장경 금니사경' 반환요청

혜문 스님 하버드大 방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이 5월 28일 미국 하버드대 아서 서클러 박물관(관장 로저 마우리)를 방문해 안평대군이 쓴 '지장경 금니사경' 실물을 확인하고 반환요청서를 전달했다.


하버드대 로저 마우리 박물관장에게 안평대군이 쓴 '지장경 금니사경' 반환요청서를 전달하는 혜문 스님.

혜문 스님은 로저 마우리 교수에게 해외유출문화재의 반환을 촉구하는 남북 불교계가 합의·작성한 '남북불교계의 공동요청서'를 전달하며, '지장경 금니사경' 등 헨더스 컬렉션 일체의 반환을 요청했다.

'지장경 금니사경'은 세로 40.5cm 가로 21.6 cm(표구포함)의 푸른색 감지에 금니로 <지장경>이 7행 20줄의 규격으로 적혀있다. 표구의 비단에는 '안평대군 진적'이란 감정이 쓰여 있다. 조선 전기 최고 명필 안평대군의 글씨는 일본 천리대학 소장 '몽유도원도' 발문과 분실된 '소원화개첩(국보 제288호)' 등이 현존한다.

하버드 대학 측은 "안평대군 금니사경은 그레고리 헨더슨이 한국에서 외교관 생활 중에 수집한 작품으로 2007년 12월 헨더슨의 미망인 사망 후 헨더슨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진품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헨더스 컬렉션 반환 요청에 대해 로저 마우리 교수는 "한국 인에게 이 작품이 소개돼야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한국에서 전시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해, 구체적인 반환논의에 앞서 임대형식의 한국 전시는 단시일내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동섭 기자**

불교·교육선지식 사상 조명

용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법회 봉행

스님이자 불교 지도자, 교육행정가, 문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용봉 대종사(금당 이재복) 열반 18주기 추모법회가 6월 5일 대전 연정국악회관에서 봉행됐다.


6월 5일 대전 연정국악회관에서 열린 용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추모법회의 테이프 컷팅 장면.

법회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승정원장 남파 스님, 총무원장 운산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영우 스님 등 50여 스님과 설동호 한밭대 총장(보문동창회장), 김영관 대전부시장, 송하섭 前 단국대부총장(사업회장) 등 용봉 대종사의 제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는 1부 추모문집(전 8권) 봉정식, 2부 추모학술회의(영우 스님, 김방룡 교수, 오질로 교수가 용봉 대종사의 불교, 문학, 교육사상 조명), 3부 추모 서화전으로 진행됐다. **김성우 기자**



"올 여름에도 뭔가 보여줘야죠"

제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 열려… 500여 지도자 화합 · 교류

여름방학이 성큼 다가왔다. 전국 불교어린지도자들이 각종 학원 수업과 과외 수업으로 지치고 찌들어 가는 아이들을 위한 여름불교학교 준비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과 동련(이사장 지현)은 6월 6~7일 보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제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회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전국 각지 500여 지도자들이 함께 했다.

율동부터 시작된 연수는 신동석 교육실장(1%스피치커뮤티케이션, 닥터 글락에듀테인먼트 대표) 의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나누는 기쁨'을 주제로 강의한 혜총 스님은 "욕심에 차 욕망만을 추구하는 거지의 삶을 버리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참불자가 되도록 어린이들을 지도해 달라"며 나눔의 실천행인 탁발 공양,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 (應無所住而生其心),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뜻을 설명했다.

강의에 이어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련 이사장 지현 스님, 대한불교교사대학 학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동련동화구연회장 덕진 스님, 동련 상임이사 심산 스님, 포교국장 부명 스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입재식을 봉행했다.

지현 스님은 환영사에서 "불제자로서 일거일동에 부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행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라"며 "지도자 여러분이 있기에 세상이 있고, 어린이 불교가 존재하고,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연수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보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어린이지도자연수회의 발전을 당부했다.

발원문 낭독, 제25회 연꽃문화제 시상식, 동련 산하 각 단체 임원 위촉식, 동련동화구연회가 발간한 <부처님과 만나요!>와 플래시 에니메이션 10편이 담긴 동영상 CD 봉정식도 함께 진행됐다.

동련동화구연회 회장 덕진 스님(울산 정토사 주지)은 <부처님과 만나요!> 발간에 대해 "상대방의 수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법홍포가 절실했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처님 법을 알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이 찬불동요에 맞춰 율동을 익히고 있다.

입재식에 이어 불교학교 노하우 전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력에 따라 분반 작업으로 진행된 수업에서 전체일정표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련 사업부 정일훈 팀장은 "불교학교는 부처님의 삶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한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며 "불교학교 교사나 자원봉사자들은 불교학교를 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불교학교 10일 만에 준비하기, 기획, 홍보, 준비 단계 노하우를 전달했다.

지도자들은 모닥불 놀이와 촛불 발원, 주의집중게임을 비롯한 불교학교 프로그램, 찬불동요 '풍경소리 28집'에 맞춰 율동을 하는 등 다가올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앞당겨 마무리 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포교 지향"

태고종 열린선원, 6월 6일 개원 4주년 기념법회 봉행

'시장통 포교'를 표방하며 서울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에 자리잡은 태고종 열린선원(선원장 법현)이 6월 6일 '개원 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월운 스님, 전등사 주지 동명 스님, 설법연구원장 동출 스님, 동국대교수 겸 한국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 덕양선원장 법상 스님 등 스님 30여 명과 신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부 기념 강연에서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삼특상과 삼법인(三法印)의 차이'라는 논문을 자료로 존재의 세 가지 특질인 '삼법인'에 대해 설파했다.


개원 4돌 기념법회에서 인사말하는 법현 스님.

제2부 기념법회는 삼귀의, 찬불가, 경전독송('쌍윳따니까야' 3법인 관련 구절), 청법가, 격려법어(월운 스님), 인사말씀, 축하말씀(동명 스님), 축하노래(불자가수 앨리스 블루), 발원문, 사홍서원 순서로 이어졌다.

선원장 법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선원이 성장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포교와 지금까지의 방침인 부처님 가르침대로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지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02)386-4755

김성우 기자

"부처님 리더십 통해 정치 참여 방안 모색"

불교인재원, 6월 23~24일 '불교정치 리더십' 강의 개최

불교인재원(이사장 허경만)은 자유, 평등, 우애의 정신을 설파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에 적용할 불자 정치인 발굴에 나섰다.

6월 23~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불교정치리더십' 강의는 불교의 이상정치를 펼쳐나갈 인재를 찾고, 정치참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23일 △강창일 국회의원 (민주당)이 불교와 정치리더십을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역발전과 지자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한다. 24일 △김응철 불교인재원장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정치리더십 △선거와 정치리더십 등을 강의한다.

불교인재원 관계자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자유 · 평등 · 우애의 정신을 설파하며 불평등과 국자간의 갈등 등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이고 현명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인과 유권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각과 현명한 판단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제따와나선원 27일 개원

2007년 결성된 수행공동체서 출발

초기불교 수행을 기본으로 모범적인 수행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는 제따와나선원(선원장 일묵)이 6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방배동에서 개원법회를 연다.

제따나와선원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을 현대에 맞게 제시하고자 2007년 결성된 수행공동체다. 경전공부, 집중수련회 등으로 현대인에 맞는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가족법회를 비롯한 사회명사 · 심리학자 초청강의로 진행되는 특별법회, 불교 · 영어 · 수행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어법회도 있다.


2008년 11월 파욱 사야도 초청법회 모습.

한편, 6월 30일~9월 23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수요일 오후 8~10시 <아비담마>특별 법회를 연다. 이상언 기자

바로잡습니다 735호에 보도된 신묘장구대다라니 전문 수행도량 일산 덕양선원 연락처를 (031)907-7172로 정정합니다.

그대의 큰 원력 우리가 이으리…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

염불운동, 대중포교로 평생을 살았던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초대 이사장 덕산 김재일 법사 1주기 추모법회가 6월 7일 동산법당 3층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동산불교대학 안동일 이사장, 前 민주당 한화갑 대표, 이문옥 前 감사관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故 김재일 법사의 염불운동과 일반 대중포교사업을 회고하며, 지속적인 대중포교 발전을 다짐했다.

법타 스님은 추도사에서 "큰 원력을 꿈꾸던 동지였던 김재일 법사는 지난날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랑하는 친구였고, 깨달음을 구하던 도반이었다"며 "김 법사를 이은 안동일 이사장이 또 하나의 원력보살이 돼 더욱 더 동산을 발전시켜 주고 있어서 한편으로 든든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에 앞서 故 김 법사와 20여년 동산가족으로 함께 해 온 안동일 이사장은 "김재일 초대 이사장이 제창한 동산반야가족의 5개 강령에 '김재일 법사의 설립이념을 길이 계승한다'는 강령을 더해 실천하고 있다"며 일반대중 포교에 원력과 서원을 세웠다.

추모법회는 인각 스님의 집전으로 재의식이 진행됐으며 故 김재일 법사의 육성법문 청취, 영단에 참가인원 전원이 헌화하며 고인의 왕생극락을 기원했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깔야나미따 명상선원 위빠사나 치유프로그램=서울 깔야나미따 명상선원이 무력감이나 우울증, 대인기피증, 심한 분노나 증오, 좌절 등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위빠사나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신치유 전문가인 아눌라 스님의 지도로 7월 11~12일 국제요가협회에서 진행한다. 참가비는 전액무료로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한편 7월 17일~8월 14일 5차에 걸쳐 연기속, 까르마를 푸는 사띠수행도 진행된다. (010)3904-3565

●윤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6월 25일~7월 16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불교회관 6층 만불보전에서 '윤달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참가비는 3만원으로 5계를 수지한 불자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53)629-9500

●상도선원 '가려뽑은 앙굿따라니까야' 독송=서울 상도선원은 6월 22일부터 격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선원 수미재에서 <가려 뽑은 앙굿따라니까야>(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발행) 독송을 한다. 상도선원 니까야 독송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생한 원음을 담은 초기불교경전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모임이다. (02)815-3391

●연방죽선원 수행과 담마토크=대전 연방죽선원은 6월 21일, 7월 19일 오후 3시 수행과 담마토크를 실시한다.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담마로카에서 여름집중수행을 진행한다. 여름집중수행은 7명 선착순 접수받으며 바다 스님이 지도한다. (010)3214-1255

종도모집 안 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密)로서 점수(漸修)하고 선(禪)으로 돈수(頓修)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식품사업부 지사 및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 경험자

출판사업부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Jawoon FOODS www.jawoonfoods.co.kr
(주)자운 식품사업부
www.jawoonfood.co.kr
053)311-2675.2676

대한불교선밀종 총무원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 FAX 053)311-2634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2-3층)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내 활동은 100점 만점에 60점"

초대 군종교구장 일면 스님 7월 25일 퇴임… "군종교구 체계 확립이 가장 큰 성과"

"고무신이 닳을 때까지 해보자는 각오로 뛰었습니다. 아쉽지만 훌륭한 후임 교구장이 오셔서 군종교구를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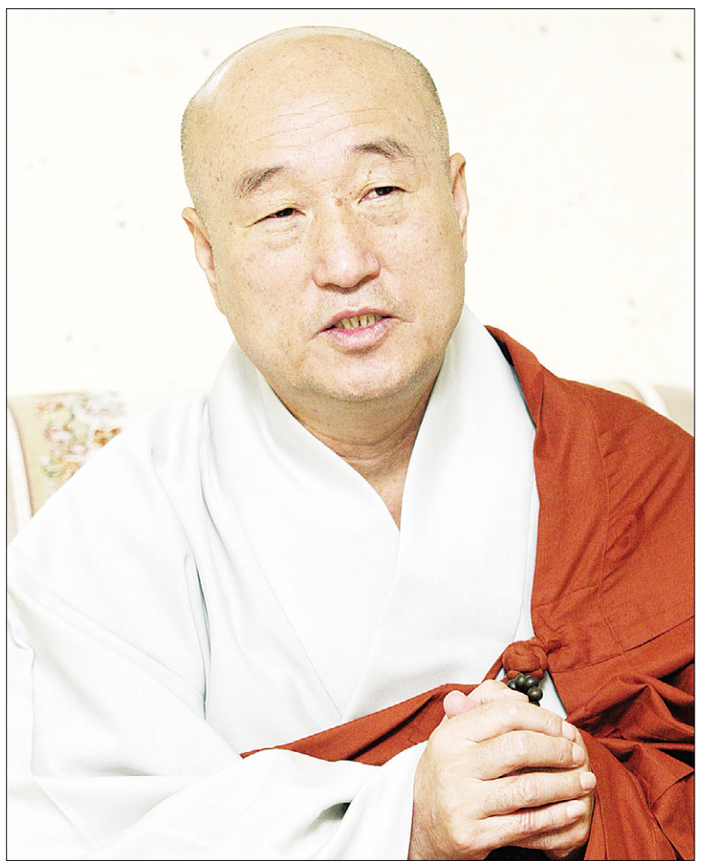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4년간 군종교구를 진두지휘해 온 일면 스님(사진)이 7월 25일 퇴임을 앞두고 6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국방부 호국원광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동안 스님은 군포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관심을 모았던 총무원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는 그러지만 종단에 훌륭한 분들이 많다"며 말을 아꼈고, 재임의사에 대해서는 "처음 군종교구를 맡을 당시 재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모든 열정을 쏟은 만큼 더 이상 미련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거취에 대해 "우선 불암사로 돌아갈 계획"이라며 "99%가 준비돼도 1%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한다. 인연 닿는 대로 어떤 자리에서든 열심히 할 생각"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지난 활동을 스스로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과락을 겨우 면한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라며 "취임하며 미련 없이 일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크게 내세울 건 없다"고 말했다.

스님은 끝으로 "종단의 40년 숙원인 군포교 진출로 교구출범 이후 체계가 확립되고 종단 정체성이 강화된 것이 임기 내 가장 큰 성과"라며 "군종교구가 짧은 시간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의 적극적 지원과 현장 군법사의 원력, 그리고 우리 장병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불자님들 덕분"이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일선 군법사와의 관계 정립과 군포교 기반확대에 앞장

2005년 7월 25일 초대 군종교구장으로 부임한 이후 당면한 과제는 40년간 교구 없이 유지됐던 일선 군법사와의 관계 정립과 군포교 기반확대였다. 군종교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 · 차장제도를 도입했으며, 종무행정 체계화를 꾀했다. 군승 체제 개편에도 들어갔다. 예비군승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군승 수급에 군종교구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지속적인 재교육과 더불어 우수 군승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혜택을 부여하고, '군승의날' 개최 및 수련회 등을 통해 단합을 유도했다. 군법사 체계 확립으로 30여 년간 미달됐던 군승 수급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군법사 출신이 아니어서 그런지 취임 초기 군법사들을 이끄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힌 일면 스님은 "선배 군법사들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련회 등 행사에 전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선배 군법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군법사 일동은 5월 군승하계수련회에서 일면 스님 재임 요청을 결의하는 등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09 목표 10만 명 수계 달성 가능해

스님은 "교구장으로 군포교 활동에 임하면서 '단 1명의 불자장병이 있어도 간다'는 각오로 노력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님은 한 달 평균 4회 이상씩 총 139회에 달하는 수계법회를 직접 개최했다. '자비의선물' 등 봉축행사와 연말 장병위문 활동을 정례화했고, 108산사순례와 함께 초코파이 9만3294박스를 전달하는 등 장병 물품지원에 나섰다. 이에 장병수계자는 2006년 3만4001명에서 2007년 4만619명, 2008년 8만771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군종교구는 "2009년 목표치인 10만 명 수계 달성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14개소 신축 및 46개소 중창불사 등 군사찰 현대화 뿐만 아니라, 준부사관 불자회 및 사관학교 졸업법회 지원, 초급 장교 불자확보에 주력했다. 장군 115명 및 영관 불자 449명의 데이터화를 통한 관리, 장성 신도회인 국군불교총신도회와의 연계 강화 등 이른바 '윗물 포교'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스님은 만인동참 후원자 3163명을 비롯해 안국선원과 대한불교진흥원, 한마음선원 등 각계 정기 포교후원금 15억1300여 만원과 선정사 영진 스님의 10억 지정기탁 등 총 22억6700여 만원의 후원금을 이끌었다. 73억1200여 만원에 달하는 1기 군종교구 총수입은 일면 스님의 역량 발휘이기도 하지만 2기 군종교구에게 또 다른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독신 의무 해야할 일이지만 심도 깊은 논의 아쉬워

개정된 종헌 9조 2항(군승 독신 의무화)으로 인해 교계에서는 기혼 군법사 이탈과 장기복무 기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위 문제가 현실화 될 경우 현재도 있는 고위지휘관 열세현상(기독교 대비 영관급 9:1)이 심화돼 각 부대 종교방침 등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3년간 미달을 면한 군승수급의 추이도 큰 관심사다.

일면 스님은 이에 대해 "조계종 정체성을 위해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군승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 원력을 지닌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30년 전 어른스님들께서 군승 혼인을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냐"며 "군포교 관련 단체들과 세미나 등 심도 깊은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에 질적 · 양적 해법을 찾기 위해 초기 교구장으로 모색한 해답이 비구니 교단과 타종단의 군포교 진출이었다. 스님은 "비구니 군승 파송 문제는 국방부도 큰 관심을 보였고, 전국비구니회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화됐으나,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비구니회 입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타종단 군승 파송문제 역시 교구장 뜻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종단에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결정된 바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룡대 교육관 법당 등 불사 퇴임 전 착공

국군은 국방개혁 2020계획을 통해 현재 각 사단 훈련소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을 2013년부터 논산 육군훈련소로 집중할 계획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는 2000명 수용 규모로 개신교, 가톨릭의 5000명 규모에 비해 규모에서도, 시설에서도 열악하다. 개신교에서 군장병 연간 25만 세례로 전 국민의 75%를 복음화한다는 '비전2020'을 선포해 대응책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일면 스님은 "후임 교구장께서 잘 이어가 주시리라 생각한다. 초급장교 포교에 핵심인 계룡대 교육관 법당은 현재 토지 매입 및 설계가 진행돼 임기를 마치기 전 착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신바람 군포교되도록 지원할 터"

2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 자광 스님



"현역 군법사들, 신바람 나는 포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차기 후보로 군법사 출신 자광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6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2대 군종특별교구장 후보로 자광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투표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을 제외한 19명의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추천 방식 논의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은 기권을 표명했으며, 투표결과 자광 스님은 유효 18표 중 과반수를 넘어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

자광 스님(반야선원 주지)은 세랍 31세 때부터 25년이 넘게 군포교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군포교 전문가로 군종감 및 군종실장 등 군포교 주요요직을 역임한 바 있다. 1995년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퇴임한 이후에는 일선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등을 다니며 군포교뿐만 아니라 교정 및 경승 활동도 활발히 펼쳤다.

자광 스님은 이날 인사위 선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면 스님께서 군법사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해주셨다. 스님의 발자취를 잘 이어 더욱 빛내도록 하겠다"고 먼저 예를 갖췄다.

이어 스님은 "현역 군법사들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 군법사들이 신바람 나는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계 일각에서는 군법사 출신과 일반 승려 출신 등 교구장 후보선출을 두고 갖은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각기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원만하게 교구를 잘 이끌어 가겠다"며 "교구장은 벼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로 있는 것"이라고 하심할 것을 다짐했다.

교구장 임명 선례에서 상임인사위원회를 거친 추천후보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임명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광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7월 25일 초대교구장 일면 스님 임기가 끝나는 대로 2기 군종교구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약력

1942년 생, 1957년 화엄사 출가.
1959년 경산 스님 은사로 사미계 수지.
1963년 해인사 강원 사집과 수료, 자운 율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68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종비생 1기 졸업.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
1977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계율 전공 석사.
1980년 군승단장.
1990년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1992년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1993년 국방부 군종실장 취임. 군법사 정원 100여 명으로 증원.
1995년 대령 예편, 현재까지 경기도 용인 반야선원 주석, 용인불교사암연합회 회장, 경기지방경찰청 지도법사, 안양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 중.

천년동안 중생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계신 은진미륵 (보물 제 218호)

미륵성지 기도영험도량

은진미륵 관촉사로 초대합니다

일천년 동안 한 곳에 서서, 수많은 중생들을 안아준 은진미륵!

은진미륵은 서기968년 조성을 시작하여 장장 38년간 불사를 진행. 서기1006년(목종 9년) 완성하였는데 찬란한 서기가 삼칠일 동안 천지에 가득하여 찾아오는 사람으로 저잣거리를 이룰 만큼 북적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은진미륵의 백호에서 나오는 황금빛이 너무 밝아 송나라의 지안대사가 빛을 따라 찾아와 예배하고 "마치 촛불을 보는 것 같이 빛나는 미륵불이구나!"하고 감탄했다하여 사찰 이름이 관촉사(灌燭寺)로 명명됐다고〈관촉사사적비명〉은 적고 있습니다.

기축년 윤달 생전 예수재 및 성지순례 안내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밤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 예수재를 무려 5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관촉사에서는 생전 예수재 및 가사 불사를 봉행코저 하오니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 예수재와 가사불사를 통해 전생, 금생 인연 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 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가피 입으시길 바랍니다.

■ 생전 예수재
· 기도입재 : 2009년 6월 5일 (음, 5월 13일) / 천도재 봉행 : 매주 목요일 대웅보전 오전 10시 30분
· 기도회향 : 2009년 7월 23일 (음, 6월 2일) / 동참금 : 예수재 1인 5만원 / 가사불사 성의껏 동참

■ 성지순례
· 일 정 : 2009년 6월 30일 (윤 5월 8일) / · 순례사찰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
· 출발장소 : 관촉사 주차장 오전 7시 / · 동 참 금 : 1인 3만원 (점심 제공)
· 입금계좌 : 우체국 310086-01-000089 / 국민은행 453201-04-164635 (예금주 : 관촉사)

■ 1029일 영가 천도 12번째 회향
· 기도일정 : 2009년 6월 7일 (음, 5월 15일)

■ 2009년 수능 100일 기도 입재
· 2009년 8월 4일 (음, 6월 14일)

* 관촉사 은진미륵 부처님께 좋은 성적 성취 발원 수능 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대중스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축원 및 기도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반야산 관촉사 충남 논산시 관촉동 254번지 ☎ 041)736-5700~2 / 팩스 041)733-4169

해 외 WORLD

몰디브에서 사리탑 발견 '화제'

몰디브인 12C중엽 이슬람교 영향 받기 전까지 불교 신봉

스리랑카 남서쪽에 위치한 섬나라 몰디브에서 원주민이 우물을 파던 중 불교유적이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몰디브 지역신문인 미니반 뉴스(Minivan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산호초로 만들어진 사리탑은 몰디브 섬 북부에 위치한 라 아톨(Raa atoll)에 사는 원주민 유스프 아담(Yoosuf Adam)의 집에서 발견 됐다.

섬 책임자인 모하메드 유스프(Mohamed Yoosuf)는 "사리탑은 이 지역이 예불 등을 올리는 종교 장소였음을 보여준다"며 "탑은 마치 서양장기 체스에서 쓰이는 졸(卒)과 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슬람교가 몰디브로 전해졌을 때 파괴된 불교 유적의 일부분으로 보인다"며 "땅을 파다가 발견 된 것이어서 탑이 약간 손상됐다. 이런 탑이 땅 속에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몰디브제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세기경으로, 스리랑카와 인도로부터 싱할리인이 건너와서 살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불교를 신봉했던 그들은 12세기 중엽부터 아랍인과의 교역 증대에 따라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이윽고 몰디브 전체에 이슬람교가 주요종교로 자리 잡게 됐다.

불교유적이 발견된 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모하메드는 "1999년부터 고대 유적들이 이 섬 일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3년에 학교를 신축할 때 복잡하고 정교하게 새겨진 산호초 벽돌이 발견됐고, 2006년에는 작은 부처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몰디브 언어 · 역사 연구센터장인 아메드 토랄(Ahmed Tholal)은 "센터에서 발견된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섬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아직 낙관을 하기엔 이르나 아마도 불교 유적지일 것이다. 사진으로 판단했을 때 이 유물이 이슬람이 전래되기 전의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 유적은 몰디브 문화유산 중 매우 잘 보존돼있어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몰디브 관광부 장관인 아메드 알리는 "이러한 유적의 발견은 우리가 고대 유적을 갖고 있고 몰디브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보다 많은 세계인들에게 고대 몰디브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리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나은 기자

달라이 라마 두 명 될까?

달라이 라마 · 중국정부 후계자 선출 기싸움

달라이 라마와 중국 정부가 각각 후계자를 지명해 내세워 수천 년 티베트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달라이 라마가 나올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즈(NYT)는 6월 7일 "인도로 망명한 14대 달라이 라마인 텐진 갸초(74) 측과 중국 정부가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을 둘러싼 기싸움이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600만 티베트인들과 티베트의 실질적 독립을 부정해온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1959년 인도로 망명한 달라이 라마의 활동은 아직도 왕성하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일흔을 넘었고 건강도 이전만큼 좋지 않아 후계자 선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즈는 "차기 달라이 라마 선출은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를 것이며 현 달라이 라마 14세의 생존 시에 후계자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는 듯 달라이 라마는 차기 달라이 라마로 여성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달라이 라마가 전통을 깬 후계자 방식을 제안한 것은 자신의 후계자가 중국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1995년 갸초가 지명한 판첸 라마(티베트 불교의 2인자)를 부정하고 올해 19세 기알첸 노르부를 판첸 라마 11세로 공표한 뒤 2월 장쑤(江蘇)성에서 열린 제2회 세계 불교포럼 개막식에 내세우는 등 친중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나은 기자

미얀마 다녹탑 무너져

군정 붕괴 신호탄?

미얀마 군사정부 지도자의 아내가 축복을 빈 탑이 무너지면서 군정이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의 6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양곤 외곽에 있는 2300년의 역사를 함께 한 다녹(Danok)탑이 미얀마 군사정권 최고 지도자 탄쉐 국방장관의 부인이 축복의식을 치른 지 불과 몇 주 뒤인 6월 6일 산산조각 났다.

IHT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미신적인 국가인 미얀마에서 탑의 붕괴는 부실공사의 결과가 아닌 흉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다녹탑 붕괴는 군부가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흉조설이 더욱 지지받고 있다. 이나은 기자

"안녕하세요~ 실버스타예요"

서울노인복지센터 어르신 전용 라디오 방송국 '실버스타' 개국

"자~ 방송들어갑니다. 준비… 큐!"

"안녕하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라디오 실버스타 박재영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한국 치유의 숲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DJ를 맡은 박재영(65 · 숲 해설가) 어르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대본을 읽어 내려간다. 다소 긴장한 듯 한 어르신의 모습이 마치 입학식 첫 날 초등학생 같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 이하 센터)는 6월 9일 센터 내에 실버라디오 방송국을 개국했다. 어르신 전용 라디오방송국 '라디오 실버스타'는 서울시와 복지센터가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실버문화벨트 사업 중 하나다.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실버음악방송국인 라디오 실버스타는 노인들의 여가 활동 중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비율이 94.6%(한국보건사회연구원)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착안해 기획됐다.

라디오 실버스타는 방송계획부터 대본 · 제작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10여 명이 교대로 참여해 매주 화 · 목요일 두 시간(11:30~13:30) 방송을 진행한다.


라디오 실버스타 1기 출신 DJ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한 대본을 보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개국하기까지 DJ 어르신들은 작년 9~12월 3개월간 드라마 소재발굴을 비롯해 대본작성, 연기연습, 녹음, 프로그램 아이디어, 기획 등을 교육받았다.

DJ를 맡은 박재영 어르신은 "오늘 처음 진행한 거라 더 잘하고 싶었으나 아쉬움이 좀 남는다"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숲, 생태계 식물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DJ를 자원했다"고 말했다. 6월 9일 개국날 첫 방송의 DJ를 맡은 권호영(69) 어르신은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 DJ까지 할 수 있었다"며 "라디오방송 진행으로 삶에 대한 의욕과 긍지, 용기를 심을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기뻐했다.

스튜디오는 밖에서도 어르신들이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놓아 스튜디오 앞을 지나는 어르신들이 안을 들여다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하기도 했다.

방송을 들은 김관(65 · 개봉동) 어르신은 "방송하는 모습을 보니 학창시절 연극반에서 활동하던 게 생각난다"며 "2기 교육생 모집 때 꼭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춘희(87 · 홍제동) 어르신도 "내용이 참 재밌고 괜찮다"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흘러간 노래나 흥겨운 노래를 많이 틀어줬으면 좋겠다"고 청취소감을 밝혔다.

제3회 방송을 앞두고 있는 라디오 실버스타는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디오 실버스타의 교육과정과 라디오 진행 전반을 맡고 있는 임지선 대표(문화예술교육연구소 에이스벤추라)는 "평상시 어르신들이 라디오를 자주 듣기 때문에 라디오를 통해 쉽게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확립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며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라디오 실버스타는 7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 방송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기 교육생을 모집해 정규방송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방송을 거쳐 서울 전역 실버 방송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장애 잊은 숲 캠프

승가원 장애아동 참가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은 6월 8~9일 시설 아동들을 위해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청소년수련원)에서 숲 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야외 행사는 송석문화재단(설립자 故 박문규 선생)과 보건복지가족부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시설 아동 20명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숲에 사는 여러 동 · 식물 중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 숲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숲 속의 주인공' △원예치료사와 허브 화분을 만드는 '숲 느끼기' △근육운동 · 스트레칭을 통한 체험놀이 '숲 속 올림픽'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숲과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나은 기자

"어르신 건강하세요!"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 2000여 명 뛰어

급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장애 · 노인시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만성질환 노인들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2000여 명이 모여 힘차게 뛰었다.

연꽃마을(대표 각현)은 '제2회 전국 효사랑 마라톤 대회'를 6월 7일 안성 파라밀 요양원에서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치매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모시는 가족, 친지, 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일반인 등이 참가했다.

오전 9시에 파라밀 요양원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를 순환하는 21.0975㎞, 10㎞, 5㎞ 코스를 달렸다.



2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제2회 효사랑 마라톤대회'.

특히 이날 특별상을 받은 차준성(64 · 서울 송파구)씨는 월남전에 참전해 한 쪽 다리를 잃고 목발에 의지한 채 5㎞를 완주해 이목을 끌었다. 이나은 기자

선우어린이집 개원

대구 동화사 수탁 · 운영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가 위탁운영하는 공립 선우어린이집이 6월 10일 개원식을 가졌다.

동구청 공립보육시설인 선우어린이집은 대구시 동구 율하동 휴먼시아 5단지에 155㎡ 규모, 26명 원생 정원으로 설립돼 3월부터 동화사가 수탁 · 운영하고 있다.

동화사 부주지 현관 스님은 "아이들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자랄 수 있도록 사랑을 다해 키워달라"며 "동화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재만 동구청장과 장상수 동구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 지사장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참나(여래장)의 즉각적인 발현법 완성!

수 천 년 동안 어렵풋한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전설이 20년간의 시행착오와 숱한 임상을 통해 마침내 누구나 즉각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전신에 경락이 일거에 타통된다.

각종 암을 비롯한 당뇨, 고 · 저혈압, 아토피, 목 · 허리디스크, 척추측만, 자가면역질환 등등 거의 모든 난치성질환들이 단시일에 근치된다. 담석마저도 녹아서 소멸된다.

참나(여래장)가 즉각 발현되면 마음과 영혼의 장애가 치유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등등의 심적 장애가 말끔히 해소된다. 특히 빙의, 귀접, 지박령 등등의 현상은 번잡한 절차 없이 원천적으로 해결된다.

참나(여래장)가 발현되면 최강의 양택발복능력자가 된다.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체험으로 증명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천도법 완성!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 입니다.)

무료체험신청하세요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자살영가천도재(무료)

우리 곁을 스스로 떠난 노무현대통령님. 연예인들 및 기업인 그 외 많은 분들, OECD중 일등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은 누구의 책임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업이 많아 다음 생에도 과보는 계속 이어 집니다.
불보살님의 가피와 여법한 스님의 법력에 의한 천도와 유족님들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자살한 영가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고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자살위기자라도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창건한 사찰 '묵언마을'에서는 한 많고 불쌍한 자살영가 천도를 다음과 같이 무료 봉행하오니 자살영가와 인연이 있는 분이나,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종교에 관계없이 아무런 부담 갖지 말고 많은 동참 서원합니다.

일 시 : 불기 2553년(2009년) 6월 27일 10시 30분 ~ 14시까지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1
주 최 : 한국불교태고종 묵언마을
집 전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 상진스님
신 청 : 031)672-3108. 카페(다음.네이버) "묵언마을"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지?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초기불교에서 인지과학까지 ‘마음’ 조명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대사와 혜가 스님의 문답이다. “마음을 편안하게[安心] 해주십시오”라는 혜가 스님의 질문에, 달마 대사는 “불안한 네 마음을 가져와라”라고 답했다. “마음을 가져오면 대신 안심시켜 주겠다”는 달마 대사의 말에 혜가 스님은 말문이 막혔다. “마음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달마 대사는 “만약 찾았다 한들 그것이 네 마음이겠는가? 나는 이미 너를 안심시켰다”라고 말했다.

달마 대사의 이 말 끝에 혜가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안심법문(安心法門)의 일화다.

혜가 스님이 마음을 찾던 끝에 얻은 해답은 일체 사물이나 현상이 본래 공적하다는 것이었다. 또 깨달음이 본래 마음에 있어 멀리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불교는 ‘마음공부’라 불린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됨은 물론, 다른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一切唯心造)’는 말처럼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마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움직일까?

밝은사람들(소장 박찬욱)이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제로 제5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초기불교와 상좌부불교(미산 스님 · 중앙승가대 교수) △유식불교(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선불교(윤원철 서울대 교수) △서양철학(최화 경희대 교수) △정신의학(김종주 라깡정신분석연구소장) △인지과학(이정모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 등 각 분야별로 ‘마음’을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초기 · 상좌부불교 -곧은 마음이 행복 가져와

미산 스님은 주제발표 ‘변화무쌍한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에서 찰나심식설을 중심으로 마음을 설명했다.

스님은 “중생의 마음은 하루 동안 5만여 가지를 생각할 만큼 산란하게 변화 · 요동치고 있다”며 “마음은 연기적 작용을 통해 생성과 지속과 소멸을 찰나찰나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좌부에서는 물질현상이 생성 · 지속 · 소멸될 때 마음현상은 17찰나(0.2초) 생성 · 지속 · 소멸을 반복한다고 말한다.

미산 스님은 “찰나설과 결합된 인식설이 상좌부의 마음수행론에 철저히 적용됐다”며 “바르지 못한 화살이 과녁을 정확히 맞추기 어렵듯 곧은 마음만이 내면의 고요와 평온, 기쁨과 행복, 지혜와 자비를 가져다준다”라고 주장했다.

#유식불교 -나와 남의 한마음 찾아야

한자경 교수는 ‘마음 활동의 두 층위’를 통해 마음을 표층의 마음(妄心, 私心)과 심층의 마음(本心, 公心)으로 분류했다.

한 교수는 “자신과 세계를 공의 마음으로 자각하고 나면, 자신이 바라보는 일체 현상세계가 모두 자기 마음 안에 그려지는 마음의 변형이라는 것[一切唯心造]을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무분별한 전체에 대한 각성을 ‘본각(本覺)’이라 했다. 누구나 갖춘 진여 또는 일심의 자기자각성을 원효는 성자신해(性自神解)라 했고 지눌은 ‘공적영지(空寂靈知)’라 표현했다.

한자경 교수는 “사람들은 하나의 마음(一心)을 나와 남의 마음으로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며 “망심(사심)을 넘어선 본심(공심)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선불교 -마음은 만법의 근원

윤원철 교수는 주제발표 ‘마음을 가져와라’를 통해 선불교적 시각으로 마음에 접근했다.

마음은 선종의 일대사(一大事)다. 윤 교수는 “선에서 주제로 삼는 마음이란 늘 그러한[如如] 마음, 즉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마조어록>에는 “일체법은 모두가 마음법이며, 일체의 명칭은 모두가 마음의 명칭이다. 만법은 모두가 마음에서 나왔으니 마음은 만법의 근원”이라 했다.

윤원철 교수는 “<나옹화상어록>의 ‘개가 뜨거운 기름 솥을 보고 핥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것처럼’이라는 말과 같이 팽팽한 실존적, 인식론적 긴장을 그대로 (수행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선불교에서 전개하는 마음의 요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양철학 -영혼 탐구는 마음에의 접근

최화 교수는 ‘생명의 능동적 운동’에서 베르크손의 이론으로 마음을 설명했다.

베르크손(Henri Bergson, 1859~1941)은 “과학적 지성을 통해서는 인간이 궁극적 실재를 꿰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한 서양철학자다.

최 교수는 “인간은 기억 속에서 물질세계와 만나며 그 속에서 산다. 그때그때 필요한 기억이 기억의 내부와 외부를 오가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신과 물질은 인간의 몸과 그것이 행하는 지각과 행동에서 만난다“고 말했다.

이어 최화 교수는 “영혼 역시 근본적으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운동이다. 본래 물질을 향한 인간의 영혼은 지성으로 특징되며, 공동의 작업이 이어지면 인간은 물질과 생명 모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의학 -의식은 마음의 일부분일 뿐

김종주 소장은 주제발표 ‘무의식을 통한 마음의 흐름’을 통해 프로이드와 라깡의 정신분석을 중심으로 마음을 해석했다.

정신분석에서 의식은 마음 가운데 ‘빙산의 일각’이다. 철학 등이 마음을 의식이라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김 소장은 “인간 의식의 대부분은 무의식으로 구성됐다”며 “마음에 대한 이해는 무의식의 흐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프로이드는 마음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고, 라깡은 상상계와 상징계와 실재계라는 주체성의 삼각구조로 분류했다.

김종주 소장은 “라깡의 무의식은 상징계의 기능으로 일종의 기억이다”라며 “과거의 누적된 업의 역사를 종자의 형태로 기억해 저장하는 근본식인 유식불교의 아뢰야식과 유사하다”라고 강조했다.

#인지과학 -외연 갖춘 마음으로 확장

이정모 교수는 ‘뇌-몸-환경의 상호작용으로서 마음’에서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마음을 조명했다.

이 교수는 “데카르트는 몸은 공간적 외연(확장)을 지닌 실체며, 마음은 외연이 없는 생각하는 실체라 개념화했다”라며 “현재 마음에 대한 개념은 공간적 외연(확장)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공간적 외연이 있는 마음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인지과학에서 마음은 한 사람의 뇌 속에만 갇힌 그 무엇이 아닌 환경과 통합돼 여러 사람을 비롯한 환경과 상호작용해 특징지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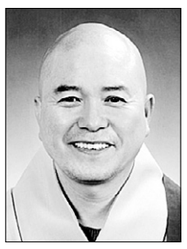
이정모 교수는 “마음을 바라보는 동 · 서양 관점의 접점을 찾는 것과 같은 연결고리가 인지과학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음은 불교적 관점에서는 일체의 근본이지만, 서양에서는 방법론적 접근과 인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의 접근이 지배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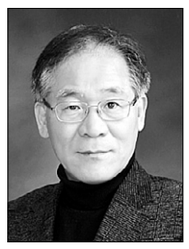
좌장을 맡았던 김종욱 동국대 교수는 “현대 학문에서 마음은 뇌와 몸과 환경이 연결된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라며 “이 움직임의 원리는 상호의존성이며,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緣起)”라고 회통시켰다.

마음은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한다. 이 상호의존성이 비실체적 공성(空性)임을 통찰하는 것은 무념의 평상심에 이르는 길이다. 마음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연기’와 ‘공’ ‘평상심’에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자료집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운주사 刊)의 사전출간을 비롯해 철저하고 짜임새 있는 준비와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불교TV(www.btn.co.kr)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


윤원철 서울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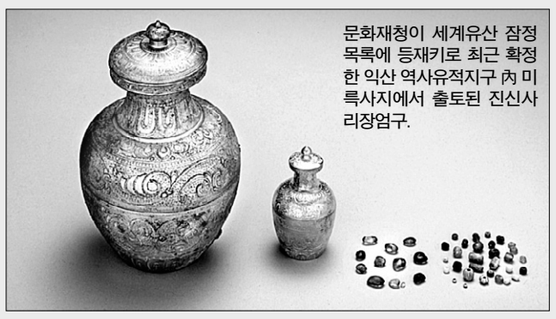

최화 경희대 교수.


김종주 라깡정신분석연구소 소장.


이정모 성균관대 교수.

미륵사지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문화재청, 문화유산 7건 등 확정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키로 최근 확정한 익산 역사유적지구 內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진신사리장엄구.

익산 미륵사지 인근과 부여 정림사지 인근 등이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잠정목록에 등재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익산 역사유적지구와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 등 7건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인 창녕 우포늪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규 등재하기로 확정했다”고 6월 9일 발표했다.

익산 역사유적지구는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와 사적 제408호 왕궁리 유적 등 백제 고대 수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적지다.

공주 · 부여 역사유적지구는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등을 포함한 백제문화를 대표하는 도성 유적지구다.

이 외에도 남한산성, 중부내륙 산성군, 아산 외암마을, 울산 대곡천 암각화군, 순천 낙안읍성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인 창녕 우포늪이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각 국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유산에 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사무국이 심사를 거쳐 등재된다.

한국에는 공주 무령왕릉, 안동 하회마을, 조선시대 왕릉과 원 등 문화유산과 설악산, 남해안 공룡 화석지 등 자연유산 8건이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다. 조동섭 기자

‘마음사상’ 6집 출간

청담사상硏, 청담 대종사 주제 논문 게재

청담사상연구소(소장 허익구, 이하 연구소)는 최근 <마음사상> 제6집을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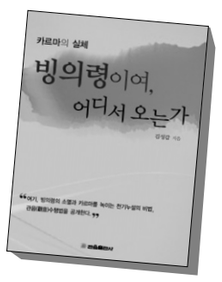
<마음사상> 제6집.

논집에는 2008년 11월 연구소가 ‘청담 대종사의 포교사상’을 주제로 개최했던 학술세미나 논문과 기고논문 등 7편이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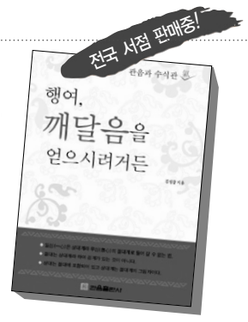
학술세미나 논문은 △불교의 교육철학에 기반한 청담의 포교사상연구(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청담 대종사의 지도력 유형 및 포교사상에 대한 연구(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구도부와 봉은사 대학생 수도원(김광식 부천대 교수) △청담 대종사의 포교사상(김선근 동국대 교수)이 실렸다.

기고논문은 △청담 대종사와 도선사의 포교활동(김현남 신라대 외래교수) △청담 대종사의 마음사상과 자아정체성 교육(박중일, 전주산업대 교수) △문궤의 인명사상 연구(선응 스님, 동국대 박사과정 수료) 등이 수록됐다. (055)751-3699

조동섭 기자

화제의 신간
〈카르마의 실체〉
빙의령이여, 어디서 오는가?
마음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때 맑음이 온다.
맑음은 법신이다.
여기, 빙의령의 소멸과
카르마를 녹이는
천기누설의 비법,
관음(觀音)수행법을
공개한다.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12,000원

〈관음과 수식관 氣〉
행여, 깨달음을 얻으시려거든
법신(法身)은 순백의 맑음.
기(氣)는 법력이 아닌
에너지일 뿐이다.
생각을 작게 하는 것은
일심법의 핵심.
하지만 무상정득정각은
무심만이 얻을 수 있다.
전국 서점 판매중!


김성갑 지음 / 신국판 / 288쪽 / 정가 12,000원

숨이 배꼽근처에서 멈춘다 오쇼 라즈니쉬 지음 / 길연 옮김 신국판 / 242쪽 / 12,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4×6배판/양장본/70,000원
이게 풍수다 신국판/성재권 지음/15,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스님 지음/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장본/김성진 지음/35,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장본/공유성 지음/40,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신한은행 110-012-066080 예금주(소광호)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퇴마,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6-20번지 ☎032)349-0666/FAX 032)349-0665
유마 최면 연구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주소는 http://www.yuma119.com 입니다.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숙 식 제 공

일주문



더 프라미스 창립 1주년 세미나
더 프라미스 대표 법등 스님은 6월 19일 템플스테이센터에서 미국 NGO '마칙'을 초청해 창립1주년 기념세미나를 연다. (02)735-3119



'백제 미소길 걷기 명상' 개최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6월 20일 덕산 가야사터에서 보원사터까지 숲길을 행선(行禪)하는 '백제 미소길 걷기 명상'을 개최한다. (041)337-0173



법화정사 사경봉안법회 봉행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은 6월 13일 천안 구룡사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호국법화경 사경봉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충담 대종사 열반11주년 영산재
태고종 가평 감로사 주지 지성 스님은 6월 26일 오전 11시 충담 대종사 소신 열반 11주년 추모영산재를 봉행한다. (031)584-0117



평화재단 제2기 열린아카데미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은 6월 9일~7월 14일 양재동 평화재단 강당에서 매주 화요일 북한을 살피는 '열린아카데미'를 개최한다. (02)581-0581



인천무형문화재 '현충재' 공연
범패와작법무보존회장 능화 스님은 6월 6일 인천 현충탑광장에서 인천무형문화재 전승공연 '현충재'를 봉행했다.



제4회 사명대사 추모제 거행
사명당기념사업회 박권흠 회장은 6월 10일 서울 장충단공원 사명대사 동상 앞에서제4회 사명대사 추모제를 봉행했다.



불교TV서 '마음의학' 강연
금오 김홍경 한의사는 6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불교TV에서 '마음의학'을 강의한다. 22일 오후 1시 공개강의.



불교 여성발전 바자회 개최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6월 16~17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불교여성의 발전을 위한 사업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했다.



대불청 제28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 정웅정 회장은 6월 27~28일 경주 위덕대학교,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제28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진료 아니라 보시심에서 기쁨 얻는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초 설립 연우치과 유인숙 원장



"'내가 치료를 하는 사람인가? 치료를 받을 대상인가?'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죠. 의사는 환자를 치료 하기도 하지만 치료받기도 한다는 거죠.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보시의 마음에서 기쁨을 얻는 것 같이 말이죠."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좋은날(대표 김의정)은 6월 10일 견지동 전법회관 2층에 연우치과를 개원했다. 종교 신도단체에서 최초로 병원을 설립 운영하게 된 연우치과 유인숙 원장(42 · 사진)을 만났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개인치과를 운영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환자를 대함에 있어 진료하고 진료비 받고 치료받고 치료비 내는 상무적 관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온 의사생활 10년 세월동안 마음은 헛헛해져만 갔어요."

유 원장은 의사 생활을 접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며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공부를 하면서 종교의 필요성을 느낀 유인숙 원장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불교TV를 하루 5시간 이상 시청하는 애청자가 되는 등 철학으로만 알던 불교를 신심으로 소화하며 더 깊은 불연에 뜻을 품었다. 그러던 중 연우치과 운영자문이자 반갑다연우야 의료봉사단 엄인웅 원장(서울인치과)에게서 연락이 왔다. 유 원장은 진료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전액을 이동치과 진료봉사비로 사용하는 연우치과 개원 취지를 듣고 선뜻 발심하게 됐다.

"내가 낸 진료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면 치료받는 사람도, 치료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성과 마음으로 진료할거에요."

유인숙 원장은 지난 10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빈자리에 뜨면 뜰수록 샘솟는 자비와 보시의 마음을 채우고 연우치과의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연우치과는 불교의료지원단(단장 구자선) 반갑다연우야의 이동치과진료와 더불어 보다 안정 · 심층적인 치과진료를 위해 마련됐다. 의료 취약계층 진료를 우선 진행하며 지속 · 집중적인 치료지원을 할 계획이다. 일반진료는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며 토요일은 오후 1시 30분까지 진료한다. 주말에는 의료 취약계층 무료진료가 진행된다. (02)733-1030

이상언 기자

대구시 한북 스님에 표창장

주민추천으로 '밝은 사회 조성 공로' 인정



"지역과 이웃을 위해 희생과 노력을 다해 왔으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밝은 사회 조성에 앞장선 공로가 큽니다."

6월 2일 대구 보성선원(주지 한북) 약사전에서는 매월 한 차례 열리는 '어르신을 위한 점심공양'과 함께 단촐한 시상식이 열렸다. 대구시(시장 김범일)에서 한북 스님(사진)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이다. 시장을 대신해 대구광역시 류병노 의원이 위와 같은 간략한 공적사항을 읽고 어르신 100여 명이 박수를 보낸 간소한 행사였지만, 그 의미는 컸다. 이 표창은 달서구 송현1동 주민들이 추천해서 이뤄진 상이라 더욱 뜻깊었다.

2008 년 1월 보성선원 주지로 부임한 한북 스님은 경내 주차장을 야간에 주민에게 개방했으며, 매월 둘째 목 · 토요일에 영화관람회와 음악감상회(국악, 재즈, 대중가요, 팝 등)를 정기적으로 열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인근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김장김치 나누기, 어르신 무료 영정사진 촬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자비도량으로 가꾸었다.

네 번째 '100일 <천수경> 정진' 중에 표창을 받은 한북 스님은 "상을 받기 위해 한 일도 아닌데 당혹스럽다"며 "이 상은 직접 땀 흘리며 수고하신 신도님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대흥사에서 템플스테이 활성화에 앞장서고 동국대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대중포교에 나선 한북 스님은 "사찰은 종교시설인 동시에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서 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며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불교 교류와 포교에 함께 노력"

한 · 몽불교 합동 봉축법요식 봉행



한 · 몽 불교합동 법요시에서 참가 대중들이 양국 불교교류 및 우호를 다지고 있다.

6월 7일 몽골 울란바토르 시 다시초일링사원 대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한 · 몽 불교 합동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다. 법요식은 몽골사원연합회장 담마자브 함보 라마와 몽골 한국사원 고려사 회주 활안 스님,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담마자브 함보 라마와 활안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양국의 불교문화교류와 발전에 공동 협력함은 물론 불교 전법 활동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봉축 법요식에서 삼각산 문수원 박현제 원장이 몽골국립장애인협회에 3200만원 상당의 휠체어 30개, 물리치료기 6대를 기증했다.

한편 몽골불교대학교는 불교대학 건립기금 5000만원과 장학기금 등을 후원한 박현제 원장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이나은 기자

황우석 박사, 장영실상 수상



수암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 황우석 박사(사진)가 2009년도 제11회 장영실 국제과학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황우석 박사는 6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세계최초 복제견 스너피와 미씨의 복제, 세계최초 인간복제 줄기세포(NT-1) 수립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김성우 기자

대만 불광회장 심정 스님, 지관 스님 예방



대만 국제불광회 회장 심정 스님은 6월 8일 서울 불광산사 10주년을 기념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한 · 대 유대를 다졌다. 7일 서울 불광산사에서 10주년 기념법회도 봉행됐다. 이상언 기자

군종교구 쌍룡사서 호국의달 특별법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면)는 6월 호국의달을 맞아 7일 화성 해병대 사령부 쌍룡사에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사령관, 부사령관, 참모장등 장병 100명이 참석해 불심을 다졌다. 노덕현 기자

선운사 하안거 포살법회 봉행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6월 6일 대웅보전에서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을 포살법사로 봉행된 법회에는 제적 50여 스님이 동참했다. 선운사는 8월 8일에도 포살법회를 봉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회 호국연무사서 훈련장병 수계법회



대전충청 군불교후원회 '화엄회'는 5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종봉)에서 장병 3000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법사 환성 스님(영평사 주지)은 본래마음을 밝힐 것을 강조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원불교신문 창간 40주년 보도사진전 열어



원불교신문(사장 황인철)은 6월 10일 창간 40주년 기념 '종교보도사진전'을 서울불교중앙박물관 나무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근 3년간 신문에 보도한 사진 총 60점이 전시됐다. 이나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한국최면연구소

제41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오후5시 까지)

▶개 강: 매주 월요일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200만원
▶특 전: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현재 접수중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빈 손으로 간다고요? '업' 가지고 가니 잘 살아야죠


화계사에서 만난 '염불봉사의 달인' 최복천 포교사.

14년 간 1400회 봉사… "무엇보다 활성화 시급한 포교분야"

이틀에 하루는 안치실서 망자 위한 염불… 항상 대기상태

꿩 울음소리가 화계사 앞마당을 뒤흔드는 오후, 영가를 위한 염불봉사를 14년째 해 오고 있는 최복천씨를 만났다. 14년 동안 염불봉사 횟수가 1400회가 넘는다고 하니 한 달에 15번은 봉사를 다닌 셈이다. 어떤 날은 하루에 서너 번씩 안치실에서 염불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니 굳은 신심과 보살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해내지 못할 일이다. 최복천씨는 빈소에서 염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치실에서 직접 망자와 대면하고서 염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전남, 경북, 충청도 지역 등 전국을 돌며 60여 곳의 장례식장과 상가에서 염불봉사를 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가를 위한 염불 봉사를 택한 것이 궁금해 여쭈었다.

"1996년 서울 화계사 신도회장직을 연임한 후 물러나면서 이제 내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 차에 '불자들 중 나이 들어서, 또는 죽기 직전에 개종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종단에서 장례문화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그나마 노년층 불자마저 잃겠구나' 하는 위기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장례의식 염불'을 살펴보니 내 근기와도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7년도 불교자원봉사연합회에서 원왕생(시다림의식)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인연이 돼 염불포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1998년 포교사가 된 후 불교어산작법학교 교장인 인묵 스님(봉선사 주지)에게서 초급 및 고급반 교육을 받고나니 염불포교에 자신이 좀 생기더란다.

"망자와 마주할 때면 '이 다음에 죽으면 나도 저런 모습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는 날짜와 시간이 되면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으니 우린 항상 죽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란 들이마신 숨을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것이요, 내쉬면 사는 것 아닙니까?"

최복천씨의 염불봉사는 언제 어디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항상 대기상태이다. 그래서 그는 모임 하나 없다고 한다. 혹 사람들과 약속을 하더라도 "만약 염불봉사가 있으면 이 약속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단서를 붙인단다. 최복천씨의 일상에서 염불봉사는 항상 1위로 꼽히는 중요한 일이란다.

최복천씨는 젊어서부터 운허 스님, 관응 스님, 탄허 스님, 경산 스님, 지오 스님 등 큰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었을 뿐더러 49재도 많이 참석해보았다. 스님들이 행하는 49재를 옆에서 보고 들으면서 은연중 배우게 됐다.

최복천씨의 보살행은 굳건한 신행생활에서 연유하는 것이기에 공부이야기를 여쭈었더니 '숭산 큰스님으로부터 오랫동안 참선지도를 받았으며, 큰스님과 독참해 점검을 받기도 했다'고 답했다. 숭산 큰스님으로부터 들은 법문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법문이 있다.

"이 몸뚱이는 렌트카다. 다 쓰고 나서 폐차를 시키고 나면 새 차를 받아야 하는데, 티코를 받을 것인가, 그랜저를 받을 것인가는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은 운전사이듯이,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다."

그는 '태어남은 한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은 한조각 구름이 스러지는 것과 같다고 하지만, 현생의 업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하니 잘 살아야지요'라고 덧붙였다.

"흔히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지만 사실 우리는 평생에 지은 업을 지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거짓말을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업경대에 자신이 일생동안 지은 업이 영화처럼 그대로 화면에 나타난다고 하니 두렵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업(善業)을 지으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작은 일이지만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염불봉사 14년 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단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자연사(自然死)가 많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와 자살 그리고 불치병으로 죽은 영가 등이 많다. 특히 가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영가와 인연을 갖게 되면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염불하게 된다. 염불봉사를 통해 언제 보람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두렵고 초조한 마음으로 있던 유가족들이 염불을 해주고 나면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생각나는 유가족이 있어요. 영가님은 수십 년 동안 날마다 화계사를 오르내렸지만, 세 명의 아들은 전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렇지만 아들들은 생전에 아버지가 불자였기에 불교 방식대로 장례식을 하고 싶다면서 염불을 청하더군요. 화계사에서 49재까지 치르고 나서 그 아들들을 만났는데 '저희들 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데요. 그때 정말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염불봉사는 살아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최복천씨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동참해 준 많은 포교사와 불자들이 있었기에 이러한 봉사활동이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2005년 겨울, 염불봉사를 위해 새벽어둠이 걷히지 않은 새벽길을 가다가 봉고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발목 골절과 머리에 여섯 바늘을 꿰매는 상처만 입고 살아났단다. 최복천씨는 이를 두고 '불보살님의 가피임에 틀림없다'고 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그 와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발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장례를 모시게 됐고, 어쩐지 크나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항상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그때 염불봉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없었느냐고 했더니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었고, 앞으로 더욱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니 온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염불하고 나서 조가(弔歌)를 부르면 상주들이 감동을 받아 통곡하는 모습을 더러 보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음성공양 포교의 중요성을 실감한단다. 그래서 최복천씨는 어떤 포교보다도 염불포교가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했다.

"어린이, 청소년, 군포교 등 많은 분야에 포교 활동이 있지만 염불포교 보다 더 시급한 포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포교는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염불포교는 사람이 죽고 나서 3일 안에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의식을 해야 하니 너무나 시간이 짧아요. 장례식을 치루는 3일이 지나면 그 영가와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시간이다 보니 참으로 다급합니다."

주변에서는 칠순이 넘었으니 이젠 건강을 생각해 쉬라고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염불포교를 하겠다는 강한 원력을 비쳤다. 인터뷰를 마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최복천씨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염불봉사를 요청하는 전화였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 논설위원)



윤5월 맞이 이색 법회 '눈길'

생전예수재 · 큰스님 초청법회 · 삼사순례 등 풍성

부산 · 경남 각 사찰에서는 4년에 한번 찾아오는 윤오월을 맞아 생전예수재와 함께 삼사순례, 특별법문 등 이색 법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예수(豫修)란 '미리 닦는다'는 말로, 천도재가 죽은 이를 위해 재를 지내는 것인데 반해 생전예수재는 산 사람을 위한 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살아있는 동안 미리 재를 지내 복을 짓고 허물을 멸하고 왕생공덕을 닦는 의식이다.

해인사(주지 선각 · 055-934-3105)는 생전예수재 및 제4차 1029일 천도법회 입재식을 맞아 6월 22일 오전 9시 대적광전에서 묘허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범어사(주지 정여 · 051-508-3122)는 5월 22일 생전예수재 입재 법회를 갖고, 28일 초재부터 막재인 7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예수재를 봉행하고 있다.

통도사(주지 정우 · 055-384-8380)는 5월 24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 입재, 7월 12일 오전 8시 회향법회를 갖는다. 기간 내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는 천도재도 함께 봉행한다.

대광명사(주지 목종 · 051-742-7610)는 6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49일간 생전예수재를 올린다. 입재인 7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합동천도재도 함께 봉행한다. 생전예수재 기간 중에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한다.

동명불원(주지 정산 · 051-626-4337)은 6월 5일 생전예수재 입재법회를 갖고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재를 올린다. 회향일인 6월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모산영산재보존회(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와 함께 생전예수재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백연화사(회주 원산, 051-504-5522)는 5월 24일 오전 10시 생전예수재 입재법회를 갖고, 6월 1일 예수재 첫 재를 지냈다. 회향인 7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예수재를 봉행한다. 또 6월 26일 윤오월을 맞아 충남 수덕사, 간월암, 용봉사로 삼사순례를 떠난다.

홍법사(주지 심산 · 051-508-0345)는 윤오월 생전예수재와 백중을 맞아 '대웅보전 낙성 기념 큰스님 초청 법회'를 마련한다. '수행, 삶의 향기 찾기'를 주제로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열린다. 오전 10시 불공에 이어 11시 법문, 12시 생전예수재 및 우란분절 영가천도 시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7월 1일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8일 종범 스님(前 중앙승가대학 총장), 15일 수불 스님(안국선원장), 22일 혜남 스님(영축총림 전계사), 지광 스님(서울 능인선원장), 8월 5일 효산 스님(부산 효산선원장), 12일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19일 혜국 스님(석봉사 금봉선원장), 26일 도영 스님(전주 송광사 주지), 9월 3일 도문 스님(장수 죽림정사 조실) 등이 법석에 오를 예정이다.

울산 해남사(주지 만초, 052-211-3340)는 생전예수재 및 영가천도 49재를 지낸다. 5월 28일 오전 10시 입재, 7월 16일 회향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마다 마련된다.

해운정사(조실 진제 · 051-746-2256)는 생전예수재 및 먼저 가신 고혼을 위한 49재를 봉행하며, 삼사순례를 떠난다. 생전예수재는 6월 23일(음력 윤달 5월1일) 오전 10시 입재해 8월 8일(음력 6월 18일) 오전 11시 회향한다. 삼사순례는 7월 16일 금천사를 거쳐 운문사 사리암으로 떠난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홍법대상 김정두씨 선정

홍법사, 호국영령 넋 기리는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도 봉행


6월 6일 홍법사에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가 봉행됐다. 왼쪽부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호국보훈의 달 6월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잔디마당에서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봉행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포교의 원력을 실천하고 호국영령을 천도하기 위해 시작됐다.

제1부 허공마지 및 호국 영령 천도재에 이어, 제2부 홍법바라밀제는 불교TV 염불공양회의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주지 심산 스님의 연혁 소개 및 인사말,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인사말, 홍법대상 시상식 및 장학금 수여식,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특별법문 등의 순으로 1시간에 걸쳐 이어졌다.

주지 심산 스님은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 없지만 대웅보전을 장엄하게 지은 것이 너무 행복하다"며 "내년 가을 대웅전 옥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미타대불을 모시게 될 생각에 감개무량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특별법문에서 "번뇌를 갖고 살면 처처가 삼악도이고, 보리심을 가진 자만이 바라밀을 행할 수 있다"며 "홍법사는 심산 스님의 원력과 하도명화 창건주 보살의 신심이란 수레를 뒤에서 잘 밀어주는 신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곳이니만큼 이런 홍법사의 정신에 어울리는 불자의 삶을 살라"고 설했다.

올해 홍법대상은 11년간 실직자 및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보살행을 쌓아 불자들의 귀감이 되고, 홍법사 대웅보전 건립 대작불사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김정두 용두건설 사장이 선정됐다.

홍법대상은 1989년 제정 이래 대상 수상자 30여 명에게 2억 원 이상의 상금을 전달하고, 장학생 160여 명에 장학금 4500만원, 청소년지도자 170명에 포교공로상금 8220만원, 청소년 단체지원금 1억3000만원 전달, 홍법총서 9종 3만4500권을 발간하고 법보시 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림 스님,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원 기자

차 한 잔 · 그림 한 장에 가르침 담아 '한 마음'

성타 스님의 외국인 문화포교 '인기'


외국인에 대한 문화포교에 앞장 서는 금강암 성타 스님.


성타 스님에게 참선과 절하는 법을 배우고 '불' 자 선물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

"Welcome, Do you know temple of Korea's green tea?"

절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한 스님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이들은 절 마당에서 사진만 찍을 뿐, 법당 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때 스님이 다가가 유창한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불교를 믿으세요' 라며 다가간다면 거부감에 도망하겠지만, 차 한 잔으로 불교에 관해 전하고, 헤어질 땐 염주와 제가 그린 달마도나 '불(佛)'자 족자를 선물로 줍니다."

이게 바로 성타 스님(금강암)이 말하는 '차 한 잔의 포교' 그 중에서도 스님이 직접 그려 선물하는 족자와 그림이 가장 인기 있다. 사실 스님은 한국미술협회가 주관하는 2009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에서 작품명 '주시'로 우수상에 선정된 예승이다. 이번 우수상 수상으로 문인화 부문 초대작가로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출가 후 한 때 절필했지만 포교현장에 뛰어든 후 다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법인 부처님 말씀만 가지고는 불특정다수의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맞출 수 없음을 깨달았고, 가장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스님은 포교의 한 방편으로 붓글씨와 그림을 그렸고, 불교라는 종교 속에 숨은 문화를 끌어내 대중에게 한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이번 초대작가 지정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문화포교를 꿈꾼다.

"우리나라 스님이 외국에 나가서 포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사찰에 스스로 찾아오고 있는데 그저 관광에만 그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성타 스님의 방 곳곳에는 외국인 손님들에게 줄 선물과 그림 선물, 그리고 '삼법인이란?'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인가' 등에 관한 해답이 영어로 메모돼 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머나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픈 성타 스님의 희망들이다.

박지원 기자

원순 스님의 '법화경' 강의 '인기 짱'

부산 청량사 불교대학 봄학기 신도들 정진 열기 높아

"요즘 불경기 탓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대강백 원순 스님을 모신 <법화경> 강의로 불자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뜨거운 신심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부산 청량사(주지 운암)는 4월 초 2009학년도 봄 학기를 개강하고, 현재 50여명의 신도들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다. 그중 4월 23일부터 경전반 특강 '원순 스님의 <법화경>'을 시작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수업진행으로 수강생들의 배움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원순 스님의 강의는 어렵고 낯선 불교용어를 현대의 화법으로 해석해 속 시원하게 풀어내 호응이 높은 편이다. 강의 도중에 끊임없이 질의응답을 거쳐 그때그때 학업성취도를 파악해 수준의 높낮이를 조절한다. 또 단순히 강단에 올라 교재를 바탕으로 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주 숙제를 내 수강생들의 공부 정도와 마음가짐을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청량사 주지 운암 스님.

마에뜨리아 불교대학은 봄 · 가을 학기 각 3개월 과정으로 4월과 10월에 각각 개강하며, 학기 중에도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초심자를 위한 3개월 입문자 반과 1년 과정의 경전반도 함께 개설되며 2009학년도 경전반은 '원순 스님의 <법화경>'을 개설해 매주 목요일 오후 2~4시 마련된다.

한편, 7월 5일 오전 10시 30분 일요가족법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12시부터 원순 스님의 <신심명> 특별강의가 마련된다. (051) 271-2774

박지원 기자

진시황제가 비밀시 활용하던 천비술서! 금쇄옥약시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720면/정가 각120,000



십자성 래정비법 전수생모집
사주를 뽑지않고, 자신이 갖고 들어온 점괘로 쉽게 푸는 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buddhanews.com

'반농반선' 승려노후수행관 건립

고창 선운사 개별 거주형 '석상마을' 조성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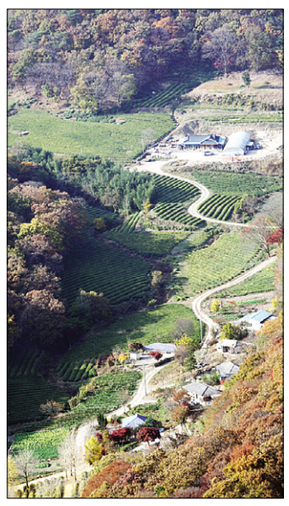
2008년 9월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불교미래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가한 스님 65.4%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스님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의료비용과 거처안정,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며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생활을 영위할 승려노후수행관 건립이 결정돼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6월 11일 경내 회의실에서 열린 제24교구 운영위원회에서 '석상마을 승려 노후수행관 건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선운사는 금년부터 선운사 인근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에 위치한 석상마을 부지 59만 4000㎡(1만8000평)의 부지를 중심으로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을 건립하게 된다.

수행관은 10여개 동으로 건립되며 1가구 1인 거주형을 비롯한 2~3인형 등 구조의 토굴개념으로 세워진다. 승랍 25년 이상, 세랍 65세 이상의 원로스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주방식을 거쳐 반농반선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승려노후복지관이 들어설 고창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 부지 전경.

선운사는 노후수행관 건립을 통해 노스님들이 안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비롯해 소외감, 질병, 빈곤, 역할상실이라는 현실적 짐을 교구차원에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스님들이 승려노후수행관을 통해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의 청빈한 삶이 노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간병, 복지, 수발 등을 망라한 종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선운사는 노후수행관조례 제정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후수행관을 여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 양성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고창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전문 간병인을 위한 교육 계획 등도 마련됐다. 주변의 녹차밭을 이용한 다도체험관과 다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강원의 학인스님들을 노스님들의 시자로 둬 신구세대간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할 방침이다.

법만 스님은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행과 포교보다는 노후대책비용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석상마을 노후 수행관을 통해 원로스님들이 열반시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석교 건립, 부도전 정비, 석전 스님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석전 스님 유묵 특별전시회, 노후수행관 건립을 위한 만등불사 및 보살계 수계법회 개최 등이 결의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암사, 호국영령 천도재 봉행

6월 7일 괘불 점안식도 열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남 순천에서는 이 땅의 국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몸을 희생하신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가 열렸다.



6월 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괘불 점안식과 호국영령 천도재.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와 순천 보훈지청(지청장 강석부)은 6월 7일 선암사 대웅전 앞에서 '선암사 국태민안 괘불 점안식과 함께 호국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세 번째인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해 경담 스님, 강석부 지청장 등 보훈가족을 포함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괘불이 선암사에 모셔져 있으나, 그 크기가 너무 커 일상법회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조금 작은 괘불을 모시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상이나 괘불은 여법한 의식은 물론 정성으로 모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며 "대중은 사중 대소사에 괘불을 잘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어에 이어 진행된 인사말에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호국보훈의 달에 여법한 불교의식을 진행하는 것 또한 불교포교에 중요하다"며 "선암사 역사상 두 번째의 괘불을 모시고 천도재를 봉행하게 돼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괘불은 사찰에서 큰 행사를 봉행할 때 대웅전 앞마당에 법당을 만들고 부처님을 대신해 모시는 큰 불화(佛畵)이다. 이번에 선암사에서 조성된 괘불은 가로 6.5m 세로 3.5m 규모로 기존 괘불의 절반 크기로 제작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상센터 건축에 지역단체 반발

무등산 원효사에 무보협 측 공사중단 요구

사찰이 진행중인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지역단체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가 명상센터로 리모델링 중인 구 무등산 산장호텔 모습.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가 불사중인 '명상센터'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원효사가 공사중인 '명상센터'를 두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가 "건물철거 약속을 이행하라"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보협은 "2008년 5월, 원효사측이 무등산 산장호텔을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정비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6월 2일부터 원효계곡 상가 일대에서 집회 중이다.

원효사는 1960년대 무등산 원효계곡 일대를 개발하던 당시 교통부가 건립한 무등산 산장호텔을 리모델링해 명상센터를 세우는 중이다.

현지 스님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건물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다"라며 "이 건물은 종단에 등록된 부지로 개인이 철거를 약속할 사항이 못된다"고 무보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스님은 "명상센터는 영리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등산을 찾는 시민이면 누구나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무보협이 성지화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무보협이 제기한 명상센터 공사중단 요청과 관련해 내부공사 중단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염원 담아 모내기

화엄사 소유 논서 제3회 통일 모심기 열려

스님, 농민, 노동자, 학생이 하나가 돼 통일쌀 모심기에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6월 9일 구례군농민회(회장 김봉영)를 비롯해 화엄사(주지 종담),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지회장 박병규), 구례군여성농민회(회장 임채남), 조선대 총학생회(회장 박희재) 등과 함께 구례군 오이시험장 인근 8000여㎡의 논에서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은 모를 심었다.

제3회를 맞은 통일 모심기 행사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북녘동포를 돕기 위한 행사다. 2007년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주기 위한 '통일쌀 짓기 사업'으로 시작됐다.

통일쌀 짓기 사업을 위해 화엄사는 사찰 소유 토지 2만여 평을 무상 대여 했다. 이 토지를 바탕으로 지역 농민회는 경작을 하고, 기아차 노조는 2000여 만원의 비용을 보태왔다.



6월 9일 구례 화엄사 스님과 농민, 노동자, 학생이 통일 모심기를 하는 모습.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원각사 박창규 종무국장

도심포교 핵심은 문화강좌와 불교대학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는 도심 한 복판에 전통사찰이 위치해 일반인에게 포교가 이뤄지는 곳이다. 원각사에는 언제나 일거리를 잡고 분주히 움직이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재가종무원만 10명인 원각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이는 기획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창규 국장(사진)이다.

"도심포교는 다양한 문화강좌와 불교대학 운영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박 국장의 사찰운영 방침은 확고하다. 그의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원각사는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사찰음식 공양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경전강좌, 금요일 기본교리 강좌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개최하고 있다. 청년법회, 어린이회, 청소년부 등 계층별 포교의 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다.

원각사에서 열리는 법회는 일반 신도법회를 제외해도 월 20회 이상이 열린다. 매일 법회나 강좌가 열린다.

뿐만 아니다. 사군자, 요가, 다도반 등 문화강좌도 상설됐다. 매주 수요일이면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반찬배달 하는 것을 비롯해 전남 화순 전남대 병원을 찾아 다도봉사를 한다.



교육과 복지를 아우른 전방위적인 원각사의 포교프로그램은 요즘 다문화가정을 위한 단체까지 구성해 전문성을 더하는 중이다.

박창규 국장은 원각사에서 행사 전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기획일을 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도심 포교에 무척 힘이 듭니다. 인력부족만을 탓할 수 없어 고민하다보니 원각사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지금도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박 국장은 원래 무역업을 했다. 2008년 부친의 49재 후 도제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낙향해 원각사 종무를 보고 있다.

초심자인 박창규 국장에게 불교일은 녹록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묻고, 확인하고를 반복해야 했다.

박 국장은 "처음 접한 절집에서의 소임은 생소하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낯설고 어려웠던 박창규 국장의 돌파구는 수행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하듯 독경CD를 듣고, 광명진언 사경을 했다. 1만번 사경을 목표로 지금도 박 국장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한다.

"원각사를 찾아 보시와 자비행을 실천하는 신도님들을 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쟁으로만 살았던 자신을 성찰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힘든 이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는 지금의 삶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 박 국장의 바람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는 말 뿐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님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림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다관을 엎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大20,000원/中10,000원/小5,000원



둥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흰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덤벙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大 40,000원 / 小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大 60,000원 / 小 40,000원



벚찌화병
大 100,000원 / 小 80,000원



보리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흰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이외 다양한 상품은 협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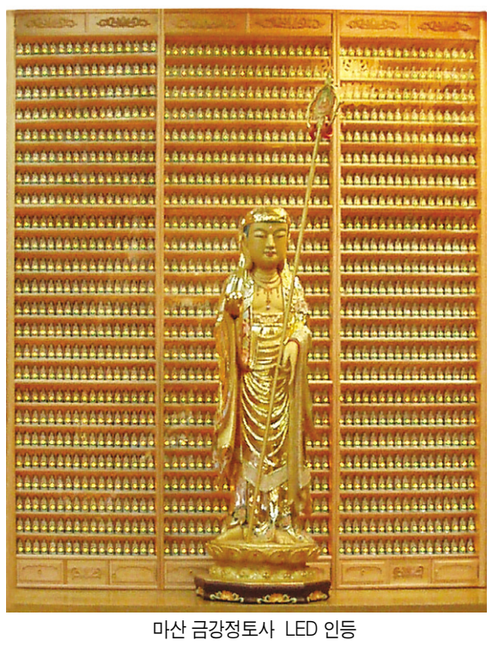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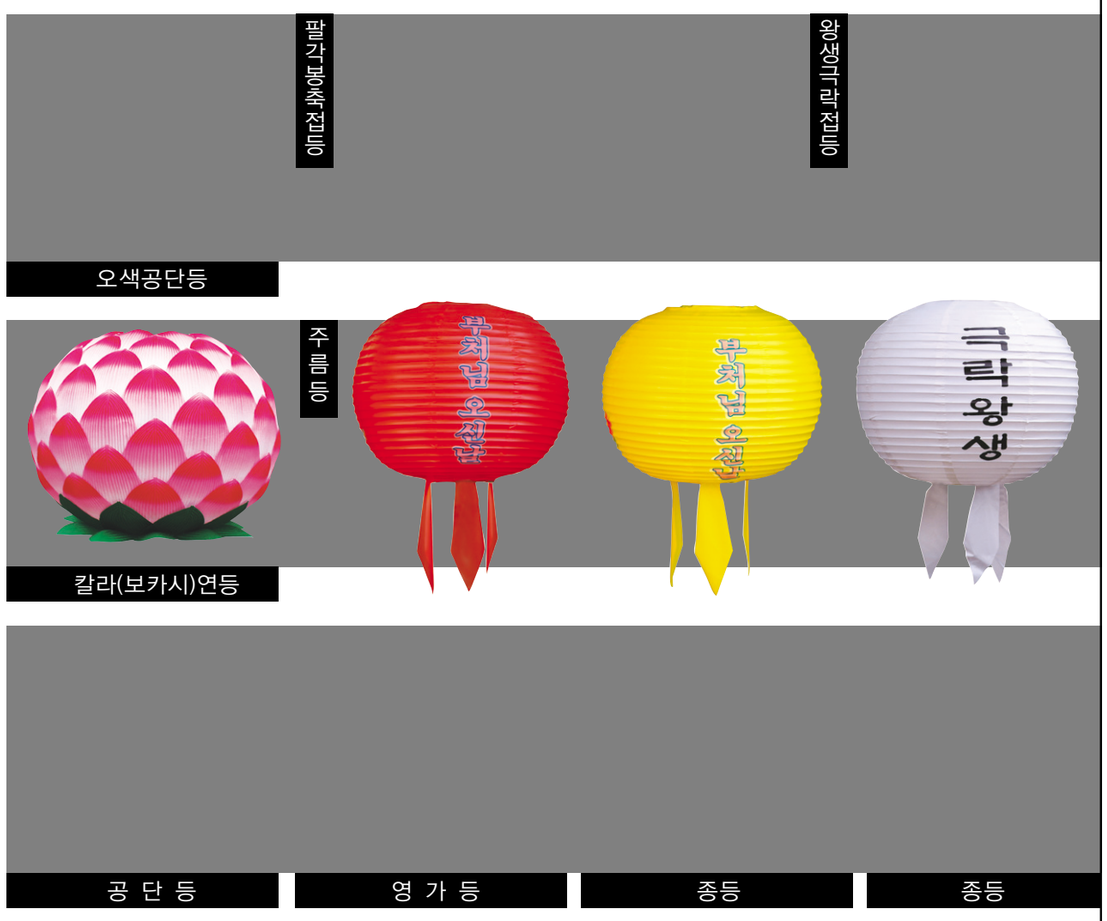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20

중도 · 관용으로 행복하라

[원문]
백의관음무설설(白衣觀音無說說)
남순동자불문문(南巡童子不聞聞)
병상녹양삼제하(甁上綠楊三除夏)
암전취죽시방춘(巖前翠竹十方春)
–낙산사 홍련암

[번역]
흰 옷 입은 관음은 말없이 말하고
남순 동자는 들음 없이 듣도다.
꽃병위의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선해(禪解)]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속에는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좋은 인연만을 만날 수 없고 매번 나쁜 인연만 만날 수도 없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 속에는 언제나 '미움과 사랑'이 공존한다.

그래서 <법구경>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주 만나 괴롭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부처님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두 개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中道)'다. 인간이 '중도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집착'이다. 집착은 인간으로 하여금 탐욕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마침내 자기를 자제할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요즘 나는 신문이나 뉴스를 듣는 것이 괴롭다. 날마다 죄의 온상이 판을 치고 정치인은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더욱이 북한의 핵(核) 때문에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이런 속에서도 권력욕에만 눈이 멀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산중에 있는 산승(山僧)의 눈과 마음으로 가늠해도 그들의 무지와 타락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종교계의 원로들을 불러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그 때 우리 조계종의 수장이신 지관 스님은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한다. 불교계의 원로로서 참으로 올바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 대통령의 영결식 때 노제에 쓰인 2,000여개의 만장이 PVC에 매달렸다. 영결식의 만장에 쓰일 대나무가 시위대의 죽창으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이유였다. 이것은 마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과 다를 바가 없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불가에서 '만장'은 고인에게 드리는 마지막 편지와 같아 다비식 후 모두 태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우면 독한 기름 냄새가 나는 PVC 봉을 사용하게 한 것은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위배 되는 것이며 부처님이 강조하신 '중도의 마음'을 잃은 탓이다. 만약,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러한 부처님의 '중도의 정신'을 안다면 이런 발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그 만장은 우리 불교계의 수장이신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직접 휘호를 써 매단 것이었다.

한갓 알량한 정치적 판단으로 이마저도 거부한 현 정권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며칠 전 전국 교수회의에서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시국선언이 나왔겠는가? 이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낙산사 홍련암은 강화도 보문사,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3대 관음기도도량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에 파랑새의 전설이 있다. 의상 대사는 먼 천리길 경주에서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동해의 바닷가인 이곳에 왔다가 파랑새가 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7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를 하였다가 드디어 바다에 붉은 연꽃이 피고 그 위에 선 관음보살을 만났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자리에 암자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홍련암이다. 통도사의 경봉 스님도 이곳에서 수행을 하다가 꿈속에서 백의관음보살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 스님은 '조사선(祖師禪)'을 체험한 기념으로 의상대에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텅 빈 누각에 달이 밝아 나그네 발길 더디니/ 이 흥취에 어찌 읊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조도(祖道)의 풍광(風光)을 이제야 알겠다/ 흰 갈매기 물을 치자 붉은 해가 솟네.' 라는 한 편의 선시(禪詩)를 남겼다. 그 때 스님은 그 힘 있고 유연한 필체로 홍련암에 편액을 걸었다.

홍련암 법당 마루에는 특이한 형태의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 8cm 정도의 정사각형 형태의 이 구멍으로 절벽과 파도치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다. 이 구멍은 의상 대사가 672년 이 절을 창건한 이래 단 한 번도 막아 본적이 없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이 구멍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목조 건물에는 소금기가 있는 물이 치명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다의 해풍을 막지 않고 오히려 구멍을 뚫어 놓은 까닭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시하기도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구멍에 대해 의상 대사가 친견했다는 관음보살을 후세 사람들도 보게 하기 위해 뚫었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의상 대사에게 여의주를 바친 용이 홍련암의 불법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었다는 주장도 있다.

요즈음에는 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동양종교학과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다름 아닌 스님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구멍은 해조음의 파도소리를 들음으로서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장치라는 것이다. 파도소리. 불가에서는 해조음(海潮音)이라고 부른다. 불서인 <능엄경>에서는 '진정한 삼매는 들음으로써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즉 관음보살의 수행법인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설명한 것이다. 능엄경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 중, 가장 귀중한 네 가지를 설명하고 하고 있는데 묘음, 관세음, 법음, 그리고 해조음이다. 구멍의 크기는 처음엔 30cm 가량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사람이 빠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8cm로 줄였다고 한다.

관음보살 자비의 '무한성' 인간의 감각 초월해
불성의 에너지 늘 푸른 버들과 대나무에 비유

'백의관음무설설 남순동자불문문: 흰옷 입은 관음은 말없이 말하고 남순 동자는 들음 없이 듣도다.'

백의관음보살은 중생이 괴로울 때 그 이름을 외우면 곧 자비로써 사람들의 고뇌를 없애고 구원해 주는 자비의 보살이다. 또 구원을 구하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보문시현' 이라고 하고, 나타나는 형태에 따라 천수, 십일면, 여의륜, 준제, 마두 등의 이름이 있는 보살이다. 남순 동자는 관세음보살의 왼쪽에 있는 보처존(補處尊)이다. 백의관음보살과 남순 동자는 입과 귀를 초월한 절대경지에서 '법 아닌 법'을 '들음 없이 듣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 자비의 무한성은 인간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중도와 관용과 사랑'이 숨겨져 있다.

'병상녹양삼제하 암전취죽시방춘: 꽃병위의 버들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꽃병 안에 있는 꽃은 죽어 흘러가는 세월을 온전히 받아 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바위 위에 살아 있는 대나무는 온몸으로 세월을 견디며 산다. 마치 꺾여 죽은 꽃은 세월을 지탱할 수 없지만 살아 있는 식물은 세월을 온전하게 버틴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늘 푸른 대나무의 생명력은 바로 중생 모두에게 내장된 불성인 것이다.

말하자면, 홍련암 주련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은 '말하고 들음이 없는 무상(無相)의 세월 속에서도 백의관음보살은 중생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20

본심이 보고 듣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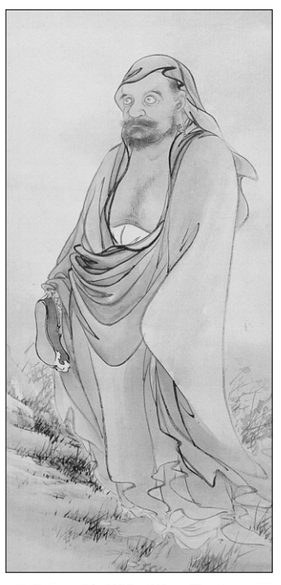
[원문]

若不見性 得成佛道無有是處 有人 撥無因果 熾然作惡業 妄言本空 作惡無過 如此之人 墮無間黑闇地獄 永無出期 若是智人 不應如是見解.

問曰 旣若施爲運動一切時中 皆是本心 色身無常之時 何不見本心 答曰 本心 常現前 汝自不見.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니라. 어떤 사람이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본래 공한 것이어서 나쁜 짓을 해도 허물이 있을 수 없다'고 망언을 하면 이 사람은 무간 지옥이나 흑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느리라."

또 여쭙기를 "그렇다면 분별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본심일 것인데 육신이 죽을 때에는 어찌하여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 스스로 보지를 못할 뿐이니라" 하셨다.


'달마월총령(達摩越蔥嶺)도' (일본 동경예술대 소장)

[해설]

'본성을 보지 못하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은 옳지 못한 생각'이란 말씀은 '선오후수(先悟後修: 먼저 깨닫고 나서 닦음)'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참 뜻을 이해해야만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구할 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음 밖에서 진리를 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달마 스님은 '어떤 사람이 인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며 본래 공한 것이어서 나쁜 짓을 해도 허물이 있을 수 없다고 망언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성품을 보고 무념(無念)의 경지에서 생사(生死)가 끊어지고 무주(無住: 머무는 바 없는)의 행이라 한다면 인과가 끊어지고 허물이 없지만,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막행막식을 하면서 인과도 없고 윤회도 없다고 함부로 말하면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무간(無間) 지옥'은 글자 그대로 고통을 받는 데 쉴 시간이 없는 지옥이란 뜻입니다.

깨닫지 못한 입장에선 인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자리는 인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실상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는 인과는 분명 따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욕을 했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비방을 받는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도 언젠가는 내가 속임을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실상자리를 닦아 나가는 것이 인과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수행자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본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죽을 때는 왜 본심을 볼 수가 없습니까?' 하고 달마 스님께 질문했습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모르기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본심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데 왜 죽을 때에는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라고 묻는 그 놈이 바로 본심일텐데 말입니다. 본심 아닌 것이 없는데, 소의 등에 타고 소를 찾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은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 스스로 보지를 못할 뿐이니라' 하셨습니다. 중생들은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물질은 물질이 아닙니다.

얼음과 물을 따로 보는 것은 중생의 견해입니다. 둘은 본래 하나입니다. 얼음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물이 되고 물이 찬 기운을 만나면 얼음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심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 그대 스스로 보지를 못할 뿐이다'라는 말은 지금 나타나는 모든 물질도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역시 마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결국 물질과 마음은 하나라는 얘깁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법을 만난 겁니다. 이 법을 깨닫기 위해 부처님께서 6년이란 고행(苦行)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법 만나기가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수억 겁의 세월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경> 외우고 <반야심경>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참 뜻을 모르면 불법을 만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물질과 마음이 본래 둘이 아닌 하나'라는 그 도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해오(解悟)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49년이란 긴 시간을 통해 먼저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닦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닦아나가는 수행법을 '선오후수(先悟後修)'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조사선, 여래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심(마음)은 어디에 있고 없는 게 아니라 우주 그대로, 마음으로 되어 있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는 것이기에 모양이 인연을 따라 나타나는 것들도 사실은 역시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 속에서 봤을 때는 진짜였죠? 그러나 깨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이렇게 꿈 속에서 봤던 것이 사실이 아니듯이,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도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욕심, 이것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종사학과(宗師學課) 개설
학 인 모 집
(각 종단 원장급 이상을 모십니다)

종사학과
1. 종 무 행 정 학(宗務行政學)
2. 종사 사위의학(宗師四威儀學)
3. 종 사 풍 광 학(宗師風光學)

〈입학 자격 및 전형〉
① 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각급 원장 이상.
②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서류.
③ 입학전형 : 소속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 증명서 1부
④ 여권사진 : 3매

■ 수강기간 : 1년
■ 개강일시 : 2009년 6월 30일 오전 10시
■ 수강시간 : 매주 화요일 10 –15시(점심공양 제공)
■ 접 수 처 : 031)676-0908 / 010-3100-9977

〈학과 개설 의의〉
1. 본 학림에서는 종사가 지녀야할 종사의 기풍을 선양하고자 함.
2. 종사학은 종사가 지녀야할 선(禪)과 교(敎)와 의식(儀式)행정 등 고도의 법상을 선양하고자 하는데 있음
3. 민족대표 백용성 조사와 봉암대강백의 뜻을 받들고자 함.

龍鳳學林 중앙불교대학원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무한경쟁’을 ‘무한향상’으로 바꾸면 행복

금봉암 주지 고우 스님



선은 얻어지는 것 아니라 없애가는 과정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독립된 것은 없다

“화두 알려는 간절한 마음에 깨닫겠다는 결심 있어야”

초록빛이 온 산천을 물들이고 있다. 봄날의 그 많은 빛깔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것일까? 산수유의 노란빛, 진달래의 자줏빛, 목련의 흰빛, 벚나무의 연분홍빛, 오동의 보랏빛… 연둣빛에서 초록으로 짙어지면서 그 사이사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현란한 빛들에 청복을 누렸던 시간들을 떠올려 본다. 꽃 진 자리가 허전하다. 꽃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했던가. 꽃 진 자리에 열매 맺으니 그 또한 기쁜 일이라지. 꽃 피고 지면서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만, 우리 곁을 떠나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진정 슬픈 일이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금봉암이 자리잡고 있는 문수산은 태백산맥의 한 줄기로 산세가 기운차고 첩첩 준령이다. 고우 스님은 17년간의 각화사 서암의 토굴 생활을 접고 이곳에 터를 잡고 법당과 요사채를 지었다, 단청이 없는 소박한 전통 당우를 보면서 고우 스님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우 스님은 ‘이곳에서는 오로지 법회만을 열고 있는데, 부처님 당시처럼 그렇게 살림을 꾸려보고 싶다’ 고 했다.

고우 스님은 선승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지만, <금강경> <서장> <선요> 강의로 대중들의 인기를 모았다. 어렵고 추상적인 선불교도 스님의 입을 통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조계종 최초로 간화선 수행법을 정리한 책인 <간화선> 발간을 주도하는 등 참선 공부의 저변을 넓히는데 힘쓰고 있다.

선종에서는 ‘교를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捨敎入禪)’ 고 한다. 하지만 고우 스님은 평생 참선수행을 하신 분으로서 교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선수행은 나를 철저히 비워나가는 과정인데 비해 경전을 통한 공부는 무엇을 얻고 채워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교학은 참선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라고 여쭈었더니 고우 스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었다.

“자신이 무아(無我)임을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해 바르게 실천해나간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상관없어요. 아는 것이 곧 지혜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큰 병이 수행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서 깨닫는 것이 불교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바로 수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선(禪)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천천히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비운다든지 없애간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방편인 과정의 이야기이고 깨달음이라는 목적에 가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선과 교 모두가 목표는 깨달음 즉 성불(成佛)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옛 선사들은 과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구경각이 목적인 본래면목(本來面目) 그 자리에서 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목적에 도달한 사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물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더해서 보잖아요. 말하자면 세탁 안 된 상태에서, ‘나’라는 의식의 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는 것입니다.”

세탁이 안 된 상태에서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두고 중생이라 한단다. ‘나’가 있다는 생각이 바로 근본 ‘때’이니 그것을 벗겨야 하는 것이다.

“화두라는 것도 바로 ‘때’가 벗겨지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화두를 제시한 사람은 그 순간에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결코 의심하라고 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화두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려고 노력하다보니 의심을 하게 된 것이고 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화두란 아주 비상한 약이지만 바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신비스러운 비상한 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려고 하는 가운데 의심을 해가는 것입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니 공부에 진척이 없어요. 화두를 받은 순간 깨닫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은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화두를 알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밑바탕에는 깨닫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만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고우 스님은 화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 주었다. 바른 신심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것이란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내용을 한 평생 설법하신 분으로 팔만대장경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모아둔 것이다. 고우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한 마디로 압축한다면 바로 공(空)이라 한다. 공은 곧 무아(無我)이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반야심경>은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으로 시작되잖아요. ‘형상 지어진 것은 유정 · 무정 모두 색(色)인데, 그 색이 공(空)한 것을 알게 된다면 일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온개공’을 생로병사에 대입을 하면 태어나는 것도 공이요, 성장하는 것도 공이요, 늙고 병드는 것도 공이요, 죽음 그 자체가 공입니다. 조사스님들이 즐겨 들던 비유를 하나 들까요? 시골에 가면 가마니, 짚신, 새끼줄, 멍석이 있는데, 모양새는 달라도 그 재료는 전부다 짚으로 되어 있어요. 재료는 하나이지만, 새끼가 되었다가 멍석이 되었다가 가마니가 되었다가 하잖아요. 이 짚이 바로 공(空)입니다. 매순간이 그대로 공이요 무아입니다. 연기(緣起)이기 때문에 공이요, 무아인 것입니다.”

고우 스님은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것은 연기로써 존재하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 연기를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존재원리를 이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내가 본래의 그 자리, ‘본래부처’임을 알게 된다고 했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내가 있다’는 착각을 깨고 ‘본래 부처’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란다.

연기법이 거창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홀로 독립된 것은 없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고우 스님은 “우리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원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원자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라 했다. 물론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되어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를 세분화하면 쿼크인데, 쿼크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조분의 1이다. 그 전까지는 쿼크가 모든 물체를 이루는 최소단위라 여겼다. 하지만 최근에 질량화 되어 있지 않은 힉스가 있다는 가설을 세워놓고 빅뱅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힉스를 ‘신의 입자’라고 부른다. 고우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 · 법성이 힉스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처님이 발견한 공 · 무아 · 자성 · 법성 등을 현대 물리학이 하나하나씩 증명해가고 있어 참 다행한 일’이라 했다. 공과 연기법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말씀을 이어갔다.

“공에 대해서 백퍼센트 체험을 못한다 하더라도 신념화만 되어도 인생이 많이 달라져요. 경전 독송, 참선, 염불, 봉사 등 여러 가지 수행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행하는 그 과정이 자신을 비워나가는 수행입니다. 공에 대한 이해가 신념화만 되어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확신해요.”

고우 스님의 얼굴에 항상 웃음과 편안함이 가득한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머무는 바 없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여유와 화평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고우 스님은 젊은 날에 폐결핵을 치유하기 위해 잠시 절에 머물렀다. 그때 절에 머물면서 불교를 알게 되었고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출가했다. 출가를 하고 나서야 자신이 왜 폐결핵을 앓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단다.

고우 스님은 우리 사회는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지만, 무한경쟁은 욕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철저히 ‘내가 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이 욕망은 때로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해치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사회는 피곤한 사회라고 일침을 가했다.

“무한경쟁이 ‘무한향상’으로 생각이 바뀌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됩니다. 무한경쟁은 욕망에서 출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

고우 스님은…

1937년 성주출생. 1961년 청암사 수도암에서 법희 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응 스님으로부터 <기신론>을, 고봉 스님으로부터 <금강경>을, 흔해 스님으로부터 <원각경>을 수학했다. 봉암사,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등의 제방선원에서 평생을 참선수행으로 일관했다. 1968년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종립특별선원의 기틀을 마련. 전국 선원 수좌회 공동 대표 역임. 각화사 태백선원장 역임. 지금은 조계종 원로의원이며, 문수산 금봉암에 주석.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아주 특별한 선물 유기농 보이차 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숙차 357g + 대나무보관통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한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와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용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고가품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석 후진타오도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용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용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용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전화주문 : 02)2004-8215~6

■ 유기농 보이차 숙차
· 제 품 명 : 유기농보이차 숙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홍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찻잎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훌륭한 보이차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불교온라인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 제 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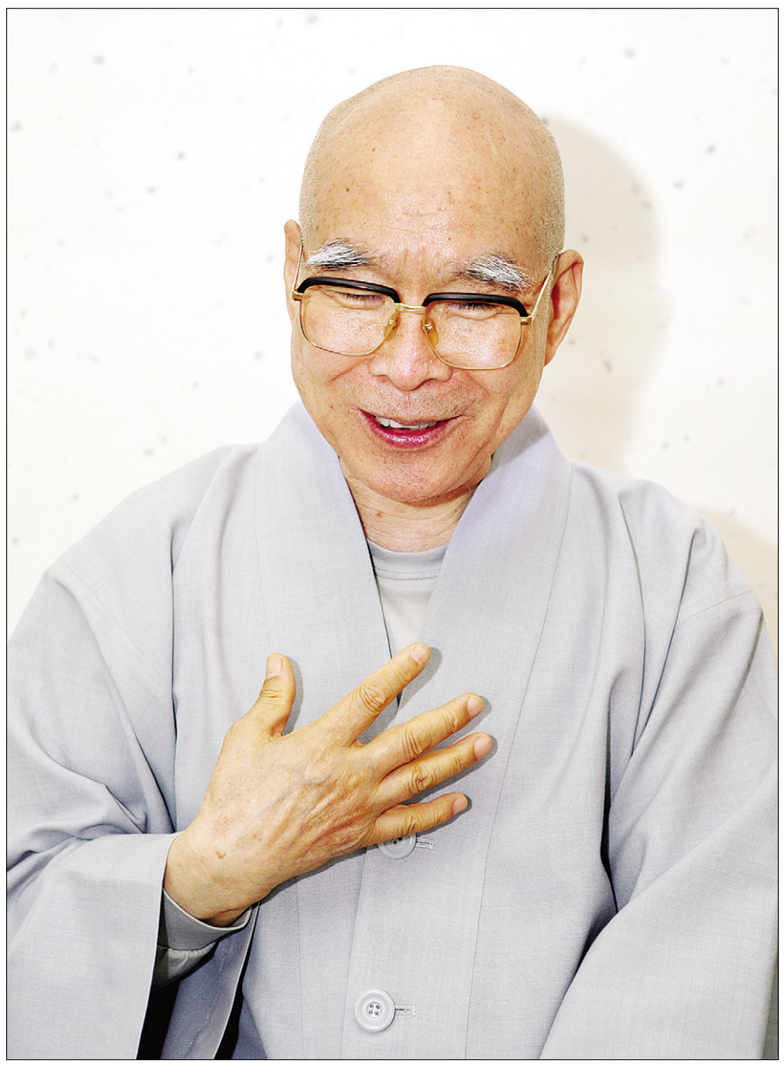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 기업입니다.
사찰 및 불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양초 문의시 성실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용 양초 – 밀납, 약쑥, 식물성 양초
◇장엄용 양초 – 야광, 용초, 호랑이,
봉황(7∮ × 35㎝)
◇육각초 – 7.5∮ × 45㎝ (적색,핑크,노랑,연두,주황,백색)

[문의] 우창산업(삼환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소통부재 사회 매우 위험



게 되고, 수천수만 직업인들이 돈만 쳐다보고 일하고 경쟁하도록끔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무한향상'이 되면 자신의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보면 존경을 받게 되어요.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일한다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 돈과 명예입니다. 이 정당한 명예는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지요. 무한경쟁은 돈과 명예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역기능이 더 많아요."

고우 스님은 '국왕 대신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면 천한 사람'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도층이 국민을 괴롭히면 더 천한 사람'이라 했다. 그리고 고우 스님은 소통이란 쌍방 소통이 되어야지 일방적인 소통은 소통이 아니라면서 소통부재의 사회는 위험하고 소란스러운 사회라고 꼬집었다.

"상대방에게 '나를 이해하고 따라주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은 일방소통인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적극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풀려고 하는 자세가 쌍방소통인 것이지. 무지(無智)에서 지혜로 바뀌면 형상은 남녀, 빈부, 귀천 등 차별이 있지만 본질에 가서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정하여 쌍방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툴 일도 갈등할 일도, 전쟁할 일도 없어요. 진보와 보수는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제도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님을 알아야 해요. 불교만이 종교 전쟁을 하지 않은 세계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고우 스님은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이 정견이며 정견을 바탕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전재로 하여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행을 거꾸로 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추구한 만큼 행복하지 못한 연유는 어디 있는 것인지 여쭈었다.

"사람들은 눈으로, 귀로, 혀로, 몸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구박하며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쁘다 좋다' 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만드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일은 다가온다기보다는 자신이 만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가 있어 비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좋고 나쁜 일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가 있다는 집착 속에서 살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좋은 일에 끄달리고, 나쁜 경계가 나타나면 나쁜 경계에 끄달려 속상해 합니다. '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으면 좋아하여 취하려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싫어하고 배척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없애고 무지한 사람은 경계를 없애려 합니다."

빈부(貧富), 귀천(貴賤), 고저(高低), 상하(上下) 등 이런 경계를 없애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우 스님은 도리어 "무지한 사람은 경계를 없앤다"고 하니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천수만 가지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경계를 다 없애려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하지만 나를 없앤다면 경계를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아(無我)가 된다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각각 다른 수많은 경계들은 지혜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선종에서는 중생과 부처로 나누지 않고 일체 모든 것을 부처로 봅니다. 이분법으로 사고한다면 부처가 되는 길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무아가 된다면 일체 모든 것이 부처 하나로만 보인다고 했다. 무아가 되면 지금 사고하는 것이 지혜로 바뀌게 되니 매사(每事)가 좋은 일로 다가오고, 매일(每日)이 좋은 날로 되는 것이란다. 이렇게 되면 절로 행복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래서 고우스님은 무아(無我)를 신념화하라고 일러주시는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고우 스님의 한유로움을 카메라에 담고 싶어 마당에 내려섰다. 몸피가 큰 개들이 짖지도 않고 긴 꼬리를 시계추처럼 흔들고 있다. 반가워하는 개의 몸짓은 충분히 알겠지만 무서워서 걸음을 뗄 수 없었다. 순한 개라고 하지만, 마음속의 견고한 공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공포심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에 누구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지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들은 객을 환대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렇지 못하니 개와 객은 소통부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것이 개의 본성이건만, 이곳 금봉암의 개들은 낯선 사람을 봐도 짖지 않듯이, 무심도인의 그늘에서 살면 날카로운 자는 둥글어지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워지고, 공격적인 자는 자애로워 지는 것임을 실감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8. 범산 김법린 선생



범산 김법린(梵山 金法麟, 1899~ 1964) 스님의 필명은 철아(鐵啞)이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14세에 동래 범어사에 출가해 17세에 비구계를 받았으며, 3·1운동 당시에는 불교계 영남대표로 활약해 몇 번이나 감옥살이를 하였다. 1921년 프랑스로 유학가 1926년 파리대학 철학과를 나오고, 1929년 백성욱, 김상호 스님과 함께 조선불교 선교양종 승려대회를 열어 종헌 종법을 제정하고 불교혁신운동에 앞장섰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받들어 만당(卍黨)을 조직하고 쫓겨 다니다가 1930년 일본 고자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선청년동맹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강행하고, 또 국내에 나와서는 다솔사, 해인사, 범어사 등지에서 강의를 하면서 10여년간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다가 두 번씩이나 주지) 정원 스님과 일본 대학 동기가 돼서 울 미아리 우거에서 주무시고 나면 언제나 동국대 총장님을 뵙고 갔다. 만나면, "공부 잘 하고 있는가. 그때(선거 때)는 내가 미안했어. 완당 선생 병풍 하나 팔아서 선거운동을 했었거든.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어학에 능통해야 된다. 열심히 하게."

1964년, 66세의 나이로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와 불교를 잊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어학공부를 소홀이 해 지금도 어학이 시원치 않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불교와 국가는 둘이 될 수 없다. 불교가 망하면 국가도 망하고, 불교가 흥하면 국가도 흥한다. 불교의 목적은 중생구제와 불국토 건설에 있는데, 백성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라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범산 스님께서 동국대 총장시 학생의 신분으로 있었으므로 늘 아드님을 통해서 소식을 묻고, 총장을 그만두고 떠나실 때에는 나에게 <일본사기> 상하 양권을 주어 지금도 가지고 있다. 평범한 키에 통통한 몸매를 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주로 매시기 때문에 얼굴이 더욱 둥글게 보였다. 정원 스님을 만나면 얼싸 않고 일본 유학시절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정원 스님은 이 인연으로 지리산 서제에까지 나를 초청해 여름 방학동안 천은사에 내려가 스님의 서제를 구경한 일이 있다.

정원 스님은 출가 후 일생을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일기를 썼는데, 깨알같이 쓴 일기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로 많았다. 년도별로 되어 일본에 있을 때 일기를 꺼내 보여주셨는데, 김법린 선생과는 한방에 살면서 아주 절친한 처지에 있었다. 김잉석 박사님도 같은 학교에 후배로 유학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왜정 때 같으면 첩자의 증거물이 되기 십상이었다.

정원 스님은 범산 총장께서 호텔을 정해주어도 가시지 않고 미아리 고등공민학교 기숙사에서 아드님과 함께 지내며 후배들을 위해 격려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우리 말을 지키기로 해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키게 됐고, 우리 글을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그리하면 불교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곳곳에서 야학을 하고 횃불을 들

3·1운동 불교계 영남대표로 활약… 동대총장 등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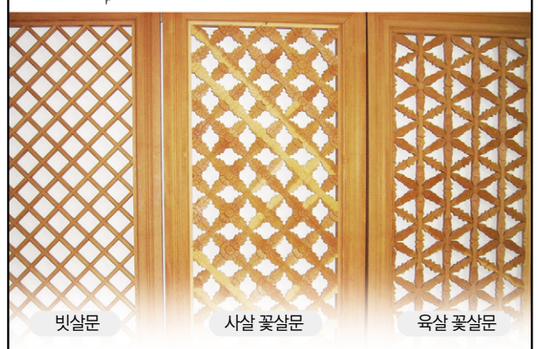
옥고를 치뤘다.

1945년 해방 후로는 불교중앙총무원장으로 불교혁신운동에 앞장섰으며,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미군정청장관 하지 중장을 만나 일본 사찰을 불교계에 인수해 줄 것을 간청했다. 그리하여 1947년 동국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1952년 문교부 장관이 됐으며, 195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장이 됐다가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됐다. 1959년 원자력 원장을 역임하고, 1962년 동국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동대총장에 취임했다.

3·15선거 후 양원제가 실시되자, 경상남도 대표로 출마해 고전 중에 있을 때 고성 보광사 주지 포광 스님의 안내로 찬조연설을 부탁해 보름동안 경남 일대(고성 사천 삼천포 통영)를 돌아다니며 함께 고생한 일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학교 동기 김유길 선생의 아버지(당시 천은사고 봉기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즈음은 먹고 살기가 편해져서 그런지, 빼앗긴 땅을 찾아서 그런지, 젊은 학생들의 패기 속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나라 말 바르게 읽는 사람들이 적어지니 불교 또한 쇠미해질 수밖에 없지. 자네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 다시 나눠 주고 있으니 고마워 다른 곳은 가고 싶지 않아. 방학 때가 되면 반드시 나려와 지리산 바람도 쏘이고 옛 절터도 살펴보게."

이것이 정원 스님의 마지막 법문이다. 연초록 두루마기 자락이 바람에 약간 펄렁이면 그 속에서 춤을 추던 동전 주머니가 아련히 보이고, 거기서 한 푼씩 꺼내 용돈을 주시던 모습, 잊혀 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리산에 갔다가 화장실에 가니 무엇이 화장실 바닥에서 씩씩거리고 나와 놀라서 변도 보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한 지리산 똥돼지였다.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빗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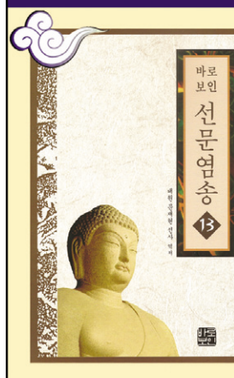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

성장하는 경제규모 속에서 '참된 자신' 찾아야

자기중심적인 아집은 '고(苦)'와 '분쟁'의 원인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goods)가 생산돼(공급) 구매(수요)와 그것들이 되풀이(순환)되고 혹은 그 규모가 늘어나는(성장) 구조에 관해 많은 연구를 축적해나가면서 관련된 법칙을 찾아내는 데에 주력했다. 그 때문에 선진국들은 역사상 미증유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려왔고 그러한 사회에서는 안정과 진보가 양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경제성장을 무한히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국민들은 물질적 부(富)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제발전의 이면을 보자면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무모한 자원의 낭비로 이어져 지구환경의 자연적 순환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북돋우어, 죽을 때까지 끝없는 탐욕 즉, 돈(money)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풍요로워졌어도 사람들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는다. 행복하기는커녕, 정신은 점점 불안해지고 생활은 오히려 불행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가 물질적인 탐욕 일변도의 경주마가 되는 방법만 가르치고, 의사가 병자에 대한 헌신을 벗어나 진료수가의 계리사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이란 관념은 직업적 사명 속에서 진실된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된다. 이야말로 경제생활의 양면성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돈 = 경제'에만 삶의 목표가 전부인 양 매진해온 성을 놓쳐버린 그런 경향에 문제의식을 던진 사람으로 독일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E. F. 슈마허가 있다. 슈마허는 1973년 <Small is Beautiful(작은 것이 아름답다)>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금세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서로 출간된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 반응은 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첫째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선진문명권에서는 경제규모가 지나치게 성장해 본래 경제를 리드해야 할 철학 내지 세계관이라 할 것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세계관이 살아 있는 때에 사람들은 마음이 풍요로운 '전인(全人)'이 될 수 있으나 세계관과 가치관이 혼미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불행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슈마허는 전인적 가치의 핵심으로서의 '불교 사상의 경제학'을 강조하면서 '불교적 문명'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불교적 문명관의 핵심이란 무엇일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하는 본능이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我執; ego의 마음)'이라 부른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죄'의 개념과도 유사하다. 그 자기중심적(이기적)인 '아집'이야말로 삶의 '고(苦)'와 '분쟁(trouble)'의 원인이 된다. 그 '아집'으로부터 해방된 경지를 '열반(니르바나)'이라고 하여 불교사상의 요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오직 부처만이 곧 참'이라는 것, '부처'야말로 삶의 이상적 경지, 즉 '니르바나'이며 불교적 실천행(行)의 목표인 것이다.



그림 · 김필헌

인간의 '아집'은 대뇌가 발달해 말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화(물건)를 가지게 된 때부터 시작된다. <성서>의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지혜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의 몸이 아닌 또 하나의 다른 몸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육체와 비교해 보았다. 자신의 것을 '나'라고 이름 붙이고, '나가 아닌 것'과 구별한 때부터 '아집'이 발동된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의 개체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때, 이 '나'라는 것은 빠뜨릴 수 없는 핵심이 된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있는 물체 즉 모든 생물은 공존하고 있다. 결국 '나'를 포함한 인간은 그 전체적인 생명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태양과 공기 그리고 물이 그저 존재하는 곳에 인간의 삶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애 짐승이다' '먹을거리다' 하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 그 짐승을 뒤쫓아 가서 붙잡아 그 살코기를 먹거리로 삼는데서 인간은 '나'의 힘으로 먹거리를 손에 넣고 '나'의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이 원시 수렵경제로 결국 '경제'의 시작인 것이다.

수렵민족인 기독교도와 농경민족인 불교도에서는 '나'의 힘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있다. 수렵민족은 자기가 잡고 싶은 짐승은 스스로 포획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목재는 자기 힘으로 벌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뜻하는 대로 욕망을 추구하고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생활방식이라고 굳게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농경민족은 어떻게든 우주 자연의 힘이며 천지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벼나 보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자연의 힘, 천지의 혜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경민족은 '나'라고 칭하는 자기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잘 알게 된다. 뜻한 바대로 하고 싶어도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농경민족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산스크리트에서 '뜻하는 바대로 안 된다'는 것이 '고(苦)'라는 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농경민족의 종교인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은 고해(苦海)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러한 의미다. 그렇다면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뜻하는 대로 무한히 하고픈 마음(탐욕)'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뜻하는 대로 하고픈 마음' 즉 욕망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경지'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열반'이라는 불교의 이성적 경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실로 명쾌하고 간단하지만,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나'라는 것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아집'은 깊고,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야 만다는 집착과 탐욕, 망상이 마음의 저변에 있는 '아집(이기심)'을 끊임없이 북돋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경제생활'의 문제인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존중의 리더십은 '신뢰와 신뢰성' 갖춰야

② 리더십의 원천

남편이 열을 올리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재미 없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아내들에게 물어보면 "군대 가서 축구 한 이야기"라고 한다. 열 올려 침 튀겨 가며 하는 얘기이지만, 정작 공감적 체험이 없는 아내들에게는 그처럼 우스꽝스럽고 지루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선착순' '앉아 번호' '동작 봐라!' 등의 구호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웠던 남편들에게 리더십의 원천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응당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그 원천 중 하나라고 입을 모을 것이다.

리더십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구성원(Follower)의 성과도 의당 이와 같은 법칙을 따른다. 피난국민학교 시절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 다녔던 서당에서, 회초리 맞아 가며 뜻도 모르고 외우던 <천자문>. 그 별칭인 <백수문(白首文)>의 유래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 양(梁)나라 임금이 당시 천재로 명성이 자자하던 주흥사(周興嗣)를 잡아들여 가두고는 명했다는 것이다. "오늘 밤 안으로 일천 글자[千字]를 사용해 사언시(四言詩)를 짓되 단 한 자(字)라도 중복이 있으면 너는 죽은 목숨이로다." 불후(不朽)의 명문(名文)인 천자문 250수(首)는 그런 강압적 환경 아래 써졌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그 하룻밤 사이에 젊은 주흥사의 머리가 호호백발이 돼버렸다 해 백수문(白首文)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

폭력에 뿌리를 둔 리더십이 뛰어난 성과를 이룬 예라 하겠다.

여의도에 출퇴근하던 직장 시절, 늘 주변이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사무실이 국회, 정당 사무실 부근에 위치했던 까닭이컸다. 이 다양하고 분주한, 때로는 투쟁적인 목소리들을 모으고, 이끄는 리더십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이념, 국가관, 정의, 애국심 등이 주축이 되는 동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 표피를 한 꺼풀만 벗기고 보아도 거기에는 치밀한 이해관계의 그물이 보였던 것이 기억난다. 이러한 리더십 네트워크 구조가 꼭 정치가, 정상배(政商輩)들의 전유물만도 아니었던 것이 '김밥 말기' [손 비비어 아첨하는 모양을 흉내낸 말]에 손금이 다 없어져버렸다는 말이 유행하던 곳이 다름 아닌 우리 모두가 목숨 걸던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폭력과 이해관계를 리더십의 원천으로 보는 하나의 분명한 시각이다.

이처럼 일차원적 함수관계를 가지고 폭력이 작용하면 리더십이 생겨난다거나,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리더십이 소멸한다거나 하는 즉물적 현상과는 차원을 달리해 오래가는 리더십이 또 하나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바 신뢰와 존중의 리더십이라 부르는 것인데, 그 원천이 되는 키워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신뢰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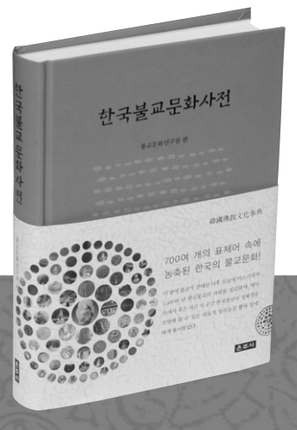
신뢰의 리더십이란 신뢰성을 스스로 갖춘 사람에게서만 생겨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신뢰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갖춰지는 것일까? 리더십 교과서에서는 '좋은 성품'과 '탁월한 역량'을 동시에 갖출 때 신뢰성이 형성된다고 해, 필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스스로를 돌아본 일이 있었다. 더 풀어서 좋은 성품으로는 성실성(Integrity), 성숙성(Maturity), 풍요의 심리(Abundance Mentality)를 들기도 하고, 탁월한 역량으로서 기술(또는 기능)적 능력, 개념화 능력, 창의력 등을 거론하기도 한다.

현실의 장(場)에서는 원천이 다른 리더십의 여러 형태가 섞여 작용해 리더와 구성원의 자기기만과 엉키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좋은 코치의 역할은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 고객이 스스로 신뢰성을 갖춰 나가도록 도와 주는 일이다.

영어로는 신뢰를 'Trust'라는 단어로 표현하나, 순수한 우리말로는 '믿음'이 좋은 말이다. 예컨대 기독교에서는 'Trust [in God]' 'Belief' 또는 'Faith'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나, 불교에서는 오직 바로 보고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유래하는 확신, 'Confidence'와 'Conviction'을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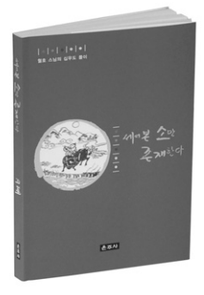
손 안에 쥔 보석의 비유를 사용하여, 주먹을 쥔 채 그 있음을 믿으라 하느냐, 손을 펴서 보석을 보여 주어 그 있음을 알게 하느냐의 차이를 밝힌 옛 빨리(Pali) 경전의 인용구가 불자 리더십의 원천과 접철돼 문득 생각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알쏭달쏭 불교문화가 한 손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조망해 볼 수 있는 700여 개의 표제어
일반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불교문화 안내서
우리나라 국민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유·무형의 불교문화에 대해 짧으면서도 평이한 설명을 하여, 일반 대중들이 불교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불교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불교의 역사, 인물, 전통, 사찰, 건축, 회화, 조각, 공예, 경론, 의식, 수행생활, 불교용어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14명의 해당 부문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 최초의 불교문화사전이다.
부록에는 대표적 불교문화재, 즉 불상, 보살상, 사천왕상, 전각, 탑, 범종, 석등, 부도, 당간 등에 대한 도해를 수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편/국판변형양장/508쪽/25,000원
한국불교문화사전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편집 (02) 926-8361, 영업 (02) 3672-7181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본마음 참나의 불성 자리를 찾아서
월호 스님의 십우도 풀이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참선의 단계를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이한 참선과 행불수행의 길잡이!
나는 지금 수행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수행의 목표는 무엇인지? 등등, 마음공부의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수행에 더욱 정진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십우도는 참선수행의 드넓은 바다에서 현 위치와 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다.
국판/컬러/208쪽/9,000원

다양한 수행법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풀이
수행문답

현장에서 수행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기본 개념, 수행의 방식, 각 수행법의 요체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법보신문사 엮음/신국판/424쪽/17,000원

‘좋은 것은 지나봐야 안다’는 말씀 가슴에 남아



대연 거사는 현각 거사에게 편지를 돌려주고는 마루에서 일어났다. 영감사 스님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다. 문고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스님이 멀리 출타한 것도 같았다. 현각 거사가 뒤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상원사로 가시죠. 우리 스님께서 한암 큰스님 회상에서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남호암골 산길을 이용하여 내려갔다. 승용차를 상원사 가는 길가에 주차해 놓고 사고로 올라왔던 것이다.

“현각 거사님이 큰스님의 편지를 보여주었으니 저도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주겠습니다.”

대연 거사는 현각 거사에게 추사 김정희가 사고에 들렀다는 얘기를 했다. 김정희가 예문관 검열의 관직에 있을 때였다. 그 무렵 김정희는 포사관(曝史官)이 되어 오대산 사고를 들렀던 것이다. 포사관이란 사고를 점검하고 사고에 봉안된 실록을 꺼내 햇볕을 쬐며 거풍(擧風)시키는 소임의 관리를 일컬었다.

대연 거사는 김정희의 〈포사를 위해 오대산을 오르다(曝史登五臺山)〉이란 시를 떠올리며 얘기했다. 특히 그 시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법운(法雲; 부처)은 사고 밖을 지켜주고, 선(仙; 산신령)은 사고를 밝게 빛나게 한다’라는 구절이었다. 유가의 선비지만 불가와 도가를 넘나드는 그의 넓고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다 내려와 승용차를 타려고 했을 때 좀 전에 보았던 대학생들을 다시 만났다. 그들은 바위에 앉아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현각 거사가 웃으며 말했다.

“아마 저 대학생들 나이쯤에 아내를 만나 환속했던 것 같습니다. 큰 번뇌랄 것도 없이 그냥 순진하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현각 거사는 그때의 결정을 실수로 생각하지는 않는 듯했다. 젊은 나이에 가질 수 있는 이성과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다는 투로 이야기했다.

“진주 남강 가에 호국사가 있습니다. 26살 때 저는 거기서 학생회와 청년회 지도법사로 있었습니다. 혜암 스님 이상으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 충만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학생회와 청년회 지도법사를 학생들은 하계수련대회를 못하고 돌아갔고요.

저에게는 실망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봉스님이 원당암 원주 소임을 정묵스님에게 넘겨주었던 때입니다. 제가 해인사를 떠나려고 큰스님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자 다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새삼스럽게 제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물여섯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적은 나이가 아니구나’라고 말씀하시더니 ‘좋은 것은 지나봐야 안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홀하고 행복한 날이었으니까요. 제가 해인사를 나온 뒤, 들리는 얘기로는 큰스님께서 많이 마음 아파했다고 합니다.”

현각 거사가 얘기하는 동안 남학생이 손짓으로 인사했다. 대연 거사도 손을 들어 답례했다.

“좋은 것은 지나봐야 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 대학생들도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절인 줄 아마도 모를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합니다만 학생회 지도법사로서 대학생들과 토론하고 고뇌하던 그 시절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신도들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는 젊은 열정과 큰스님 이상으로 공부하겠다는 결의도 충만해 있었으니까요.”

“교무 스님과 티격태격 한 것이 해인사를 떠나게 된 계기가 됐군요.”

“아닙니다. 비록 교무 스님이 신발을 벗어 내 머리에 던졌지만 곧 화해를 했습니다. 스님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규율부장 스님이 고지식하게 혜암 스님 상좌니까 버릇을 잡아야 한다고 찰중스님과 합세하는 바람에 큰절에서 원당암으로 물러났다가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규율부장 스님도 환속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원당암을 나온 이후 큰스님을 뵙지 못했습니까.”

“입적하시기 전 큰스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문병을 가곤 했습니다.”

“속가 조카로 보았겠군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큰스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마다 속가 식구들이 생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큰스님께서 ‘내가 평생 살생각도 그랬고 현각 거사도 종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대연 거사가 종각의 안내문을 읽고 있는데, 현각 거사가 말했다.

“큰스님께서는 해인사에서 행자생활을 하신 뒤 사미계를 받고 나서 상원사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 한암 조실 스님께서 스님에게 아침저녁으로 종을 치는 종두라는 소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진주 호국사 신도들이 존경하고 참 잘 사셨는데 뜻하지 않게 물러나 장흥 천관사로 가시어 병사하셨습니다. 입적 안팎의 그 모습도 참 수행자다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굴 규모의 천관사에 든 무일 스님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의 진단은 간암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 내색 없이 토굴로 돌아와 약도 복용하지 않고 정진을 계속했다고 한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참선하는 혜암 스님의 가풍을 따라 수행하다가 입적 3일 전부터는 방에 불도 때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여 겨우 물만 넘기다가 광주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스님 암 환자 맞습니까” 하고 놀랐다고 한다. 스님은 말기 암환자 같지 않게 입에서 냄새도 안 나고 얼굴이 깔깔하고 맑았던 것이다.

스님은 입적하기 전에 송광사 영선스님 앞으로 유서를 썼다. 송광사와 무슨 인연이 있는지 유해를 화장한 후 조계산에 뿌리고 송광사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달라고 했다.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영선스님은 유해를 운구해 와 다비한 뒤, 스님의 유언대로 재를 조계산에 뿌렸다. 사십구재는 원당암의 원각스님과 각안스님이 송광사로 와 송광사 스님들과 함께 지내주었다.

“좋은 분이기도 하고 진정한 수행자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행자의 본분은 숨을 거둘 때까지 일하고 참선하고 스스로 불 때고 밥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스님이 바로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인 무일 스님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대연 거사는 산죽이 무성한 염불암 가는 오르막 산길에서 잠시 쉬었다. 죽음을 앞두고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다한 무일 스님 얘기에 가슴이 먹먹해서였다. <계속>



그림 · 최문정

상원사서 종두소임
화두일념에 빠져
종소리 고르지 않자
“참으로 공부하는 납자”
한암스님이 칭찬해

속가 부모님 어렵게 살았지만 물질적 도움 주지않아
“수행자가 되어 공부하는 것이야 말로 영원한 효도”

하다 보니 회원들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 했습니다. 진주간호전문대에 다니는 한 여대생의 일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 여대생이 절에 왔는데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여대생을 자상하게 위로해주었지요. 이후 그 여대생은 저를 따르게 되었는데, 저는 반대로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 ‘네가 좋아한 건 내가 아닐 것이다. 너는 스님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니 갈 길로 가야 한다.’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대생이 항변하는 겁니다. ‘스님은 진짜 이기주의자이시고 보살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 여대생에게 ‘그래 나 이기주의자 맞다. 그러나 이타주의자이기도 하다’고 말하고는 그날 저녁예불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머리가 무거워졌지요. 예불 마치고 나와 머리도 식힐 겸 산책하려고 했는데 그때 지금의 집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손잡고 산책한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진양호까지 계속 걸었지요. 손잡아 준 것이 미안해서 손 씻어 준다고 또 손을 잡다 보니 부부의 인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호국사를 떠나 해인사로 갔습니다. 강원을 네 번째 간 셈이었습니다. 강원생활을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주 학생들이 하계수련대회를 왔습니다. 학생들이 나를 찾아와 원당암에서 숙식하고 큰 법당 저녁예불에 참석할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큰절 교무 스님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갔지만 ‘안 된다, 그 이유를 대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교무 스님이 나에게 고무신을 벗어 던진 탓에 부끄럽게도 몸싸움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명진스님의 상좌였던 규율부장 스님은 ‘혜암 스님 상좌라서 그랬을 것이라고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찰중 소임의 스님도 강원생활을 못하게 막아서 원당암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진주면서 속가 피붙이들을 돌봐주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피붙이들에게 법문이라도 해주어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속가 부모님이 저 세상에서 잘 계시는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어렵게 사시는 것을 알면서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한 사실을 두고, 물질로 하는 효도는 죽었을 때 끝나지만 수행자가 되어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효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상원사로 올라갔다. 산길은 한산했다. 등산복 차림의 사내들이 가끔 보일 뿐 오가는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차창을 열자 오대천 개울물 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아주 큰 천은 아니지만 바위를 부딪치며 흐르는 계곡물은 거침이 없었다.

상원사는 승용차로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사고 입구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는데도 자못 멀게 느껴진 것은 그만큼 숲이 울창하고 깊은 산중이기 때문이었다. 상원사 주차장에 도착해서 현각 거사가 다시 얘기를 했다. 좀 전에 미처 하지 못한 얘기였다.

“날마다 큰스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금생에는 잠깐 큰스님을 뵀지만 정성을 많이 하면 내생에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많이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큰스님이 주신 화두를 놓치지 않고 큰스님을 기린다는 얘깁니다.”

“진주 수미산에 혜암 스님 기념관을 짓는 것도 정성을 들이는 일입니까.”

“물론입니다.”

계곡물이 합수가 되는 주차장 쪽에서 왼편으로 조금 오르자 상원사로 오르는 계단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상원사는 월정사보다 법당도 작고 경내도 좁았다.

두 사람은 절 깊숙이 들어갔다가 선방 입구에서 돌아섰다. 유독 종각이 눈길을 끌었다. 대연 거사의

현각 거사의 얘기는 혜암 스님의 공식적인 행장에도 분명하게 나오는 사실이었다. 혜암 스님은 그 무렵 한암 조실 스님을 찾아 종두 소임을 보며 봄철 안거를 났던 것이다. 단순히 안거를 난 것이 아니라 한암 조실 스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혜암 스님이 화두일념에 들어 종을 고르게 치지 못하였으나 한암 조실 스님은 ‘저 수좌가 참으로 공부하는 납자다’라고 크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한암 조실 스님의 격려는 혜암 스님이 오대산을 자주 찾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혜암 스님은 오대산의 산내암자와 설악산 오세암, 그리고 태백산 동암 등을 오가며 무소의 뿔처럼 30대를 보냈던 것이다.

대연 거사는 종각 안의 범종으로부터 눈을 떼지 못했다. 범종은 혜암 스님의 체구처럼 단아하고 작았다. 그제야 대연 거사는 범종을 향해서 합장했다. 범종의 모양이나 겉에 그려진 비천상이나 용두 등도 빼어났다. 도자기를 만드는 대연 거사는 안내문을 꼼꼼히 읽지 않고서도 범종이 비범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상원사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화두일념에 들었던 큰스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대연 거사는 화제를 돌렸다.

“현각 거사님이 검정고시를 서울 화곡동 관음정사에서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관음정사 주지 무일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갑자기 그분이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원사를 나와 염불암으로 가는 산길을 걸었다. 염불암은 상원사 오대(五臺) 중 서대에 해당되는 암자였다.

“지금은 안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21 · 끝>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라

(734호에 이어)1.먼저 자리 잡기: 벽돌을 제자리에 놓아야 하듯이 자기 자신을 불제자로 만드는 훈련을 쌓아야한다. 그 방법으로서는 평상시의 생활 속에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불보살님의 명호를 한 번이나 세 번 식만 찾는 공부를 오래 지속하여, 꿈에도 그렇게 하기까지 지속해야 한다.

2.줄 맞추기: 이미 놓은 벽돌이 가로세로 줄이 맞는가를 살피듯이 가족, 국가, 교단,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다해야 한다. 이 공부에 힘을 얻으면 상당한 힘이 생긴다.

3. 뒷손질하기 ; 벽돌 쌓기가 끝났으면 도장(塗裝)을 한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나아가서는 품삯을 받아야하는 것처럼 회향(?向)을 해야 한다. 이 회향이란 잘 끝낸다는 뜻이니, 주변에서 좋은 일을 찾아 남모르게 도와주는 선행(善行)을 쌓아야 한다.

하사비군(何事非君)

내가 작년 7월부터 이 난(欄)을 맡아 글을 올리기 시작하여 어언 20회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말씀을 쓰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불법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봉지(奉持)할 것이며, 교단의 앞날을 위해 나도 응분(應分)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발원해 주시기 바란다.

그간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 스스로가 그 말씀에 따라 스스로가 달라져야 운명도 바뀐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다시 말해 철저히 자업자득의 철학이 불교라는 것이다. 이미 지은 악업은 참회하여 녹이고, 새로 만난 악연은 지속시키지 말고, 앞으로 생길 악연은 미연에 멀리하여 악업을 보태지 않으면 복은 저절로 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개인이 그렇듯이 단체나 국가나 내지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유정들의 업으로 국토의 염정(染淨)과 개인의 행불행(幸不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 밖에 창조주(創造主)가 달리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럼으로 우리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종단에 대하여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매사에 부처님의 말씀인 정법에 순응해야겠다는 신념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자신을 관리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되 항상 부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는가를 살피는 정진을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오매일여(寤寐一如)의 정신, 즉 자나깨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는 수행인이 되어야 한다. 망설이고 기회를 살피면 이미 틀렸다.

하사비군(何事非君)이란 고어(古語)가 있다. 이는 고대 중국의 탕왕(湯王)이 혁명을 일으키자 백성들이 한결같이 "어찌 그릇된 임금을 섬기겠는가." 하면서 모두 걸왕(傑王)을 버리고 귀부(歸附)했다는 낱말이다. 국치(國恥) 때, 어느 친일(親日)대신(大臣)은 문건(文件)에다 이렇게 사인하고, 반일측(反日側) 대신들에게는 고전(古典) 그대로가 자기의 뜻이었다고 설명하고, 친일측(親日側) 대신들에게는 "어느 쪽을 섬긴들 임금이 아니겠느냐"는 뜻이었다 하여 양쪽을 모두 안심시켰다가 표결(表決) 때엔 친일(親日) 쪽으로 손을 들어 나라를 망치게 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정견이 없는 이가 양다리걸치기처신을 한다면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망친다는 하나의 교훈이다.

우리들의 신심(信心)에도 이런 요소는 없는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 연재에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독자님들에게 감사하고, 이 인연으로 함께 정토에 태어날 연(緣)이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겠다는 염원이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불교는 '자업자득' 의 철학, 악업 짓지 않기 발원해야

'정법에 순응' 신념 필요… 인간 밖에 창조주 없어

목숨 걸고 간 인도에서 가져 온 것들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 불교문화의 전래과정 총망라

불교가 처음 전래된 이후 중국 사람들에게 인도는 어떤 곳이었을까? 적어도 당시 스님들에게 인도는 부처님의 발자취가 선명한 땅, 무궁한 가르침의 기록(경전)들이 있는 곳으로 동경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삼장법사 현장과 법현 의정 그리고 신라 스님 혜초는 '동경의 땅' 인도를 직접 순례했다. 귀국 후에는 역경작업을 했고 그 결과 불교의 동점(東漸)에 가속이 붙었다.

기록으로 전하는 구법승의 수는 170여명이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는 700여명이나 된다. 이 유학파 엘리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넘고 텐산 산맥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네팔 등의 척박한 지대를 거쳐 인도 땅을 밟았다. 살아 돌아올 확률이 10%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꾸준히 떠났다. 구법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여행이었다.

구법승을 키워드로 하는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상황인데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은 그 디딤돌로 부족함이 없다. 10여명의 연구자들이 6년여에 결쳐 600여권의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3차례의 현장답사를 하는 공력이 담겼다.

인도로 간 구법승들이 남긴 기록과 그들에 관한 문헌자료의 분석 정리, 구법승들의 여행로에 전하는 오늘날의 유적과 유물 답사, 그들의 문헌 및 각종 자료들을 불교사, 불교미술사적 시각으로 정리한 도표 등이 책의 중심을 이룬다.



이주형 책임편집 | 사회평론 펴냄 | 4만원

임연태 기자



구법승도.국립중앙 박물관 소장



현각스님

'달' 보는 지혜 일깨우는 '손가락'

깨침의 삶을 열어주는 선 수행은 언어를 부정한다. 말에 걸려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말이 없을 수 없다. 깨친 사람끼리는 말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고 문자로 남겨야 한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고 한다. <벽암록>과 <무문관>은 달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선의 텍스트다. 거기 알알이 맺힌 이야기들은 무엇이 달이고 무엇이 손가락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한다. 그럼에도 손가락과 달을 분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중생심을 염려해 밝은 빛으로 되비춰 주는 등잔불이 필요하다.

현각 스님(동국대 교수)이 <벽암록>과 <무문관>에서 33개의 달을 골라냈다. 그리고 그 달의 '진가' 를 자상하게 풀이했다. 현대인들이 지난한 삶을 헤쳐 나가는 '단초' 가 되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행간에 '달빛' 처럼 흐른다.



날마다 좋은날
현각 스님 지음
시공사 펴냄
1만1000원

산청의 사람과 향기를 그리다



산청에서 띄우는 그림편지
이호신 지음
뜨란 펴냄
1만5000원

남명 조식 선생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성철 스님의 호랑이 같은 활구, 문익점 선생의 유적지, 이름 봄의 매화향기, 금강송의 바람소리...

지리산 천왕봉 아래 펼쳐진 유서 깊은 고장 산청에서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만나는 진귀한 보배들이다. 이호신 화백은 이 보배들을 화첩에 담기위해 틈만 나면 산청으로 달려갔다. 절과 마을과 산과 사람 그리고 소박한 농군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한 번 보고 그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산청에 대한 이호신 화백의 사유는 깊고 그윽하여 이 땅의 역사와 우리 조상들의 호흡을 미세하게 머금고 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된 산청은 '물외(物外)' 의 기표들이다. 풍경을 만나면 풍경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그리지만 그 속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 그림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글을 쓴 이유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겠지만, 그림과 글로 묶어진 이호신화백의 '산청 사랑' 은 시간과 공간을 더나 있다.

임연태 기자



매화를 스케치하는 이호신 화백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4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5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6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7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8	승가의범	동주	홍원사
9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10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 주 사 02)3672-7181~5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CD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사업분야
사찰홍보,행사,개인다큐,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도암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서양 불교이미지에 우리 현실 덧입혀

안애순 무용단, 25~26일 하이브리드 댄스 프로젝트 '불쌍' 공연



안애순 안무가(오른쪽)와 그가 창작한 '불쌍'의 장면들(아래).

프랑스 파리의 부다바(Buddha Bar)에서는 동양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신성한 종교적 아이콘인 불상이 원형을 알 수 없는 팝아트 조각상으로 변형돼 인테리어 혹은 가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출발한 라운지 음악에 동양 젊은이들도 열광한다. 오늘날 이렇듯 동서양의 문화가 자유롭게 전파, 유입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가 뒤섞이고 충돌하는 모습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동서양의 춤사위를 접목해 독창적인 몸짓을 창조해 온 무용가 안애순(49)이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물음표로 던지고, 그 물음에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로 답하는 공연을 펼친다.

안애순무용단과 LG아트센터가 공동제작, 6월 25 · 26일 오후 8시 LG아트센터에서 선보이는 '불쌍'은 춤을 통해 본 문화충돌에 대한 고찰이다. '불쌍'이란 제목은 불상(佛像)을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면서 원형 자체가 변형되고 찌그러진 현실을 상징한 표현이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부처 이미지(문화 코드를 상징)'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 혼성모방, 수용, 충돌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될 이번 공연은 △Buddha pops △Jumpers △Iconize △Cultural complexity 등 4개의 시퀀스로 구성된다. 인도의 카탁(Kathak), 한국의 진도북춤과 입춤, 중국 전통무예 달마18수, 몽골과 일본의 민속무용 등 동양 각국의 다양한 전통 무용이 안애순을 통해 새롭게 해석돼 이색적인 몸짓을 만들어 낸다.

최근 영상, 조명 등의 멀티미디어와 라이브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로 현대무용의 표현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춤의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는 안애순은 '불쌍'에서도 무용과 타 장르간의 협업을 통해 작품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안애순의 오랜 예술적 동지인 무대미술가 김종석, 조명디자이너 이인연, 현대음악가 양용준을 비롯해 국내 최고의 DJ 소울스케이프, 시각문화의 극단을 추구하는 설치미술가 최정화가 참여해 특별한 시청각적 느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무용수 개개인의 개성이 돋보이는 화려한 안무와 다양한 공간 구성은 현대무용의 끝없는 향상일로(向上一路)를 가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파리에 있는 카페 부다바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을 기획했다는 안애순씨는 "서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불교 이미지나 음악이 역수입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재를 사는 우리 모습을 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1988년 프랑스에서 열린 '바뇰레 안무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작품에 <반야심경>, 예불문 등을 사용해 동양적 생사관(生死觀)을 표현한 적이 있는 그녀는 평소 '불교음악이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음악이자 무한한 창작 소재의 보고(寶庫)'란 소신을 갖고 있다.

'아가씨와 건달들' '바람의 나라' '대장금' 등 뮤지컬 안무 작업에도 참여한 그녀는 '한국 뮤지컬 대상' 안무가상을 2회(1997년, 2006년) 수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대장금'으로 '더 뮤지컬 어워즈' 안무상(2007년)을 수상했다. 대중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녀는 <옥스퍼드 무용사전>과 <세계 현대 춤 사전>에 현대무용가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안무가이다. (02)2005-0114 김성우 기자

전각과 서예로 만다라 구현

김영옥 작가 아르스화랑서 '인드라망의 빛'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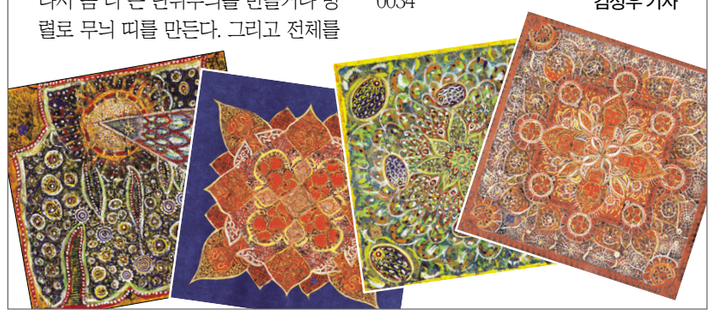
김영옥 작가.

전각(篆刻)과 서예를 통해 만다라를 그리는 새로운 기법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은 김영옥 작가의 두 번째 전시회가 열린다.

김영옥 작가는 6월 20일~7월 4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아르스화랑에서 '인드라망의 빛'전을 연다. 6월 20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강우방 원장의 '고구려 벽화의 새로운 해석' 강연회와 이애란의 판소리 공연(고수 백민호)도 펼쳐진다.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 작품들은 돌에 새긴 크고 작은 전각을 종이에 도장으로 찍은 후, 붓으로 새로운 조형을 그려 완성한 그림들. 조형 기법을 살펴 보면, 먼저 돌에 추상적인 단위 무늬를 새긴 다음 같은 도장으로 각도를 달리해 다시 좀 더 큰 단위무늬를 만들거나 병렬로 무늬 띠를 만든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조형으로 만들어낸다. 이어 질긴 종이를 선택, 엷은 먹물로 염색한 후 도장은 인주를 찍어 종이에 단계적으로 조형을 이루며 찍어나간다. 그 다음 붓으로 은색이나 금색으로 도장 무늬 위에 새로운 조형을 이뤄 나간다. 기존 무늬의 연장선상에서 무의식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선들을 그으면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조형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번 작품들에 대해 강우방 원장은 "칼과 붓, 돌과 종이가 만나는 자리에서 김영옥의 작품은 탄생한다"면서 "칼로 새기듯 쓴 붓글씨, 종이에 붓으로 쓴듯한 전각으로 완성된 만다라는 우주와 교감하는, 생명이 생성하는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했다. (02)422-0034 김성우 기자



금강경도 찬불가도 음성공양으로

'금강경 강송' '불광& Jinny' '풍경소리28' 발매

<금강경> 독송과 찬불가 및 염불독경을 음반에 담은 '음성공양'이 잇달아 선보였다.

서울 보림선원(02-914-6187) 조실 묵산 스님은 한국의 유마거사로 추앙받은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금강경 강송>을 한문과 한글 독송으로 들려준다. 묵산 스님은 최근 무상(無相)을 마루로 무주(無住)를 근본으로 묘유(妙有)를 작용으로 하고, 견성(見性)과 보림(保任: 견성 이후의 공부)의 도리를 이야기한 <금강경 강송> 1집을 오디오 CD로 제작, 국내외 불자들에게 법보시 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원(원장 불광 · 070-7561-2999)은 찬불가 및 염불독경을 담은 음반 '불광 & Jinny'를 제작 보급한다. 이 음반에는 불광 스님이 작곡하고 불광 스님과 지니가 함께 부른 찬불가 '나만의 부처님' '나 오직 한길' '귀 기울여봐' '내 안에' 등 7곡과 <천수경> 등 염불이 들어있다.

좋은벗풍경소리(총재 지현 · 02-723-9836)는 여름불교학교 시즌에 맞춰 창작 찬불동요 8곡과 율동및 합창용 반주음악을 담은 스물여덟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28집'에는 <법구경> '꽃의 장'을 노래한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와 한마음선원 찬불동요가사 응모전에서 선정된 '하늘마음'을 비롯해 '생긋 웃는 얼굴' '나눠요' '법당안에서' '염주' 등 교육적인 자비와 나눔의 부처님 가르침이 오롯이 살아있다.

김성우 · 이상언 기자

21인의 거장, 백남준과 소통하다



박종우 作 '인도 라다크 판공호수'

용인 백남준아트센터는 1963년 독일 부퍼탈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열렸던 백남준(1932~2006)의 역사적인 첫 개인전 '음악의 전시. 전자 텔레비전(EXposition of music. ELectronic television)'에 대한 패러디와 오마주(경의)를 바치는 새로운 기획전 '신화의 전시 – 전자 테크놀로지'전을 6월 12일 연다.

10월 4일까지 무료 전시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김윤호, 그레거 줏스키(독일), 류한길, 마르커스 코츠(영국), 마리 바우어마이스터(독일), 박경, 박종우, 오노레 도(벨기에) 등 21인의 거장들이 故 백남준의 작품과 함께 청년 백남준이 꿈꾸고 도전했던 예술의 영감과 소통을 시도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관계자는 "백남준이 예술의 틀을 뛰어넘어 테크놀로지를 사고와 정신의 매체, 생명과의 소통의 매체로 사용한 것이 '대칭성 예술'이라면, 현재 시점에서 테크놀로지-예술-인류학의 내적 연관과 흐름을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031)201-8554 김성우 기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 상사 불식 소용 영장 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200,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31 밥은 꿈

추억과 애정으로 만드는 국수 한 그릇

압구정에서 국수가게를 운영하는 임 사장에게 국수는 꿈이다. 모시와 녹차를 섞어 만든 모시녹차국수는 그가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개발한 야심작이라는데. 노란 놋그릇에 담겨진 푸른 국수면발이 여수산 멸치국물과 어우러져 애간장을 녹을 듯 시원함과 쫄깃함의 진수를 보여준다.

국수집을 하더라도 남들과는 차별화된 전략과 창의성을 고집하는 것을 보면 남다른 요리법 내지는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을 듯한데, 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은 고작 '기본을 지킬 뿐'이란다.

"파만 하더라도 요령이 있어요. 가령 설렁탕은 먹기 직전에 파를 넣잖아요. 멸치육수로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멸치 비린내를 없애려고 파를 넣는데, 저는 불을 끄기 30초 전에 넣어요. 또 멸치육수를 만들 때는 대파 뿌리를 씻어 넣고, 조개탕을 끓일 때는 쪽파를 조금 넣는 게 요령이죠."



시원하고 쫄깃한 모시녹차국수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 또한 임 사장이 강조하는 기본 중의 기본. 흔히들 손맛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이러한 기본만 지켜도 요리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같은 재료로 음식을 해도 집사람이 만들면 맛이 없었어요.(웃음) 그건 집사람도 인정했는데, 그 덕에 일요일이면 집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죠. 평상시에도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저녁에 뭐가 먹고 싶냐고 전화가 와요. 제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육수랑 야채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조합해서 끓이기만 하면 되게끔요."

이제는 지난 일이 됐지만 임 사장에게 음식이란 부인과의 지극했던 사랑의 추억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꿈이자 사랑이자 추억이기도 한 그의 남다른 음식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자. 그런데 되레 "평상시에 미역국을 어떻게 끓이세요?"라는 질문을 먼저 해온다. 미역국이라면 일전에 한 수행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그 절 공양주할머니한테 전수받은 비법이 있지 않던가. "미역 맛이 최대한 살도록 물이랑 소금만 넣고 끓이는 게 제일이죠!"라며 자신 있게 답하니, 자신만의 비법을 추가로 덧붙여준다.

"미역국을 끓일 때 생쌀을 넣어보세요. 미역국 한 그릇 당 반 숟가락 내지는 한 숟가락 정도로만요. 미역국에 밥알이 동동 뜨면서 그게 또 별미죠. 국물 맛이 맑으면서 색달라요."

언제 누구에게 배운 기억도 없이 절로 알게 됐다는 '밥알-미역국'을 비롯한 그만의 별미 비법은, 동네잔치집이나 절집 행사에 단골로 불려 다닐 정도로 손맛이 좋은 그의 어머니도 한 수 배울 정도였다고 한다. 이왕지사 풀어놓은 별미 보따리 중 또 하나를 소개하자면 '생미역-라면'이 있다. 말 그대로 라면에 생미역을 넣고 끓이는 것인데, 바닷가에 놀러갔을 때 손쉽게 만들어먹을 수 있는 특급 별미가 아닐 수 없단다.

"라면에 생미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별 별미이야기에 몰입되다보니 입보다는 뱃속에서 먼저 질문이 새어나오는데, "아주 침 넘어 갑니다"라며 즉각 돌아오는 답변에 뱃속은 거의 환장할 지경이 된다. 한편 불교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임 사장에게는 생각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는 절집 음식이 있단다. 들깨국물에 감자와 머위대를 넣고 끓인 들깨죽이라는 거다.

"왜 호박잎처럼 쪄서 쌈 싸먹는 머위라는 식물 있잖아요. 그 머위의 대를 잘라 감자랑 넣고 끓인 건데, 들깨가루를 걸쭉하게 풀어 죽처럼 푹 끓이는 거예요. 아고 말만 해도 침 넘어가네...."

그의 고향인 충청도 홍성과 그 일대에서는 오래 전부터 해먹어온 별미라 굳이 절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들깨죽은 절에서 맛본 음식 중 최고의 음식이었다.

그럴듯한 간판 하나 걸지 않고 배짱 좋게 운영하는 임사장의 국수가게는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여러 연예인에게도 소문난 별미집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열개의 국수집을 열 계획이라는 굳건함 앞에서 불황이 웬 말이겠는가. 따뜻한 밥과 같은 음식에 대한 추억과 남다른 애정과 노력이 있기에 그의 다부진 꿈이 얄밉지 않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7 소통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너' 때문이 아닌 '나'의 입장을 서로 얘기 해야

그렇다면 화가 나서 분노의 열이 식지 않을 때 아주 간단한 원리를 이용하여 내게도 쌓이는 울화 없이 상대와 시원한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더 이상 고만 따지고 캐묻자. 그가 대답하기 싫어하고 곤란해하면 닦달하며 들들 볶기전에 조금만 그에게 시간을 주어 동굴 안에서 혼자 생각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도록 하자. 그가 가장 넌덜머리를 내고, 지겨워하며 당신과 이별까지 생각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따지고 캐묻는 것이란 걸 잊지 말자. 그에게 숨통을 절대적으로 제공해주어야만 한다.

둘째,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지,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자상하게 묻고 또 물어 봐주자. 그녀들이 당신에게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는 것은 꼭 당신보고 어떤 일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보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란 대답보다는 "왜 그렇게 된건데? 어서 나에게 다 털어놓도록 해봐" 또는 "저런 그래서 너무 많이 속상했구나"란 반응을 그녀들은 더 원하고 있다.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남자의 입장에서 간과하다 보면 나만 생각해줄 것으로 믿었던 그녀도 언젠가 소리 없이, 말없이 떠나게 될 것이다. 떠나고 나서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 간단한 원리만 파악하고 있어도 남녀 간의 다툼은 훨씬 줄어 들 것이라고 본다.

#같은 의미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대화팁

또 하나의 팁을 제시한다면 바로 'message'방법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흔히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되었다.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다. 당신 때문에 열 받는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누구 때문에는 없다. 모두 본인이 자초한 결과이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열 안 받으면 그만이고 화가 안 나면 그만인데, 난 열이 받은 것이고 화가 난 것이다. 누구 때문에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화를 표현 할 때도 너 때문이 아닌 나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니가 이렇게 행동하니 나의 기분이 이렇다." 또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나의 맘이 너무 속상하다"라는 식으로 내 기분이나 상태를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 전달에 있어서도 더 확실하게 효과적이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간략하면서도 서로 기분은 덜 상하고 핵심에 빠르게 다가 갈수 있다.

5조 홍인 스님이 6조 혜능 스님께 전법게를 전하실 때 "뜻이 있는 곳에 씨가 내려[有性來下種], 인연이 닿는 곳에서 열매를 맺네[因地果還生]"라고 하셨다.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씨앗이 있다면 분명히 평안과 화합 그리고 행복의 열매를 맺으리라고 본다. 인연이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다. 또한 한쪽만 쏟아 붓는 일방적인 관계도 지속적으로 형성 될 리 만무하다. 생각이 너무 많은 여자와 생각이 너무 없는 남자가 아닌, 솔직한 여자와 배려하는 남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된다면 좀 더 화목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

(02)576-7575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11

신비한 효능의 '플라노보이드'가 풍부

전편에서 천식을 앓고 있던 한 남성이 천년초를 섭취하고 나서 피로가 없어지고 호흡기 질환이 매우 호전됐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천식과 같이 치료하기 힘든 증세가 좋아지는 현상은 식물의 플라노보이드란 성분 때문이다. 최근에는 플라노보이드가 노화를 방지한다고 해 과학 분야에서 이슈가 됐다.

천년초에는 다른 식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량의 플라노보이드가 함유돼있기 때문에 천년초를 정기적으로 먹는 환자들의 증세가 호전되는 것은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플라노보이드는 기본적으로 항산화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국내의 유수 화장품회사들은 주름방지 기능의 화장품 제조에 플라노보이드를 이미 첨가해 제조하고 있다. 천년초를 상복한 사람들의 경험담 중에 많이 들어있는 "얼굴이 달라졌어요", "피부가 깨끗해졌네요"와 같은 이웃들의 인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들도 역시 천년초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플라노보이드의 효과때문일 것이다. 또한 플라노보이드는 항염 및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천년초 경험자중 제일 초기부터 열성적 반응을 보인 위궤양 환자들의 경험담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플라노보이드는 항암 및 암 치료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이야 말로 과학계를 흥분시키는 특징이기도 하다. 천년초를 통한 경험자들 중에 심심치 않게 암의 개선 또는 수명의 연장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치료분야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질환이 호흡기 질환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플라노보이드는 바로 이 호흡기치료에 매우 뛰어난 사례와 연구업적이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담배로 인한 폐와 기관지 등의 손상에 플라노보이드가 개선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한다. 위의 천식을 앓던 남성의 사례도 우연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것이다. 그리고 플라노보이드는 혈관을 튼튼히 하며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특징이 있다. 고혈압을 정상의 혈압으로, 콜레스테롤의 감소 및 혈행개선으로 인한 혈색의 안정 등등 항산화 효과와 어우러져 뇌졸중, 뇌일혈 등의 혈관 질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신비로운 물질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성 호르몬이 감소된다. 그러나 플라노보이드는 인체에 흡수돼 기능이 저하되거나 노화돼 분비량이 적거나 없어진 호르몬을 대체해준다. 정확히 말하면 인체는 플라노보이드를 호르몬으로 오인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플라노보이드는 모든 식물에 대부분 함유돼있다. 그렇다면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플라노보이드가 풍부하니 문제가 없어야지 않겠는가? 하지만 내가 논하는 체험담과 경험들은 모두 한국사람들로 채식위주의 섭생을 하다 문제가 발생했고 천년초를 상복하면서 개선의 경험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02)780-0098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청암(靑巖)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립니다
(5점이상 50% 할인)
부산 051)202-8770
www.달마.kr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배우자(女) 인연 모십니다
저는 32세 남자입니다.
키 173cm, 대졸, 회사원
(신문사 근무) 으로, 34세
이하 고졸이상으로 결혼 할
참신하고 순수한 女를
널리널리 찾고 있습니다.
010-2275-9049(서울)

보시를 기다립니다
소승(혜덕)은 불도에 입문하여 더 많은 선지식을 얻고자 대덕스님께서 읽고 남은 불교경전, 불교서적, 불교에 환한 모든 책을 보시해 주시면 열심히 기도정진하며 수행 하겠습니다
010-4485-8888

불교행사 해드립니다
범음범패, 49재, 천도재,
회심곡, 법고춤, 바라나비춤
상담하시면
성심 성의껏 집전해
드립니다 (작은 암자포교원)
010-8677-3786

보 살 선 방
• 1인1실 : 방 1, 주방, 거실, 욕실 / 방 1, 주방, 욕실
• 부부실 : 방 2, 주방, 거실, 욕실
절에서 수양하며 기도하고 불교공부하면서 노년을 보내실분 (일부시주금 내시고 종신재)
불광사 · 불광대학
053)656-6766

버려진 토굴이나,
빈 암자에서 수행정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곳을 알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010-3820-5289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입종 시다림재 및 구병시식, 불상, 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조계종 산사 수려한 곳에 노승이 이젠 쉬고자 평생을 관리 운영하며, 은사를 부모처럼 모실 비구니 40~50대 건당제자 원함. 그리고 스님 뫼 보살과 마음 쉬고 있을 40~50대의 공양주 구함.
면담 후 보시금 결정함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기도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010-9269-84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산촌 암자에서
불법 공부하며 내집
처럼 지내실 40~50대
신심있는 보살님
한분 모십니다
010-5486-1275

기도스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비구스님
(부산)
010-9332-1719

산세수려한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742-2057
011-9840-857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9350-321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울산시내
052)295-3775
011-595-1522

후원 보살님
모십니다
(경주 산사)
054)772-4133
011-876-5078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은
전화 연락바랍니다
(비구승)
010-6267-3595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 징 (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 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cm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031)882-0512 Fax. 031)881-6201

삼사순례는 문경새재 흥청사로 오세요!
생전예수재, 만등불사,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큰스님법문, 산사음악회, 문학인의 밤, 작은 열린음악회 지역웰빙 농산물직거래장터, 푸짐한 잔치국수 먹거리장터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48번지 흥천사카페 : daum.net/hcxooeo
연락처 : 043-833-5525 / 011-503-9737

한옥 / 사찰(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재의식) 학인스님 모집
상단불공, 관음시식, 도량석, 대령, 관욕, 시다림, 안택 外 사물 숙식제공. 수강료 무료
(예불참석, 약간의 정근기도 무보시)
● 모집인원 : 선착순 면접후 약간 명
논산 관촉사 041)736-5701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큰절, 갑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會主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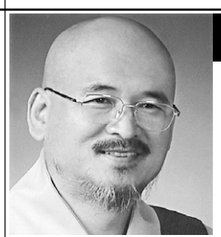
모 십 니 다
명산대찰 대가람 사찰 동참 운영할 분
1. 위 치 : 울산 경주 경계
(부산, 울산, 포항, 경주, 대구에서 1시간 거리)
2. 사찰규모 : 사찰건물 약 350평 대지 2,000평 및 임야
3. 사찰신도 많음
4. 능력과 약간의 재력이 있는 분
010-3300-573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역학(사주명리)수강생 모집
◆ 초급반 : 강의기간 : 9개월(주당 2시간) 수강료 : 20만원
강 사 : 금요반(이선종 선생), 18:30~20:30
토요반(정도형 선생), 11:00~13:00
6월중 개강
◆ 전 문 반 (통변) : 실제 상담기법 등을 체험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
강의 기간 및 시간 : 3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18:30~2시간 수강료 : 월 20만
강의 내용 : 통변론과 용신론 심화과정, 삼대복신론 심화과정, 사주감정 비법 및 실제체험 강의, 적중률 높이는 기술 반복 체험학습수시 수강신청 가능
월간역학교육원 • 한국역학협회 02)2264-0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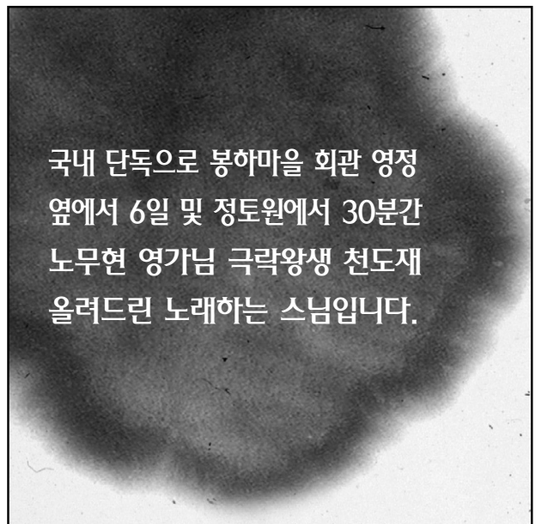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CD프로그램 재설치승인 및 교환구입 안내"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天役者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051)908-8683



국내 단독으로 봉하마을 회관 영정 옆에서 6일 및 정토원에서 30분간 노무현 영가님 극락왕생 천도재 올려드린 노래하는 스님입니다.

6월 중후순 천수경, 반야심경 및 나훈아씨 노래를 부른 CD. TAPE가 세상에 출시 되고 적극적으로 포교활동 계획입니다.
독학 및 불교통신대, 대학원 등을 마친 건강한 비구, 50세. 부처님 구도탁발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스님입니다.
어떤 직책이든 제가 필요한 서울, 부산지역 사찰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신원확실 보장합니다.
010-8422-7642

촌집매매
(쉼터로 쓰실 분)
■ 위치 : 경남 창녕
■ 총 74평
■ 부엌 1, 방 3, 거실 마당, 창고
■ 가액 : 삼천만원 절충가능
문의 010-3885-3885

명당 탐지기 관룡자!!

관룡자를 들고가면 혈(穴: 명당)에서 정확히 옆으로 회전합니다. 이 기구는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는 문학박사 전용원(나경 사용법 저자)이 1970년대에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까지 판매되는 기구로 이미 국내외 유명 지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사찰터 집터 건물터 묘지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꼭 필요한 기구이며 설명서대로하시면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룡자는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는 분께는 66만원으로 할인+ 케이스(2만원)+수맥 탐지봉(1만5천원)+월간역학 1년 정기구독(10만5천6백원) 등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구입방법: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하신 후 전화 주시면 즉시 안전하게 택배 또는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호 한국역학협회
전화: 1688-1137패철 보는법(책)도 있습니다(정가 2만5천원 2만2천원으로 할인+월간역학(8천8백원)증정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 2동,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6억(절충가능)
문의 011-816-9104
011-815-9104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35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급양도가 : 2억5천

● 위치 : 서울 시내
● 대지 : 40평
● 인법당 : 30평
● 시내요지
● 가액 :4억 5천

● 위치 : 서울
● 대지 : 25평
● 법당 : 25평
● 인법당
● 급양도가 : 1억 7천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강릉
● 법당 : 25평
● 요사 : 60평
● 부지 : 270평
● 전세 : 4억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4억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부지 : 400평
● 가액 : 9500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정관 신도시 (부산시내)
● 총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요사채 : 2동
● 앞산 뒷산 산세최고
● 차량진입(주차장완비)
● 지하암반수
● 가액: 7억 5천(개인사정으로 급매도)

● 아름다운 지리산 토굴
● 총대지: 1150평(터밭)
● 토굴(현대식): 30평
● 뒷산(30m 암반수)
● 사계절 계곡물 졸졸
천혜주변경관 및 풍광 최고
● 가액: 2억 2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신도시 인접
토굴 최고적지
● 법당 : 20평
● 요사 황토방2동 ● 부지 : 84평
● 가액 : 2억5천
● 주차가능
(공부하는스님 최적지)

● 위치 : 부산 바다가
보이는곳
● 법당 25평 목조건물
● 요사 2동
● 부지 197평
● 가액 : 3억2천
● 주차가능

● 위치 : 부산산세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400평
● 가액 : 6억 5천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조용한토굴(임법당)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277번지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4,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2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임법당(급)안내

● 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소돌 아들바위 부근
● 주택2동, 텃밭 조금
● 대지 82평
● 가액 : 8천 7백만원
010-5201-8338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011-9402-9306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사 찰 안 내 (포교당)

● 경기도(서울외곽)23억
● 부산 3억 7천만원
● 안양 15억
● 포교당(보:700, 월50)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굴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뒤 야산 접 (1000평 이상 쓰고 있음)
● 가액 : 12억
011-286-5109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1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사찰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화창리 (낭성–초정사이/청주서20분)
● 면적 : 1,700평(현재–나대지)
● 특징 : 남향,포장도접,관리지역, 계곡접,경관수려.
● 기타 : 전원택지,기도원부지, 투자,재테크 가능.
● 평당 : 15만원 / 양도 : 2억5천5백
010-2529-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시내
● 대지 : 57평, 시내 중심 큰길변
● 법당 18평 (벽돌조 단청, 옥상사용가)
● 선원요사 20평 (벽돌조 심야 보일러)
● 시내 중심지로써 포교위치 최상
● 가액 : 답사후 절충. 좋은인연 기다립니다. 스님 상정상 (급) 양도
010-7325-125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약목역 앞
● 평수 : 약 45평 (시설 완비, 공기 청정) 법당,삼존불,방2,주방,화장실
● 2층건물 중 2층(옥상사용)
● 보증금 1,500만원 / 월10만원 시설비 1,600만원(약간절충)
054)974-0307
017-217-1919

포교당 안내

● 위치 : 군포안양지역
●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 2층전체 80평, 방4칸, 화장실2개
● 보증금 2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011-685-674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4,000만원
010-5364-0038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45억(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마산 산호시장 농협 앞
● 2층. 30평. 법당1,방2,주방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4001-8476
055)243-3758

별장(토굴)안내

● 위치 :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 2층 건물 1층 50평, 2층20평
● 총 70평 (1층 방 2, 화장실 2, 대형거실1,주방1)
● 계곡산세 좋음, 사계절 물 흐름 600m 앞 남한강 앉아서도 보임
● 심야보일러, 지하수 및 상수도 겸용
● 조경 좋음, 잔디 앞마당 텃밭 포함 296평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736-35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평수 86평(법당46평), 방3칸, 공양간,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보살)
● 전세 3,500만원/월세 50만원 권리금 없음.
● 시설비 및 비품대는 상의 후결정
010-8011-744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성북구 길음동 전철 출구 앞
● 4층 건물중 2층 실평수 40평
● 법당 20평, 방2개 욕실, 공양간 시설 깨끗하고 완벽함. 삼존불, 후불탱화, 각단탱화(고려불화)
● 보증금 1,000만원 80만원
※관리비, 부가세 없음 시설비 외 총 2,500만원
010-2665-2393

암 자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아담한 암자. 시내
● 가액: 보증금, 월세없음
● 시설비 : 보신후 절충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8382-3334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 전철개통공사 완료 사정상 급안내
● 상가 3층 중 2층
●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시설 특 A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
010-9889-944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옥산동 대백마트앞 아파트밀집지역
● 시설: 스님친견실, 법당, 공양간
● 법당: 30평
● 특징: 관세음주불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포함 1천만원
※부담없는 금액에 스님이나 보살님의 수행처로 적합
010-3780-618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당진군
● 대지: 1000평
●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영구건물) 신도실, 창고, 차고, 우물 (4동 조립건물)
● 석불, 금동불 기타 시설완비
● 가액: 3억원
016-417-4744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강원도 신철원
● 법당 30평 (극락전 단청 예쁘게 되어있음)
● 산신각 3평(단청) 용궁, 조그마한 기도처
● 벽돌집 요사채 2채, 주차장 100평, 차고 1
● 사찰까지 모든 도로 도로포장
● 가액 : 만나서 절충
011-9133-582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수원 화서문 로타리부근
● 대지(면적): 4층 건물중 (2층)
● 건물(시설): 법당, 친견실, 면담실, 방2, 주방시설 완비
● 법당: 30평
● 특징: 즉시법회가능 (스님 일신상 문제로 급 양도)
● 가액: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는 최저로 절충
010-3674-525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사찰 내 20년 된 벚꽃나무 50종 있음
● 기와법당1동, 기와요사채3동
● 명부전, 산신각, 용왕단, 종각, 약사여래상 15층
● 지하수 상수도 사용, 창고2동, 화장실 2동, 심야 보일러 사용
● 사찰 내 주차 20대 이상
● 대지 : 300평 국유지: 480평 사용료 내고 있음
● 가액: 11억 5천만원
051)862-0108
011-563-1545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여 시내에서 10분거리
● 1,2층 각 50평(2층법당 18평)
● 골조 슬라브 건물
● 230평 사용(등기 180평) 창고 및 화장실 10평
● 조경 및 석축(자연우물) 심야보일러
● 가액: 1억 6천 5백만원
010-2988-026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 본존불, 지장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법당, 주방, 거실, 방 1나씩
● 보증금 300만원, 24만원 시설비 880만원
032)433-344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성정동 쌍용대로변 4층 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70평(법당 30평, 방 2)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 1천만원, 월88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6-850-120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 법당 옛한옥 45평(마당포함)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사글세 30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5886-3088

포 교 당 안 내

최고 시설! 최고 위치!
● 위치: 울산시 태화동 버스정류장앞
● 평수: 40평(법당1, 친견실, 방3칸),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1.000만원/월3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6374-4446
052)248-4812

포교당 하실 분

현. 포교원(60평)인수하실 분
● 가격절충
● 장소 : 시장 입구 전망 좋음
● 부산시 북구 구포 2동 시장통 입구, 지하철 2호선 구명 · 구남역 에서 5분 거리
주간 051)338-8607
야간 051)338-8606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가격절충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길동(역세권) 3층건물중 3층 45평
● 방2, 상담실1, 주방, 화장실 옥상전체사용, 음향시설완비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시설A급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5607-0108

대형불사 일으키실 분

● 배산임수 풍광수려
● 교통 아주 좋음 2차선 도로 접함
● 산7만평, 7만평중 9천평은 평지토목완료 지하에 유황온천수 흐름
● 경북 영천 양도가 21억
011-503-025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도개면
● 사찰 부지터 대지 68평
● 법당 14평(기초공사완료)
● 요사채 13평 완료 ,주차장 이용가능
● 가액 : 4천 5백만원
011-503-8989
010-8589-655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동(초량시장 內)
● 법당 53평, 삼존불, 원불 108불, 신중탱화 104위
●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전세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51)466-7237
010-5493-3374

(소백산 자락)사찰 · 선원 · 공부터 안내

● 소백산 자락(중앙고속도로 영주IC에서 20분 거리)
● 독립, 관리지역 5,300평, 산책로 등 실제 만평사용 효과
● 명당으로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소음없고 공부하기 좋음)
● 인근에 승마장 및 온천개발지, 숯가마체험장등 있음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인입 완료
● 4개면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립가능
● cafe.naver.com/ddajuki 에서 전경사진 보실 수 있음
016-573-2032 (필요하신분만 연락요)
7년산 금강송 판매(그루 당 2 ~ 5만원)

전원주택 ·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원통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텃밭 1개
● 산중턱 황토집, 심야보일러
● 집근처 강이 흐르고 경치가 아주 좋고 , 조경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033)462-9734
016-337-973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 토지 : 5,800평 전 : 5000여평 대지 : 300여평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태백산과 소백산 청양산 줄기가 합치는 회룡터로써 최고 명당자리 사찰 부처님 사리탑 조성되있음
● 가액 : 1억 5천만원
054)673-1859
010-2088-1857

10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농사기술 전수에서 공동체 구성으로

불교귀농학교로 시작… '늘품학교' 개교 예정 등 농촌 새 모델 제시

1990년 젊은 스님들의 수행단체인 '선우도량'을 만들어 불교 개혁의 선두에 섰던 도법 스님은 1998년 조계종 분규 당시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분규를 마무리 지었다. 도법 스님은 이후 남원 실상사로 내려가 도농공동체를 꾸려 불교귀농운동을 폈다.

실상사 주지였던 스님은 IMF관리체제 당시 경제위기로 늘어난 실직자들에게 실상사 1만여 평을 내주어 귀농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친환경농업을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교 사상으로 이뤄진 삶을 지향해 도시와 농촌,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지였다.

1998년 제1기 불교귀농학교를 시작으로 1999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가 탄생하며 이러한 의지는 본격적인 행보로 표출됐다.

인드라망은 근본도량 '실상사', 친환경농산물 판로인 '인드라망생협', 도시교류 · 문화 · 교육지원을 담당하는 '한생명', 중학교 과정의 '실상사 작은학교' '수련원 귀정사'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리산 산내면은 10년간 250여 명의 대식구가 정착한 명실상부한 귀농 1번지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 먹거리 생산부터 판매, 자녀 교육과 생태농업 교육까지 귀농을 넘어선 사회 대안 지역공동체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단순한 귀농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농촌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인드라망이 진행하는 귀농 프로그램은 그동안 35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 현재 60% 가까운 귀농으로 생태자립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인드라망 귀농 프로그램은 기본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서울 '도시민을 위한 불교귀농학교', 심화교육을 담당하는 '실상사 귀농학교', 지역정착을 위한 '장기 체류형 현장귀농학교'의 3단계로 진행된다. 이중 현장귀농학교는 2006년 개설돼 공주, 문경, 강화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10년을 맞은 인드라망은 귀농운동의 새로운 변화에 맞춰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또다시 부는 귀농의 바람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인드라망 상임대표 도법 스님(가운데)과 귀농 희망자들이 귀농학교에서 공동체 형성의 서원을 쌓고 있다.

인드라망 귀농교육의 변모는 단순한 농사기술을 가르치는 귀농교육에서 공동체 구성을 유도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다. 학생들은 교육 전 과정에서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 일정과 주민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마을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기존 귀농교육과 더불어 점심 휴식시간에 마을사람들과의 교류시간이 제공되며, 하루 일과 후에는 마을구성원 모두가 '100대 서원 절 명상'을 통해 귀농의 서원을 키운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개강좌로 교육이 진행돼 자유로운 대담으로 실전경험을 쌓게 하며, 농작물 소득증대 등과 관련된 강좌도 진행된다.

인드라망은 최근 이러한 변혁의 시작을 조용히 알리고 있다. 6월 19일에는 남원 실상사 한생명 강당에서 '인드라망 귀농운동 10년 돌아보기와 내다보기' 좌담회를 열고 인드라망 귀농운동의 현주소와 과제를 전망한다. 도법 스님과 이해경 실상사 귀농학교장을 비롯한 귀농학교 동문 등이 모두 모여 인드라망 3단계 귀농교육 시스템 전반에 개선을 제언할 예정이다.

향후 10년의 교육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인드라망은 교육도량 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40세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마을대학 '늘품학교'도 준비하고 있다. '늘품학교'는 남원 귀정사 부지에 2012년 개교 예정으로 이 곳에서 생태순환 마을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원 교원과 전원 학생제로 청년귀농자들은 공동체 생활로 마을대학 출범의 주체가 된다. 접수는 7월 20일까지다.

7월 15~18일에는 남원 산내면 일대에서 생명, 생태에 관심있는 청소년을 위한 여름 인드라망 청년학교도 열린다. '심심(心深) 청춘 귀농을 꿈꾸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청년학교에서는 귀농교육을 비롯해 지리산 숲길 걷기 등 생태체험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드라망은 "귀농 10년 동안 귀농교육에서 귀농정착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갖게 됐다"며 "인드라망은 귀농정착과 마을공동체라는 새로운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02)576-1886

1998년 겨울. 한국불교 최대종단 조계종은 분규의 소용돌이에 휩쌓였다. 1994년 종단개혁으로 종단운영의 민주적 원칙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가 확인됐음에도 분쟁의 악습이 다시금 표출 된 것이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3선 공방 다툼과 종단내부 갈등으로 촉발된 총무원건물 점거사태는 한국불교사에 아픈 추억을 남겼다.

하지만 이러한 아픔과 더불어 한국불교계는 또 다른 과실을 얻게 된다. 개혁의 바람으로 사회참여와 재가운동의 활성화라는 큰 물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10년을 맞은 2009년, 당시 사회 속으로 뛰어든 두 단체가 10돌을 맞았다. 열살이 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와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며 한 단계 도약하는 불교NGO의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 자정 · 불자리더 양성에 앞장

'불교 바로세우기 연대'로 출범… 불교아카데미 · 종자연 등 운영

서돈각 前 법무부장관. 박광서 물리학박사, 민병천 前 서울대총장, 김종서 前 교육개혁위원장, 박세일 前 청와대정무수석, 안동일 변호사, 명호근 쌍용그룹부회장 등 '재가회의'와 '재가연합' 주요 구성원들은 1998년 조계종 분규사태 이후 '불교 바로세우기 연대'를 출범,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 이하 재가연대)의 모태를 이룬다.

1999년 3월 '비영리, 비정부, 비종단' 조직으로 청정교단과 재가 수행풍토 진작을 외치며 탄생한 재가연대는 달라이라마와 틱낫한과 같은 세계적 불교지도자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참여불교' 운동과 '재가운동'을 결합한 재가시민운동을 펼쳤다.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등장은 민주화운동과 생명운동으로 한정됐던 불교계가 시민사회로 진출했다는 신호탄이었다. 재가연대는 94년 참여연대 창립 이후 한국사회에 움트고 있었던 시민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으로, 불교계 내부에 일던 사회참여 물결의 물꼬 역할을 했다.

재가연대는 현재 산하에 '교단자정센터' '불교아카데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3대 기관을 주축으로 교단 개혁 및 종교인권 보호, 인재육성 운동 등 다양한 불교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중 1999년 설립된 '교단자정센터'는 종단 갈등 및 부정부패를 밝혀 청정한 교단운영을 정착시키는 재가연대의 상징적 기관으로 자리했다. 종단 투명화를 꿈꾸는 터전이 된 '교단자정센터'는 그동안 교단 고위공직자의 청렴도 제고활동과 삼보정재 사유화 개선 운동 등 불교계 전반의 투명화에 앞장섰다. 일부 대형사찰의 불법불사 및 국고보조금 편취, 중앙종회의원 등 스님들의 비위를 밝히고, 주지임명과 같은 인사행정에서의 금품매수를 지적하는 등 날 선 비판을 해 왔다.

이러한 교단자정운동과 더불어 불교적 소양을 지닌 리더 배양을 위해 2001년 불교아카데미가 설립됐다. 불교아카데미는 리더스포럼, 마이리더스클럽 등 교양강좌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 양성에 주력했다. 전문 재가지도자 양성과정인 마이리더스클럽은 7기까지 산업체 대표를 비롯해 변호사, 의사, 군장성 등이 망라된 350여명의 사회각계 지도자를 배출해 불교계 외연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불교여성개발원장과 각 불교단체 대표급, 실무진 등을 배출하는 불교인재 양성기관으로서도 자리매김했다.

이어 설립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교육현장을 비롯한 국가공공영역에서 종교차별과 인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종교차별과 편향문제에 불교 및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2008년에는 범불교도대회 DB를 제공하고, 종교편향 근절운동과 호법양성교육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등 참여불교 정신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가운데) 및 임원진과 회원들이 재가운동의 새 비전을 밝히고 있다.

안으로는 교단 자정을, 밖으로는 불자리더 양성의 요람역할을 해 온 참여불교재가연대는 10년을 맞아 다시금 재가 결집을 모색하고 있다.

재가연대는 6월 17일까지 10주년 설문조사를 통해 1300여 명의 회원들에게 그동안의 활동평가와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간다.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창립 10주년 주간으로 선포돼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재가연대는 6월 15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회원과 함께하는 사랑방 영화제'를 열고 우연히 납관도우미가 된 오케스트라 첼리스트와 베태랑 염문사의 이야기를 담은 '굿바이'를 통해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로 인한 추모열기와 동양적 생사관에 대해 조명했다.

이어 2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종교권력의 시대, 불교의 상상력'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은 종교와 권력의 상관관계, 종교대립과 갈등의 가능성을 조명하고 불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장이될 전망이다. 6월 27일 오전 10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는 10주년 기념 회원 체육대회가 열려 회원가족 및 리더스포럼을 거쳐간 졸업생들을 한데 묶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가연대는 "지난 1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다. 사회에 신뢰받는 청정교단이 되도록 비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재 양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불교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02)2278-3417

사 과 문

종묵스님의 수사논문 (『初期禪思想史の硏究』-敦煌本壇經を中心に-) 을 유진은 저자의 허락 없이 완역하여 『돈황본육조단경비교연구』(경서원, 2009)의 pp.14~113과 pp.474~548에 全載하고, 또 『돈황본육조단경연구』(동, 2007) 에 위 저자의 「단경연구사」를 요약하여 pp.70~80에 실은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덕수사
법 명 : 해권(이권영)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60번지

• 사찰명 : 대용사
법 명 : 혜명(신복덕)
법 명 : 해문(이정국)
주 소 : 경남 양산시 웅상읍 삼호동 466-22번지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현)대중불교 조계종
(구)대한불교일산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 문 과 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익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병,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38개의 혈로 247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 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 기 간 : 1개월 과정 수강생 모집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연합조계종 보금정사
문의 : 053)474-5959 / 010-535-9797

웃음보살 불등거사 〈49〉

구성 : 김흥인



옹기장이 대신 나귀를 사 온 제자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스승이 큰 잔치를 하기 위해 제자에게 말했다. "질그릇을 구해 잔치에 쓰려고 하니 시장에 나가 옹기장이 한 사람을 데려 오너라." 제자가 옹기장이 집으로 가니 옹기장이가 울면서 괴로워 하고 있었다. 제자가 "왜 그리 슬퍼하는가?"라고 묻자 옹기장이는 "여러 해 고생한 끝에, 그릇을 만들어 팔려 했는데 이 나쁜 나귀가 잠깐 사이에 모두 부숴 버려서 괴로워한다"고 말했다. 제자는 "훌륭하다"며 나귀를 샀다. 나귀를 타고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은 "옹기장이는 데려오지 않고 나귀만 데리고 와 무엇에 쓰려는가?" 하자 제자는 "옹기장이가 오랫동안 만든 질그릇을 잠깐 사이에 모두 부숴버린 훌륭한 나귀"라고 답했다. 스승은 "너는 참으로 미련해 아무 지혜도 없구나. 지금 이 나귀는 부수는 데는 뛰어나지만 백 년을 두어도 그릇 하나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다. 천백 년 남의 공양을 받고도 조금도 그것을 갚을 줄 모르면서 항상 손해만 끼치고 끝내 이익 됨이 없다.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도 그와 같다.

옛 판화의 세계 금대를 받들어 영접하다 금대영접(金臺迎接)



고판화박물관소장 〈선씨원류(釋氏源流)〉 중 금대영접(金臺迎接) 편 불입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 석회옥(釋懷玉)이 정토염불수행으로 극락왕생하기를 염원했으나, 성중들이 나타나 은대로 맞이하려하자, 자신은 상품상생하기위해 수행했으므로 금대로 맞이하라고 은대를 거부하자, 성중들은 사라지고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나타나 금대로 영접하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회옥 스님의 속성은 고씨이며, 단구 사람이다. 남루한 옷과 한 끼의 밥으로 항상 앉아 있기만 하고 눕지 않은 채 수행했으며, 참회의 법을 행하면서 늘 하루의 일과로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5만 번을 염불하고 〈아미타경〉 다섯 권을 외웠다고 한다. 회옥 스님을 후대 사람들은 정업행자의 사표라고 칭송했다. 본문을 살펴보면 "천보(天寶) 원년 6월 9일에 갑자기 서쪽 하늘에 항하사(恒河沙) 같이 무수한 성인의 상이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백은으로 된 연화대를 머리 위에 받들고 공중에서 내려왔다. 이때 회옥 스님은 말했다. '나는 금대를 얻어야 합당한 사람이니 은대는 도로 가져가라!' 그 후 회옥 스님이 갑절로 경건한 뜻으로 정진했더니 공중에서 소리로 알렸다. '스님의 머리 위에 이미 광훈이 있다. 가부좌를 맺고 앉기 바란다. 아미타불께서 법인(法印)을 주실 것이다.' 이때 부처님의 광명이 방에 가득했는데 회옥 스님은 손으로 신호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면서 말했다. '이 광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6월 13일에 이르자 다시 두 번째로 백호광이 나타나고 성스런 대중이 방에 가득하게 있었다. 이때 회옥 스님이 말했다. '만약 기이한 향기를 맡게 되면 나의 업보는 곧 다하게 될 것이다.' 제자 혜명이 물었다. '스님은 지금 어느 국토로 가십니까?' 회옥 스님은 게송으로 대답했다. '청정하고 교결해 먼지 때 없는 연꽃의 화생(化生)을 부모로 삼는다. 나는 수도해온 지 10겁이 지났으니 길이 사바세계를 떠나 정토로 돌아가도다.' 게송을 설하고 나니 향기가 공중에 가득했고 바다같이 많은 대중이 가득한 가운데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나타났는데 몸은 자금 황금색이었으며 함께 금강대를 몰고 와서 영접했다." 본문에서 보여주시듯 회옥 스님은 오직 한 벌 밖에 없는 무명옷을 입고 한 끼 식사에 장좌불와하면서, 참회법을 행해 극락왕생의 길을 보여주신 정토행자의 사표이시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유마힐 민달팽이

배춧잎 유마경을 읽는다 섬유질 행간마다 푸르게 돋는 경을 바람이 도반 되어 따라 읽는 길,

곱게 누벼진 논둑길 밭둑길 밑줄 치다가, 둥근 알 품은 구릉의 젖가슴 한나절 내내 읽다가, 들판에 걸터앉은 구름 한 자락 뭉게뭉게 받아 적다가, 소낙비 젖은 수풀 이슬 도르르 도로 외우다가, 눈부신 햇살 등에 지고 비탈진 고샅길 건너는 행과 행 사이, 등뼈보다 더 물렁한 발자국 따라

바람도 길도 배추 잎 되는 초록 빛, 저 불이법문(不二法門)!

– 강영은/〈불교문예〉2009년 여름호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36 호 현대불교
2009년 6월 17일(음력 5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사는 날까지 편안하게 살려면 이 마음도리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는 이 심정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석 동이를 흘렸다면 나는 아마 다섯, 여섯 동이를 흘릴 겁니다. 뼈아프게 말입니다. 여북하면 구더기, 진드기가 된다 하더라도 겁 안 난다 하는 겁니까? 그렇게 겁 안 나는 사람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럽니다. 진드기로 그냥 그렇게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드기가 된다 하더라도 겁 안 난다 이겁니다. 그 뜻을 잘 아셔서 겁내지 마세요. 모든 일에 겁내지 마세요. 죽는다 해도 겁내지 말고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겁내지 말고, 내 살림이 이 시점에서 그냥 두럭이 난다 해도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않는다면 주변에서 다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보는 데가 있어서 '너는 이럭하고 이럭하고 이럭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그래서 독성도 있고, 이름을 붙여서 독성의 이름도 있고, 신장의 이름도 있고 다 있잖습니까? 관세음보살의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름이 많듯이 말입니다. 왜 저 텔레비전에서도 뭐 배추 뭐 무슨?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배추도사? 저 무도사? 그렇게 하고 이렇게 몸을 바꾸어서 이렇게 돌봐주죠?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 보살행이에요. 그러니 겁낼 게 뭐 있어요? 내가 보살을 항상 모시고 있는데. 자기 속에 부처 보살 법신, 뭐 다 모시고 있습니다. 하여튼 만 분을 모신다 하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으니까요. 만 분을 다 쓴다 해도 줄지 않으니까요. 그 법이 아주 영묘한 법이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납득이 안 가신다면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대중 웃음) 허허허.

(질문자에게) 얘기해봐요.

질문자1(남): 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스님의 법문을 받들 때마다 제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너무나 죄송함을 느낍니다. 항상 스님께서는 '네 마음을 알아라, 네 마음을 알아라.' 그렇게 하시는데도 저는 제 생각에 눈이 가리워 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 제 자신이 참 밉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스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법을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저는 '언제나 철이 들려나. 언제나 철이 들려나.' 항상 그렇게 뇌까려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도대체 내가 이렇게 새벽에 뭣 때문에 올라가는가?' 제 자신을 생각해봤을 때, 진정 스님의 마음을 느낀다면 제가 올라가는 그 자체까지 잊었을 텐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스님의 그 모습만 쫓아가는 제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원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나 많은 도반들께서 저한테 이렇게 일러주실 때, 저는 그 일러주시는 말씀들을 제 생각으로 지어서 일이 잘못되게 만들 때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감히 제가 스님한테 어떻게 질문드릴 것은 없고 제 마음이 너무나 착잡해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큰스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착잡할 것도 없고 착잡하지 않을 것도 없습니다. 밑져야 본전입니다.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밑져야 본전이고 그 누구나가 다 한 번은 죽는데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 알아서 해라.' 하고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애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믿고서 그냥 죽는 거 사는 거 모르고 편안하게 살듯이 말입니다.

질문자2(여): 감사합니다. 저는 눈이 아파서 왔습니다. 머리하고 눈하고 이렇게 아파서요, 스님 한테요….

큰스님: 그 조그만 책에도 관하는 법이 나와 있으니 보시고요. 모든 거, 모든 생명들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속에서 병도 나게 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깐 그 속에서 병을 나게 했다면 그 속에서 고쳐야지 누가 고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고치게끔 주인공에 관해서 '주인공만이 다스려서 고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꼭 거기다가 하세요. 이열치열이란 말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예전에 눈이 이렇게 빠지는 데를 갔는데요, 장화가 이만큼 (손을 펴 눈높이까지 올려 보이시며) 높은데 장화 밑으로 들 줄 알았죠. 그랬더니 장화를 넘쳐서 장화 속으로 눈이 다 들어와가지곤 장화째 그냥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그러니 어디다가 넣습니까? 뜨거운 물에요? 얼음을 깨고서 찬 냉수 내려가는 거기다가 집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녹았어요.

그와 같이 얼은 거는 얼은 물에 넣어서 녹여야죠.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거는 거기서 고쳐야 돼요. 그래야 제일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속에서 "나는 해줄 테니 너는 뛰어라." 하하하. 그저 속에서 부처님이 해준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누가 그거 손이 대신 해줍니까? 그러니 부처님 손 대신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요, 글쎄 이러셨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해줄 테니 너는 뛰어라." 이랬대요. 허허허, 믿죠? 부처님이 그러셨다는 거? 하하하.

질문자3(남):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지원에서 올라왔습니다. 강릉지원에 나가고 있고 이 마음공부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됩니다. 공부해온 경험하고 또 좀 질문할 것이 있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큰스님 법을 대하게 된 게 책을 보고 이렇게 진리를 찾고자 하다가 책을 통해서 스님 법을 만나가지고 지원에 이렇게, 선원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한 5년 정도 될 때만 해도 사실 제 마음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할 때 지옥에서 지금 현재 극락 입구쯤 오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예.

질문자3(남):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물론이고 제 몸 자체도 사실 그렇게 살펴볼 여유가 없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전연 돌아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 상태에서 과연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님 법문을 들으러 한 5년 동안은, 마음에서는 스님의 법문 가르쳐주시는 거, 이 마음공부뿐이고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에는 표현을 하자면 파도, 혼란, 굉장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파도가 치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많이 좀 잦아지고 이제는 '큰스님의 법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그것이 진짜 좀 느껴지는 거 같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에서도 공부하는 내용은 스님들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러거든요. 그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팔공범음범패 학인모집

팔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는 팔공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뜻 있는 출가수행 승려와 재가 불자님들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팔공범패란 : 대구 팔공산 이남의 영남 지방에 퍼진 이른바 팔공산 소리이다.

◆ 자 격 : 승려, 범패에 관심이 있는 재가불자
◆ 교육기간 : 1년 과정
◆ 교육내용 : 불교 각단 예불 및 천도재 의식
1.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2.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오공양, 극락무, 살풀이
(49재 및 천도재 의식을 중심으로 강의 합니다)
◆ 시 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10시 오후반 2시
◆ 교육장소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죽정리 산 18번지 금륜사
◆ 문 의 : 054)336-5255

팔공범음범패교육원

범음범패 학인모집

■ 자 격 : 승려 및 범음범패에 관심 있는 모든 재가불자
■ 교 육 기 간 : 1년
■ 교 육 내 용
범 패 : 거불/복청계/가영/향수나열/도량계/다계작법/39위/화청
작 법 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법고
*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 과정
* 천도재 및 49재 의식을 중심으로 교육
개 강 일 : 양력 7월 14일 (화) 오후2시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2시~6시(4시간)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 / 불광사
■ 강 사 : 일해스님 외

문 의 및 상 담 전 화
불 광 사 : 053)986-1080
일해스님 : 011-9361-556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범패 – 거불, 복청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등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게, 다게 등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내용
1. 대인불안 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최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정)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교수 又佛 김철회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랜드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웅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buddhanews.com

여러분 살림살이 속에서 모든 걸 체험해보세요

☞25면에서 계속

런데 저는 굉장히 공부를 빨리 하고 싶어 하고 가능한 한 많이 하려는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스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스님께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하면 아,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이 못한 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주시면요, '진짜 한번 꼭 해봐야지!' 그러면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표현을 하자면 너무 그것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 같아서 그 맛에 반해가지고 스님께서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는 찾아가지고 가능한 한 전부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그런 걸 계속하려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스님께서 과연 그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음, 누구나가 다 자기를 자기가 몰라서 길을 잃고 길을 헤매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자기가 정립시키고 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는 거죠. 체험하고 나가다가 보면 이제 '아, 이런 거로구나! 이렇게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하는 거를 알고, 알았으면 그것을 놓고, 또 딴 데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딴 것도, 또 자연스럽게 오는 것도 대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모든 걸 이렇게 살림살이 속에서 모든 걸 다 해보세요. (가슴을 가리키시며) 찍어서 안 먹혀지는 게 없어요. 이 세상을 다 한 주먹 안에다 넣고 한 입에 털어넣으려도 털어넣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이 삼라대천세계를 한 주먹에 넣고, 한 입에 넣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영묘한 까닭이고, 무변한 까닭이고, 체가 없는 까닭이죠. 지금 여기에서 앉아서 마음이 저 미국에서 "스님, 이러이러한데요, 오시겠어요?" "알았다, 오바." 하하하. "오시겠어요?" 하고 "오바." 하면 여기서 "알았다." 하고 "오바." 해서 그냥 그 찰나찰나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체가 없는 모습인 까닭이죠. "알았다." 이거는 (가슴을 가리키시며)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 방편이 있는 반면에 진실이 있고 진실한 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부처의 도량은 아주 그냥 이 허공 안에 꽉 찼는데, 여러분도 여기 지금 이 몸이 부처의 도량이거든요. 한 도량이거든요. 그리고 몰아서 보면 지구가 한 도량이고, 또 몰아서 보면 그냥 우주 전체가 한 도량이고요. 그러니 그 '오바' 하는 거는 방편이지마는 '알았다' 하는 것도 '오바'나 똑같은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멀고 가까움이 없이 행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따라 쓸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거 중생이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아주 믿지들을 않아요. 자기 부처를 자기가 믿지를 않고, 이론이 많고, 사연이 많고, 착이 많고, 또 그냥 한꺼번에 공부를 얼른 해버리려고 하죠. 얼른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이렇게 체험하면서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그게 점수(漸修)입니다, 점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돈오(頓悟)라면 이 세상에서 살고 느끼고 알고 배우고 나가는 게, 깨닫고 나가는 게 그게 점수죠. 그래서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닌 반면에 알게 되면 바로 돈수(頓修)가 된다. 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엔 합해진다. 돈오와 점수가 둘이 아니게 합해진다 이런 거죠.

하여튼 공부 잘 하세요. 부산을 가는 길이라면 한 대구쯤 갔다면 이리로 가는 게 빠르냐, 저리로 가는 게 빠르냐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길을 가는 데 틀림없는 이 길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믿죠? 믿으니깐, 그 믿는 마음으로 딴 거를 또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예.

질문자3(남):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 공부할 땐 뭐 별의별 걸, 똑같은 방편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여북하면 부처님을 찾는데 "야! 과거에 살던 이놈아! 영원한 친구야 이놈아!" 이렇게도 찾는 사람이 있고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사실이니까요. 자기 전 조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이름을 다 부르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이름이니까요. 진실만 똑같으면 되죠.

질문자4(여): 스님,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대전지원 청년회에서 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말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지금 사람 몸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이 자리까지 정말 귀중한 생명을 얻어서 오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변하면서도 뭔가 찾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저 콩나무로 표현을 할까? 콩이 말이야, 콩씨가 있어서 땅에다 심었더니 콩싹이 났어. 뿌리로 화해가지고 싹이 났다고요. 싹이 났는데 그 싹이 그 뿌리에 의지를 해야지, 그렇지? 뿌리에 의지를 해야 싹이 잘 되지? 그리고 또 콩씨가 열리지? 콩꽃이 피고.

그럼으로써 또 콩나무가 자기 내년을 기약한다는 생각도 없이 영원히 지속해서 이어가는 거야. 그 생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어가게 돼 있단 얘기야. 그러면 자기 뿌리는 자기 싹을 위하고 자기 싹은 자기 뿌리를 연상하고, 즉 붙들고 믿고 나가야지. 그런데 그 콩이 말이야, 뿌리로 화했는데 그게 무슨 콩이냐고 그럴 거냐 이거야. 그래서 무슨 콩이냐고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찾으려고 아무리 뿌리를 헤쳐봐도 콩이 없더란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으려고 그래도 콩씨는 없고 자기 몸에, 즉 콩나무 안에 콩씨가 있다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콩씨가 아직 안 열린 콩나무는 콩씨가 잘 되게 꽃이 피고 콩씨가 열리게끔 뿌리에게 거름을 줘라. 이런 거는 뭐냐 하면 모든 거를 믿고 거기에 의지하면 콩나무는 거름이 된다. 그 마음이 말이에요. 거름이 돼서 그 콩나무를 푸르게 만들고 꽃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나무에서 무르익게 하고, 그래서 모든 만민을 또 먹이게 하고, 되남게 하고, 되남아서 또 심어서 또 먹이게 하고, 그러니까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러하다 이거야.

새들도 뭐 자기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것도 없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려고 애를 쓰고 주워다 먹이느라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도 누구 한테 알을 뺏기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쳐다보고 울고 서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자식을 기르다가 어쩌다가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만약에 채갈 때 그냥 누가 채가는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지. 어떡해요? 보이는 사람이 때려서 죽였다면 그냥 사생결단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채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 마음공부를 해야지, 사는 날까지는 꼭 편안하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콩씨가 다 여물어 심을 수 있게끔 된 연에 콩깍지가 벗겨져야지 정상인 거거든요. 그러니깐 인간도 그렇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는 날까지 꼭 틀림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정상적으로 기르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새알 잊어버리듯이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새 새끼가 죽거나 또 채가고 먹히듯이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으려면 이 도리를 알아야만 되는 거죠. 새 새끼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강하게 스스로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즉, 소임을 꼭 해야 지키고 간다 이겁니다.

연어나 뭐 뱀 새끼나, 뭐 뱀도 여러 종류지마는 종류대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새끼를 살려서, 즉 말하자면 자기 몸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짐승은 다 자기가 희생하고 들어가요. 자기 껍데기 즉, 옷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딱 자기 새옷을 많이 내놓고는 자기 헌옷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 즉, 부모가 죽어버리는 거 이런 거 있지요? 껍데기를 벗고선 또 새 알맹이가 나오고 말이야. 또 다른 벌레가 또 다른 벌레로다가 진화하고 이러는 거 많이 보지 않아? 그러면 인간도 역시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 마음이 차원에 의해서 바뀌짐으로써 모습도 바뀌져요. 현재 모든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내 체질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이 '순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순산치 못하게 될 때는, 즉 말하자면 거꾸로 있거나 뭐 잘못됐거나, 태반이 기울어졌다거나 이런다면 벌써 거기다가 관하면 그 태반도 올바로 세워지고 또 거꾸로 있던 아이도 바로 세워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야. 그 속에 소임 맡은 공장에서들 다 너 나 할 거 없이 통신이 정수에서, 대뇌에서 사대(四大)로 통신이 가면 다 그렇게 작용을 해주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해야만 대뇌로 통신이 된단 얘기야.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무턱대고 생긴 인간이 아냐! 이것도 과학적이고 이것도 컴퓨터가 벌써 자동적인 컴퓨터가 머리 위에 달려 있어요. 대뇌가 인간 컴퓨터야. 오신통이라고 하는 바로 머리의 누진(漏盡)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동 컴퓨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된 거를 지울 수도 있고 입력된 거를 입력된 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누진이에요. 컴퓨터를 만지는 주인이다 이 소리입니다.

질문자4(여):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스님: 그렇게 하면서도 아리송하지? 하하하. 그저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내가 떡 그릇에 들어가보고, 그냥 아무 데라도 들어가보고 그걸 체험을 하고 들어가야 돼.

질문자5(남): 저는 광주지원에서 왔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8일 고혈압으로 인해서 중풍에 끄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걷지도 못했고 그런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큰스님 덕분으로 이 법당에 걸어와서 큰스님 법문을 받들게 된 것은 다 큰스님의 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에 주인공에게 믿고, 놓고 공부를 많이 해왔습니다만, 현재 왼손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께서 마음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그런데 딴 사람들 같으면 이건 의사가 하나만 잘 고쳐놔도 아주 싱그럽고 좋아서 모두 야단들이죠, 신기하고. 그렇지만 이거는 본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고 좋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몸뚱이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볼 때에 내가 꼬집어서 내가 했다는 게 어딨습니까? 네? 더불어 그냥 꽉 찼는데요. 그러니 서로 더불어 했으니까 누가 했다, 이게 했다, 저게 했다 간장 공장에서 했다, 위 공장에서 했다, 콩팥 공장에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전체가 다 움죽거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면 부처님 아닌 게 부처님이죠. 어떤 거든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부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니깐요. 그러니까 그 속의 의식들도 다 그 주인공하고, 다스리는 주인공하고 한 케이스가 돼서,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닌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사회자: 질문이 이제 없습니다.

큰스님: 예. 본래 이 세상의 진리는 질문도 없고 질문 안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푸르고 묵묵히 흘러가고 묵묵히 화산이 일어나고, 묵묵히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학 연구를 하게 만들고 재료가 되게 하고, 모두 그렇게 서로 돕고, 하다못해 개미 하나도 돕지 않는 게 없어요. 진딧물이 먹으면 풍뎅이 벌레가 와서 진딧물을 다 먹어치워 주거든요.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잘 활용만 한다면 모든 걸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입니다. 이건 사실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그렇게 아주 편리하게 사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저 잘되든지 잘못되든지 내가 떡그릇에 들어가보고

그냥 아무 데라도 들어가보고 그걸 체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위 법문은 1996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혈,무통,무약,무수술!! 세계최강 최고수 活人秘法 전수교육안내



[장한빛 仙師]
- 독일 East West Alternative 메디컬센터 특수침술교육 암등 난치병 공동연구
- 중국연변대학교 중의학원 객좌교수
- 동아대학교 대체의학 최고위 과정 교수역임
- 애타게 찾았던 숨은 명의 50인 선정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특별강연

"암 정복의 길이 보인다"
"야, 이제 나는 살았구나!" 등 7권의 건강서적 집필

• 23년이란 오랜 세월 속에서 마침내 다이아몬드를 찾아냈습니다. 의학의 본고장 독일에서(EastWest Alternative medical center) 세계최강, 최고수 의술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제는 5000년 단군역사이래 東西洋의 의학교과서를 새로써야 할 때입니다.
• 그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분야별 최고수(선지식)들을 만나 醫道와 仁術을 깨우쳤고, 현대의학에서 포기한 수백 명에 달하는 말기암환자와 난치성희귀병 (파킨슨, 아토피, 간질, 치매 등) 환자를 상대로 고귀한 임상체험을 통해 생명 살리는 비법을 축적해 왔습니다.
• 群盲撫象이요 管中窺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만의 잣대로 虛空을 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最高手라고 생각되어 한수 배우려고 찾아갔다가 돈과 시간만 허비한 채, 괘씸하고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오던 씁쓸한 지난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名實공히 세계와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최상의 活人기술임을 세상에 알리고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해드리고져 합니다.
• 교육기간동안 각자가 모시고온 환자를(어떠한 난치, 고질, 희귀병 환자도 관계없음) 대상으로 實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최단기간 내 완벽한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였습니다. 전수교육 일정을 5박6일간으로 최대한 축소, 단축하여 시간과 재화의 낭비를 줄이도록 배려하였습니다.
• 침술, 교정법, 경혈 등 인체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완전 초보자부터 침술 등 대체의학 전통의술 30년 大家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전수 가능 하도록 복잡한 이론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기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 본 전수교육을 수료한 분들에게는"제 3의학 아카데미"평생회원증을 발급하여 정기적인 학술모임을 통해 각자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고 더욱 체계화 된 완벽한 활인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학술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 昨今의 우리나라 대체의학 전통 민중 의술의 현주소를 바라볼 때, 재야의료인의 한사람으로 비애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개인의 의술과 능력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해도 현행 의료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법상 저촉이 되면 엄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운영의 妙를 잘 살리시어 최악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 본 활인비법은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범죄단속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弟者 세계최강, 최고수 활인비법전수/ 宇宙命理思想, 秘方침술正骨整体 등 자연의학,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주경야독하면서 醫通君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제자를 구합니다.

전수교육 내용

◆Triple combination therapy (三正요법)
1〉正骨整體 : 척추뼈와 골반뼈의 변형이 만병의 根源
2〉正血淸血 : 전신의피가맑아야 無病長壽 (15개연못論)
3〉正氣(通經活絡) : 전신의 氣가 疏通해야 無病長壽 (氣塞則死)

▶ 교육장소 : 강화도 한빛 修練院 (전등사인접)
▶ 교육기간 : **5기** _ 6월 15일~ 6월 20일 [5박6일] (선착순 12명)
6기 _ 7월 6일~ 7월 10일 [5박6일] 〃
▶ 전수교육비 : **200만원** (숙식제공) 농협) 136-12-537835 (예금주:김재정)
1, 2, 3, 4기 수료생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최 : 제 3의학재단 설립 추진 위원회
후원 : 한빛웰빙건강 창업 지원센타 (피부,비만,통증) 한빛웰빙건강문화원 (전국지역별 지부설립문의)

시간을 낼수 없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의사, 한의사 및 스님, 목사님들을 위한 **주말반(매주 토 13시~ 일 17시) 교육**을 별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 **6월 20일(토) ~ 21(일) 선착순 12명**

안내 문의 **www.HANVIT.tv** 전국대표 ☎ **1588-7638**

내과적영역 초, 중말기암, 갑상선, 이명, 난청, 중이염, 약시, 턱관절장애, 백내장, 아토피, 건선 등 악성피부병, 다한증, 비염, 축농증, 대상포진, 간질, 뇌경색, 치매, 불면증, 간경화, 간염, 역류성식도염, 위궤양, 수면무호흡증, 심한코골이, 심근경색, 협심증, 폐질환, 악성변비, 비만, 투석전신장병, 고혈압, 당뇨, 전립선, 요실금, 자궁근종,물혹 (파킨슨,루게릭은 임상중)
※ 10년~20년 이상된 각종 난치고질병이 5회~10회의 시술로 사라집니다.

외과적영역 경추디스크,허리디스크,안면마비,모든 종류의 두통, 삼차신경통,좌골신경통,골반통,항강통,어깨결림,오십견,테니스,골프엘보우,수족마비,척추관협착증,강직성척추염,3,4기골다공증,하지무력증,통풍,류마티스,퇴행성무릎관절염, 악성무좀,중풍후유증,뇌성마비,생리통,체머리증,수전증,족저통,교통사고후유증 등 모든 종류의 통증질환
※ 10년~20년 이상 된 묵은 통증이 5분 1회의 시술로 그 자리에서 즉시 90%이상 사라집니다.

•참가대상 병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 한방 의료관계자(통증클리닉,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등 의료인상담환영) 물리치료사, 중의사, 침, 뜸, 부항사혈요법사, 수기치료사(지압, 카이로프락틱, 추나요법)등 재야의료인, 氣치료사, 스님, 목사님, 태권도,합기도,체육관,수련원, 단식원,의료기홍보관 운영자등 웰빙 건강사업 종사자, **대체의학 및 전통의술에 관심 있는 분, 각종 난치, 고질, 희귀성 질환자 가족분**

불자 세상보기



이병두
칼럼니스트

좌우 날개엔 튼튼한 몸통이 있어야

당대에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라는 말을 듣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을까마는, 그래도 요즘처럼 혼란스러워 말을 하기 어려웠던 적도 드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경제 성장 속도가 가장 빨라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10대 무역 강국으로 바뀐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독재'의 망령을 걱정하고 '양극단'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 보통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시절임에 분명하다.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 해결되어 배부르게 먹고 몸 따뜻하게 옷 입고 이불 덮고 잘 수만 있으면 될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공부하고 싶은 자식들 학교에 보내 마음껏 공부를 하게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았다.

군사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기만 하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남북 문제도 술술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군사 독재 정권에서 민간 출신 정부로 바뀐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한편에서는 "독재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좌파가 준동하고 있다"며 서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그전에는 모든 일을 '군사 정권' 탓으로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 그럼 누구 책임인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자유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아 국정과 지방 행정을 맡겨왔다. 그러면 모든 혼란의 제1책임자는 우리 국민 자신들이 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하다. 어쨌든 국민들이 남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公約)'을 보고 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공약이란 것이 늘 부도수표와 같은 '공약(空約)'이 되었으니 말이다.

정권이 바뀌고 일정 세월이 지난 뒤, 혹 당선자를 찍은 사람은 "역시 내가 선택을 잘 했어.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을 잘 지키고 있네!"라면서 안심하고, 혹 자신이 다른 사람을 찍었던 사람 입에서도 "내가 그때 이 사람을 찍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을 잘 한 것 같아. 나는 그때 신뢰를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을 찍었는데 이 사람 뜻밖으로 잘 하네!"라며 흐뭇해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일까?

슬프게도 우리 현대사에서는 당선자를 찍지 않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길 잘 했다" 하고 혹 당선자를 찍었던 사람은 "내가 잘못 찍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후회하는 일이 반복될 정도로 역대 정권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인류 역사상 어느 곳, 어느 때를 불문하고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공존하지 않고서 평화가 유지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적은 없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나 사회 주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적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반면에 인종 · 종교와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화합했던 곳, 그런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더 평화롭고 사회가 안정되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책을 출간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학자도 있었다. 그렇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하지만 튼튼한 몸통이 없이는 두 날개가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새가 한 쪽 날개로 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넘쳐나고 반대 쪽 날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다. 게다가 좌우의 양쪽 날개를 지탱해 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튼튼한 몸통의 존재도 보이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군포교의 '신바람'을 기대한다

군포교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 조계종 군종교구가 창립된 이래 첫 교구장인 일면 스님이 소임을 마치고 다음 교구장으로 군법사 출신인 자광 스님이 추천된 상황이다. 일면 스님이 지휘한 제1기 군종교구는 군포교의 기반 다지기에 진력했다.

"고무신이 닳을 때까지 해 보자"며 출발한 일면 스님은 고무신 여러 켤레가 닳도록 열심히 뛰었다. 10만 명의 장병에게 수계를 했고 군포교기금도 23억 원 가까이 적립했고 군법당 확충에도 꾸준히 힘을 쏟아 왔다. 이 같은 업적을 토대로 제2기 군종교구는 더 안정된 기반위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25년간 군법사로 봉직하며 군승단장 국방부 군종실장 등을 역임한 자광 스님이 제2기 교구장을 맡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누구보다 군포교의 길을 잘 아는 자광 스님은 제1기 군종교구가 마련한 도약대를 딛고 웅비하는 포교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자광 스님은 군종교구장에 추천되면서 "현역 군법사들이 신바람 나게 포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포교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군법사를 중심으로, 장병들의 생활현장인 영내에서 실질적인 포교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자광 스님의 의지는 제2기 군종교구의 갈 길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제2기 군종교구는 군법사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선배 교구장을 중심으로 군포교 전선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기에는 종단의 지원과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수다. 제1기 군종교구가 '관심과 동참'에 매진한 것도 군포교 기반이 튼튼해야 하기 때문이었음을 불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수선할수록 대승적 화해 필요

연일 시국선언문이 발표되고 있다. 불교계도 정부의 실책에 따끔한 죽비를 내리치고 있다. 현정부의 소통부재를 꾸짖는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불안의 요인도 증가한다는 얘기다. 그토록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출범한 현정부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노릇이다.

거기에 북한은 연일 강압적인 자세로 로켓을 쏘고 지하핵실험을 감행 하는 등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안팎으로 어수선하다.

부처님은 발지국을 정벌하려는 아자세 왕에게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정사를 협의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존경하며 법을 받들고 예절을 지키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스승을 받들며 선조를 잘 모시고 가정부인이 정숙하며 사문을 섬기고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을 공경하는 등 일곱 가지를 잘 실천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번창할 것이니 함부로 정벌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침략 받지 않는 조건'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을까? 점수가 낮다면 불자들의 책임도 크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 대승적인 안목으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임을 냉철하게 인식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부모 공양이 부처님 공경하는 것

6월의 테마-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부모를 죽이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없애는 일이므로 그 자식은 이미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존재의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불설정반왕반열반경>에는 "부처님께서 부친 정반왕이 돌아가시자, 내세의 인민이 흉포하여 부모의 길러준 은혜를 갚지 아니할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불효한 이들과 내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예법을 세워야겠으므로 당신 스스로 부왕의 관을 메려고 하셨다"고 전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천왕이 스스로 메겠다고 간청해 양보하고, 몸소 향로를 든 채로 상여 앞에 서서 장지까지 갔다. 보은의 출발은 이처럼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대승본생심지관경>에는 부모은을 필두로 중생은, 국왕은, 삼보은의 사은(四恩)을 설하는데, 부모를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보은은 부처님 교설의 핵심이다. 모든 존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인연에 의해 이뤄져 있으므로 서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부모은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가장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고, 가족이야말로 사회구성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충신을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는 말은 현실윤리를 강조하는 유교권에서는 보편타당성을 갖는다.

보은의 가치를 현대사회에 살리기 위해서는 대승불교에서 주장하는 대효(大孝)의 논리를 사회화하는 일에 힘을 써야한다. 도선(道宣)은 <광홍명집>에서 대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사문이 효로 삼는 것은 위로는 모든 부처님께 순응하고, 가운데는 4은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위하는 것이다. 이 셋이 부족하지 않는 것이 큰 효(大孝)의 하나가 된다.'

이처럼 대효는 보은의 다른 말이다. 효가 충효로 대변되는 가정이나 국가에 국한된 수직적인 관계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면 대효는 이를 포함, 일체 모든 중생들, 더 나아가 산천초목까지도 경외하고 갚아야할 보은의 대상이 된다. 인간의 존재의미는 은혜를 알고(知恩), 은혜를 갚는 일(報恩)에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은혜입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따듯한 햇볕 한 줄기가 없다면 어떻게 들판의 양식이 익을 것이며, 입으로 들어오는 쌀 한 톨이 농부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아니면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가.

욕망을 무기로 무한경쟁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인류가 진정으로 공생하기 위해서는 지은보은의 사상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대자대비의 대승적인 대효를 통해 자연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체의 현상을 타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일체사물 하나하나에도 부처님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부처님을 모시듯 불공하는 자세로 나아간다면 이는 역사 속의 부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당장 합장할 때 "당신의 존재에 감사합니다"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원영상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수호천사
대한민국 대표 삼베수의
www.suho-1004.co.kr

MBC BTN 불교 TV YTN 광고방영중
ISO 9001:2000 국제품질인증 획득 〈등록번호 : A2570〉
보성삼베섬유(주)는 27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품질보증 지정업체〉

올해 기축년(윤년)에는 100% 삼베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십시요!
본사에 수의를 보관해 놓은 회원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보관된 수의를 보내드립니다.

기축년

68만원에 국내 직조 수의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윤년맞이 특별할인 판매

올해 윤년을 맞이해서 보성삼베섬유(주)는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수의를 특별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수의를 장만해두시면 무병장수하고 가내두루 평안하며 자손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명품 특1호]

2009년 보성삼베섬유(주) 수의품목 및 판매 가격

	정상가격	할인판매가격	할인율	원 사	원 단	제 조
수호천사 2호	~~97만원~~	→ 6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수호천사 5호	~~142만원~~	→ 99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명 품 특	~~218만원~~	→ 148만원	32%	중국	중국	한국
명품 특1호	~~398만원~~	→ 250만원	37%	중국	중국	한국
수호천사특삼베	~~398만원~~	→ 278만원	30%	중국	한국	한국

✻ 수호천사 삼베수의를 구입하시면 시중에서 따로 구입해야 하는 매장베(멧베)를 추가로 드립니다.

수의 구매고객께 드리는 확정금액 장례서비스 (고객선택) (사후지불 확정금액)

150만원	수시복, 수시포, 베개, 혼백, 수시용품 일체, 향, 양초, 위패, 칠성판, 사진리본, 받침대, 양복(4세트),여상복(5벌), 도우미(2명), 꽃바구니(2개)	기본형
24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4명), 제단장식(1단), 꽃바구니(2개), 양복(4벌), 여상복(7벌), 유골함, 리무진 전국무료	고급형
350만원	수시, 염습, 입관용품, 도우미(6명), 제단장식(3단), 꽃바구니(2개), 양복(6벌), 여상복(10벌), 유골함, 리무진, 버스 전국무료	최고급형

✻ 보성삼베섬유(주) 수의를 구매하시는 고객님께 수호천사 회원자동가입이 되며 확정된 금액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치러드립니다.
✻ 장례서비스는 기존의 선불제 상조가 아닌 10년 후에도 위 금액으로 장례비 후불제 서비스 입니다.

수호천사는 삼베 재배에서 제조,
장례서비스까지 새로운 개념의
장례토털서비스의 이름 입니다.
27년간 장인정신으로 이어온
수호천사로 여러분의 효(孝)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성삼베섬유(주)
전속모델 방송인 강 부 자

1 투명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원단쯤이야' 하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제철에 한몫 크게 챙기려는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Q마크 품질보증지정업체)

2 품질이 우수합니다!
전통 기법의 가진 수의를 분리형으로 제작을 하였으며 원단을 아끼지 않아 수의 옷에 여유와 기풍이 느껴 집니다. 100% 면실로 정성스럽게 바느질하고, 일체의 화학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수의 고유의 기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ISO9001국제품질인증)

3 보상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구입 후 천재지변은 물론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손상이라도 50%까지 동일한 새 제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고객부담 50%)
보상 교환 서비스는 보성삼베섬유가 공장직영이기 때문에 가능 합니다.

4 한번 구입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까지!
보성삼베섬유(주)의 제품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철저한 회원관리 시스템으로 수호천사 장례서비스를 20년이 지나도 확정된 금액의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명품 특]

구입상담문의 전국 판매점 모집 문의전화 02-477-8060
1544-6609

보성삼베섬유는 선각종과 함께 합니다

보성삼베섬유(주)
BOSUNGSAMBE.Co., Ltd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66-1
TEL: 02-477-8060 FAX: 02-477-8061
장례서비스문의 1544-6607